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3호 2014년 7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성황리 폐막

장기자랑 · Brain Network Symposium 등 새 전기 Homepage 개선, 남가주 관악연대 대표 첫 참석도

미주 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가 Virginia Falls Church에 위치한 The Westin Tysons Corner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화려하게 개막돼 29일 Maryland 소재 PB Dye GC.에서의 골프대회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폐막됐다.

미주 각 지역 평의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제23차 평의원 회의는 27일 '제3회 Brain Network Workshop Symposium'을 비롯한 전야제와 28일 평의원 회의 본 회의, 29일 친목 골프대회까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다.

<관계기사 3~9, 14~19면 참조>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는 예년과 달리 전야제에 '지역 동창회 장기자랑' 코너를 신설하고 'Brain Network Symposium'을 개최했으며 환송 만찬에서는 미주 사회에서도 저명한 Victer Cha 교수를 Keynote Speaker로 초대해 특별 강연<18면 참조>을 듣는 등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거나 추가해 동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미주 각 지역 동문들은 행사의 전야제 전 날인 26일터 속속 모여들기 시작해 1년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으면서 동문들간의 두터운 친목과 애정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였다.

▶Brain Network Symposium 및 전야제(27일)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Brain Network Symposium이 예년에는 별도 행사로 치러졌으나 올해에는 미주 평의원 회의 일정에 포함시켰다.

이채진(문리대 55·Claremont McKenna College 명예교수) 담당 부회장을 대리한 하용출(문리대 67·University of Washington)교수와 함께 이번 행사를 총괄한 김정식(농생 85·Georgetown대 교수) 미주 동창회 사업국장의 사회로 symposium은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이채진 담당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오전과 오후 session으로 나누어 실시된 이날 symposium은 오전 '한국의 역사와 전통' 분야에서 4명의 동문학자, 오후에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역시 4명의 동문학자들이 각각 담당한 주제 발표를 해주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4~5, 17면 참조>

이 symposium뒤 마련된 전야제에서는 지금까지 칵테일 파티에 이은 dinner 만찬으로만 진행하던 기존 프로그램에 지역 동창회 장기자랑 코너를 새로 마련해 실시했다. 이 장기자랑 코너에서는 출연진들의 깜짝 이벤트로 참가 동문과 가족들은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16면 참조>

이후 밤 10시부터는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 주재로 각 지역 동창회장단이 참여하는 지역 동창회장 회의가 진행됐다.

▶평의원 본회의(28일) = 오전 9시부터 본 회의가 시작됐다. 오인환 회장의 개회선언과 성원보고, 환영사,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격려사(동영상), 오연천 총장의 축사(모교 남익현 기획처장 대독)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전 회의록 낭독, 사업, 동창회보, homepage개선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미주 동창회 homepage는 앞으로 webmaster로 봉사해줄 뉴욕 동창회의 김원영(미대 81) 동문이 새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영상으로 보고해 큰 관심을 끌었다.

젊은 세대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마련한 관악세대와 대화를 위한 시간에는 남가주의 관악연대(연대장 고정범·법대 79)를 대표해 차기민(공대 85) 동문이 남가주 관악연대의 설립 목적과 배경, 활동상황 등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오전시간의 각 사업과 보고에 대한 토의 안건으로 지정된 현안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와 질의 응답, 그리고 표결 등이 이어졌다. <7~8면 참조>

▶골프대회(29일) =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Maryland 소재 P.B. Dye Golf Club에서 골프대회를 열었다. 지난 해에는 화씨 90도 후반의 무더위로 각자 제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80도 중반으로 지난 해보다는 쾌적한(?) 가운데 골프를 즐겼다. 오후 6시경 시상식과 함께 이번 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19면 참조>*** **<편집주간>**

알 림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미주 동창회에서는 미주 동문들의 건전한 문학작품 활동을 한 층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학 작품을 응모받아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 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애초 마감일을 8월 15일로 했으나 연장해서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심사 결과 발표 역시 내년 2월로 연기합니다.)

▶작품 종류 = 시·수필(체험기도 무방)·꽁트 등.

▶수량 및 원고량 = 시는 5편 이상, 수필이나 꽁트는 2편 이상으로 각 편당 letter(A-4)용지에 words process 10 point로 4~5매 이내(필사본은 사양함).

▶심사 = 서울대 출신 등단 문인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위원

▶응모자격 = 재미 서울대 동문회원으로 회비 납부 요함.

▶시상 = 당선작은 본 동창회보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과 상패를 수여.

▶기타 = 원고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로 우편으로 보낼 것. 봉투에 '우수 작품상 응모' 라고 명시할 것.

▶주의 = 응모 작품은 지금까지 타 언론이나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작품을 원칙으로 함.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영어와 한글), 졸업 단과대학 및 입학연도, 전화번호, 가능하면 e-mail주소를 명시할 것.

▶마감일 = 2014년 12월 31일.

▶보낼 곳 = 미주 동창회 사무실(1952 Gallows Rd., # 206. Vienna VA.22182

▶문의 = 미주 동창회 사무실. 전화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결과 발표 = 가능한 경우 본 동창회보 2015년 2월호에 심사 결과를 발표함.

서울대 미주 동창회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 환영사

"북미주 '서울대 웅비' 실현 확신"

존경하는 평의원 여러 분, 전임 미주 동창회장님 여러 분, 주제 연설을 해주실 Dr. Victor Cha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가족 분들과 귀빈 여러 분,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23차 평의원 회의, 어제의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모두 여러 분들의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발전에 대한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밀어 나가면 우리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의 꿈인 대도약을 성취하고 이 북미주에 '서울대학교의 웅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대도약은 바로 북미주에서 우리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웅비'를 의미합니다.

무릇 개인이나 단체는 그들의 꿈의 크기 만큼 큰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꿈은 커야 합니다. 큰 꿈을 향하여 북미주에서 1만 명 넘을 우리 동문들이 Brain과 Passion으로 일치 단결하여 정진합시다.

Brain 과 Passion 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시면 우리의 원대한 꿈울 실현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제12대 회장단이 출범 하면서 8대 주요 Project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1년간 많은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미주에서 서울대가 웅비하는데 필수불가결의 사업이오니 평의원 여러 분과 지역 동창회 동문 여러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오늘의 만찬에 이은 Victor Cha 교수님 기조연설과 작은 음악회를 즐기시기 바라며 내일 친선 골프대회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

서정화 총동창회장 격려사

"모교와 동창회는 일체화돼야…"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님과 김은종 명예회장님, 그리고 손재옥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평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평소 여러분이 품고 계신 모교에 대한 애정,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바가 있어 비로소 이루어진 오늘의 만남에 즈음하여 새삼 이 미주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활약해 오신 여러 동문들에게 경의와 우정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매월 발행되는 미주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과 고국을 향한 애정어린 조언, 그리고 단합된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빠짐없이 동봉되는 후원금 독려 편지를 읽으며 30만 달러 기금 목표를 향한 오인환 회장님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고 계신 오인환 회장님을 비롯해 권철수 기금모금위원장, 장경태 회보 편집위원장, 정평희 사무총장, 한정민 총무국장, 백옥자 조직국장, 유홍열 재무국장, 함은선 광고국장, 김정식 사업국장, 이우진 섭외국장 등 미주 동창회 본부 임원 여러 분과 워싱턴 DC지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는 25개 지역 동창회와 1만여 명의 회원을 아우르는 거대 한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미주 동창회는 회원 화합을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엘리트조직으로서 한인 모두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에서 앞으로 100년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 미주 한인들이 미 주류 사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 분, 우리 총동창회에서는 모교를 세계 10위권 명문 대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모교에서 주력하는 국제교육 강화와 이공계 첨단과학, 산학협력, 국제금융 육성 등에 부문별 후원팀을 구성해 모교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100억원을 투입하여 모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역사연구 기록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모교의 과거 자료는 물론 교수님들의 주요 논문, 역대 총장님의 연설문, 동문 및 재학생의 기록 장래 계획 등을 전시함으로써 서울대인의 뚜렷한 국가관과 미래를 선도할 기념비적 명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모교와 동창회는 일체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도 머지않아 사회에서 동창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교, 동창회, 재학생 3자는 발전적 운영을 일체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절대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힘이 기하급수적인 발전력이 되어 이상사회로 나아가 소망의 통일국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원의 일생에 항시 서울대학교의 명예와 진리가 그 토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동문은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세계사적 지각변동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기에 특별히 우리 서울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내외의 모든 서울대인들은 힘을 합쳐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 미주 동창회 안에서 진지한 고민이 자각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분이 합심하면 반드시 크게 이룰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총동창회장으로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신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교 오연천 총장 축사

"세계 초일류대 도약은 동문들 덕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미주 총동창회 오인환 회장님과 손재옥 차기 회장님, 그리고 평의원회 여러분!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직과 성실, 헌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1만여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동문 여러분의 모교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안녕과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염원하고 계시는 여러 분의 충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법인화 이후 지금까지 2년 반의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는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지식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및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창의적인 미래 교육과 연구를 기획·지원하고, 법인 체계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도 연구중심 대학 육성 프로젝트' 를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영입하였고, 기반학문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도 모색해 왔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대학교는 최근 실시된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학계 평판도 순위에서 2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41위에 이어 올해 15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THE 평가의 아시아권 순위도 작년보다 네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3년 세계 대학 평가 순위는 35위, 2014년 아시아권 순위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THE와 QS의 순위는 서울대학교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주 동문님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인내심과 헌신,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긍지와 명예 덕분일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 23차 정기 평의원 회의' 가 동문 여러분들의 가치와 자부심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교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해주시는 오인환 회장님, 손재옥 차기 회장님 및 평의원회 동문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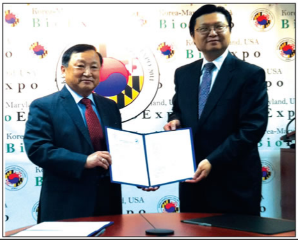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며,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남익현 기획처장 대독>

미주 동창회

Maryland의 JGBLI와 MOU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이 정평희(공대 71)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 6월 10일 Maryland Germantown에 위치한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사장 이원로)사와 사업협력 및 홍보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왼쪽)이 JGBLI 이원로 사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미주 동창회 정평희(공대 71) 사무총장>

JGBLI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홍보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JGBLI는 MD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관반민 단체로 미주 동창회보에 Marketing 광고 기증 등을 해주기로 했으며 미주 동창회는 JGBLI의 바이오 박람회, 세미나, 투자 설명회, 교육 연수 등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JGBLI는 매년 11월에 Rockville, MD 에서 Annual Bio Expo를 개최하는데 2박 3일간 수십개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Booth를 차려 놓고 홍보하며 FDA 관련 seminar, 견학, MD 정부 인사들과 networking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오인환 회장은 "전문컨설팅 기업 JGBLI와 협력으로 미주 동창회 사업 추진시 공동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11월 예정된 2014바이오 박람회에 협조가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 이라고 화답했다.***

<미주 한국일보>

차 례

3.<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26일>1년만에 다시 만나 정담 가득/ 미주 동창회의 과거·현재·미래
4-9.<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 B.N Symposium에 대해/ SNUAA-USA Korean Studies Faculty결성/ B.N.Symposium연사 동문들께/ 열띤 토론의 본 회의/ 지역동창회장 ghldml/ 남가주 관악연대 설명/ 오하이오대 김용헌 교수/ 권기현 윤경의 박사 남다른 누이와 동생/ 한정민·박형준 동문 40년만에 만난 한 동네 초교동문/ 평의원 회의를 마치고
10-11. <모교소식>시진핑 주석 서울대 강연/재학생 4명중 1명 자퇴생각해본 적 있어/법인화후 오히려 뒷걸음/ 모교신축 도서관 리모델링/사대 국어교육과 대학원생 절반이 외국인/ 달라진 의대 면접시험
12-13.미주 동문 동정
14-19.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20.<생활수필>나이를 먹어가는 것/ 동해병기 그 성공과 반성/ 불신 가르치는 사회
21.<관악세대>Providence에 담긴 뜻은/ 가장 경제적인 종합검진은/ 무단 도용·전재·복제 금지
22.<관악세대>A Fish Called Wanda/ 감독 가브리엘 피게로아
23.<My Journey to…>아메리칸 드림 50년<12>
24.<달러 속 주인공 이야기>1달러 초상화의 조지 워싱턴
25.<역사칼럼>우리의 뿌리를 찾아서<상>
26-27.동창회비 및 후원금 명록
28-29.동문업소록/ 신간안내
30.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편집후기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26일>

1년만에 다시 만나 정담 가득

"미주 동창회의 과거 · 현재 · 미래"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에서 미주 동창회의 역대 회장과 현재 회장, 그리고 차기 회장이 모였다. 역대 회장들은 미주 동창회의 산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제8대 이영묵(공대 59) 회장, 제6대 이용락(공대 48) 회장, 제10대 송순영(문리대 52) 회장, 제12대 오인환(문리대 63) 현 회장, 제11대 김은종(상대 59) 회장, 제9대 이전구(농대 60) 회장, 제13대 손재옥(가정대 77) 차기 회장. *손재옥 차기 회장은 사진 촬영시 잠깐 자리를 비워 부득이 또다른 사진으로 대신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주 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가 Virginia Falls Church에 위치한 The Westin Tysons Corner의 hotel 회의장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화려하게 개막돼 29일 PB Dye GC. 골프대회까지 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번 평의원 회의의 이모 저모를 요약한다.

▶**우래옥** = 참가 동문들은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26일부터 회의장에 속속 모여들었다. 주된 이유는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을 경청하기 위해서였다.

동문들은 오자 마자 먼저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는 서로 만나자 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1년만에 다시 만난 즐거움을 표시하듯 정담을 가득히 나누기도 했다.

오인환 회장은 이들을 위해 오후 6시 한식 레스토랑 우래옥에서 만찬을 제공했다. 동문들은 우래옥에서의 저녁 만찬 시간 1년만에 다시 만난 감회의 회포를 마음껏 풀었다.

▶**개인 소개** = 동문 개인 소개 시간 중 시카고 동창회의 조봉완(법대 53) 명예교수는 "미국 생활 50여년 중 과거 워싱턴 DC에서 22년을 살아 이곳이 미국에서는 제2의 고향 같다"고 말했다. 조봉완 명예교수는 Brain Network Symposium 강연자이기도 하다.

아이오와의 김영진(문리대 49) 교수 역시 워싱턴 DC의 대학에서 30년간 교수생활을 해 이곳이 아주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명예교수 역시 Brain Network Symposium 강연자로 초청됐다.

남가주 동창회의 박혜옥(간호대 69) 차기 회장은 "남편 역시 동문(음대)으로 동창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같이 오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의 한정민(농대 87) 총무국장은 "지난 해 제22차 평의원 회의 때 거의 모두 뵈었던 동문들이라 전혀 낯설지 않고 반갑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주변에서 "한정민 총무국장은 재치가 철철 넘치는 아이디어 우먼으로 정평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고병은(문리대 55) 박사는 얼마 전 중차대한 탈장 수술을 받고 아직 쾌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참석했다.

고병은 박사는 "필라델피아 초기 동창회장 시절 너무 관심이 적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 '발 회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었다"고 말했다. 고병은 박사는 "동창회에 적극적 협조하는 것이 보다 나은 동창회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DC의 안선미(농대 65) 동문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주변에서 "DC 동창회의 무임소 장관"이라는 별칭으로 호칭해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안 동문은 동창회 일은 물론 사회봉사 활동에서도 어떤 일이라도 마다 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해내 이같은 별칭이 붙었다고 했다. 급할 때 뭐든지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로 특유의 친화력도 큰 강점이다.

하틀랜드 동창회의 이상강(의대 70) 회장은 "처음 동창회에서 의사들이 너무 째째하다고 끼워주지 않았는데 아내(김경숙 가정대 70) 덕분에 묻어서(?) 들어가게 됐다"고 말해 일견 주위를 긴장(?)시켰다. 이 회장은 이어 "대학 재학 중 아내를 만났는데 평생 아내 덕을 많이 봐 아내를 얻은 것이 대학생활 중 최고의 성공작"이라고 말해 주위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올해 90세 최고령으로 참석한 워싱턴 DC 방은호(약대 43) 동문은 건강생활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다. 방 동문은 "요즈음도 하루 400마일 정도는 거뜬히 운전을 한다. 자동차로 5시간 정도의 뉴욕을 하루만에 갔다 오곤 한다. 앞으로 120살까지 살 생각"이라고 말해 역시 힘찬 박수를 받았다.

▶**호텔 숙소** = 동문들은 Tysons Corner의 The Westin hotel로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일부 동문들은 호텔 라운지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칵테일이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하틀랜드 동창회의 이상강 회장은 우래옥에서 전작(소주 1병)에도 불구하고 거푸 위스키를 주문하며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태백의 숨은 이야기를 해주어 동문 모두가 공유하는 기회가 아쉬울 정도였다.***

→왼쪽부터 김영진 교수, 오(조)봉완 명예교수, 방은호 동문. 올해 90세의 방은호 동문은 "요즈음도 하루 400마일 쯤은 거뜬히 운전 한다. 앞으로도 120세까지 살 생각"이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1년만에 다시 만난 동문들은 우래옥에서 만찬이 끝난 뒤 호텔에 돌아와서도 삼삼오오 모여 밤 12시가 넘도록 정이 가득찬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하이오 동창회 김용현(경영대 59)교수(신시내티대)와 부인 방경숙(음대 66) 동문, 하틀랜드 동창회 이상강(의대 70) 회장 부인 김경숙(가정대 70) 동문, 필라델피아 동창회 전 회장 고병은(문리 55) 박사, 이상강 회장.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이 열리기 전 날인 26일 도착한 동문들은 오자 마자 등록을 마쳤다. 이날 가장 먼저 등록장에 입장한 동문들이 미주 동창회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앞으로 제1착 등록 동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왼쪽부터 시카고 동창회의 한재은(의대 59)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장, 미주 동창회 김정식(농대 85)사업국장, 미주 동창회 한정민(농대 87) 총무국장, 시카고 동창회 이승자(사대 60) 전 회장, Brain Network Symposium 초청 강사 김병동(농대 62) 모교 명예교수, 남가주 동창회 박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 오 회장 부인.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4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27일>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

미주 평의원 회의 둘쨋날인 27일은 오전 8시부터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이 열렸다. 오전 session에는 moderator 하용출 교수에 의해 4명의 강연 담당 교수가 소개돼고 강연 후 panel discussion이 이뤄졌다.
오후 session에는 moderator 임종식 교수에 의해 역시 4명의 교수가 소개되고 강연 후 panel discussion이 이뤄졌다. 이날의 각 session별 강연 내용 초록을 게재한다.

일본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북미연구동향

문유미(외교 85)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tanford Univ

일제 식민지 시대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의 하나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경험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은 일제의 수탈과 한국 사람들의 고통과 저항의 역사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약 25년간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식민지 경제, 식민지와 근대화 문제, 일본 거류민의 정치와 일상, 동화정책, 전쟁 말기의 자원병과 군사동원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다섯개의 영미권 주요 저작을 소개하며 이 저작들이 한국 역사 연구에 던지는 문제점들을 동문들과 함께 토론해보았으면 합니다.

Re-evalu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in Korea: the mainstream paradigm in North America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cademic and political subjects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The Korean memory of the Japanese rule has been centered on the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Korean resistance and suffering. However, in the past 25 years, a revisionist paradigm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s been strongly presented by the scholars in North America. In my presentation, I will introduce the five major books published in English on colonial Korea and discuss their main arguments and problems.

미 군정 설립 특성과 한국에의 공헌

오(조)봉완(법대 53)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Edmund A.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

제 2차 대전 직후 3년간, 1945년부터 1948 년 사이에, 미국은 38도 이남의 한반도에 군사 정부를 설치하여 한인을 통치했다. 이것은 반도 분단과 더불어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일본 제국이 멸망하고 한반도에서 물러나면 독립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한인은 또 다른 외인 지배하에 살게 되었다.
충격이 컸던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 설립 후 40년간의 독재정치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 한국내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미국측에서는 군정시대에 많은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발표는 군정 설립의 근원과 군정업적과 과오를 검토하고 미 군정이 한국에 끼친 영구한 영향이 무엇인가 살펴 보려고 한다. 이 발표는 새 연구의 결과가 아니고 기존 문서의 재검토와 재분석을 한 것이다.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e Origin, Accomplishments, and its Contribution to Korea
Immediately following WWII, South Korea was under the rule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for three years, 1945-1948. To be subjected to another foreign rule after being liberated from the harsh Japanese colonial rule of 35 years was a humiliating shock to Koreans.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disappointment Koreans experienced, however, the subject had been awfully neglected as a field of study. A multitude of reasons exist for this lack of interest in serious examination of the topic. On the Korean domestic side, South Korea was under totalitarian regimes for nearly four decades (1948-1987) except for a brief interval (1960-1961) between the first and third republic. During this time, Koreans were severely restricted in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side, Americans were reluctant to expose numerous mistakes, large and small, they had made in Korea. Lodged at the outset of the liberated Korea, howev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non-Communist South Korea, which evolved into democratic and economically vibrant South Korea. This presentation will survey the origin, accomplishments, blunders, and consequences of the three rule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is presentation is not based on new research. It is the result of a fresh look at and synthesis of existing materials.

대중문화와 한국어의 변화

유영미(영문 75)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Rutgers Univ.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어의 근대화 과정은 언어생활의 중심이 글말(문어체)에서 입말(구어체)로 파격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어는 1천년 이상의 시간 동안 중국의 한자 문화와 문자의 영향 아래 이중언어 체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이러한 언어 접촉 현상은 어느 언어에서나,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기에나 찾아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이지만 21세기의 글로벌 문화는 언어 접촉의 범위나 지리적 거리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한국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중 문화의 주도에 의한 언어 적응 방식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현상이다. 현저히 증가된 조어력, 외국어를 수용하고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 언어 해체 현상, 언어 유희와 새로운 각운의 등장과 같은 창조적인 언어 현상이 요즘의 한국어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Language Unleashed Through Pop-Culture: Emerging Expressive Power
Many progressive intellectuals in the 1890's advocated the idea of 'onmunilchi' in the sense of 'write as you speak' as an integral part of modernization. This movement promoted experimentation on various colloquial written styles, finally resulting in the modern narrative prose style. This 'phonocentricism' (Derrida 1982), which recognizes the primacy of speech over writing, continues on to the present day Korea although emerging language contact involving English is quite different than the Chinese diglossia mode. English is ubiquitous both as writing and as speech, which causes xenophobic responses among language purists, who function as watchdogs against massive flows of foreign words and syntactic expressions. However, it might be impossible and not even desirable to weed out millennia-old Chinese translation styles, century-old Japanese borrowings and English loans flooding the country at an unstoppable speed. Rather, we notice the adaptive power a live language has in absorbing, rejecting, and assimilating foreign elements; there is an increasing vitality in native morphological power of word-formation, word plays such as puns and rhymes, and other creative innovations in cyber-space. These linguistic innovations in popular culture have triggered an irreversible change in the texture, the sound and the metrical structure of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국제정치 사이의 남북 관계 : 북핵문제 중심

김영진(정치 49)
George Washington Univ.

북한의 국내 및 대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 요인은, 북한 당국이 검토 중에 있는 정책이 자신들이 말하는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기여하느냐 하는 점이다. 즉 북한 당국은 통치자의 정통성 제고와 그의 권력 기반 공고화에 공헌하느냐라는 기준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과거 몇 년 동안 북한이 야기한 대형 대남도발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바로 그런 국내 정치적 요인이었다는 것이 한미일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이런 연구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함의는 북한이 외교 안보 정책에서 보여온 공격성, 모험성, 비-비례성이 계속 작동할 것이란 예측이다. 따라서 한 미 일 등 관련 국가들이 자신들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북한이 충족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회피하는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경우, 북한은 벼랑끝 정책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인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인식의 근거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전제의 타당성 여하에 달려있다. 구두 발표시에 이 문제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과 미국의 대북 정책 옵션 및 남북 관계 전망을 논할 것이다.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Asia-Pacific
This paper assesses the prospects for inter-Korea relations in the midrange by examining the pattern of North Korean government behavior toward South Korea in recent years. Of the myriad factors shaping North Korean actions, none has been more powerful and compelling than the imperative of establishing what North Korean ideologues call "the unitary leadership system," or enhancing and consolidating the legitimacy of Kim Jong Un's rule. The prevailing view among North Korea specialists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is that Kim Jong Un has not been able to fully consolidate his political power, which is likely to remain fragile for many years to come. Hence the dominant assessment among analyst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act provocatively toward external targets, particularly South Korea, unless the relevant powers choose to engage North Korea in talks. Their assessment rests on the premise that fundamental change is unlikely to occur in the near future given the structure of power relationships among nations with crucial strategic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comments on the validity of several major assumptions underlying that assessment.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신농업 기술

김병동(농대 6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식량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고, 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줄 최후의 보루다.
지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심한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이 장차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라 한다. 남한은 식량 자급률은 25% 정도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려할 문제나 현실적으로는 밥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고, 한 겨울에도 수박, 딸기 등 채소와 과일을 즐길 수 있다. 오히려 과식과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어 위기감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경제 발전과 함께 농업 과학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첨단 생명과학기술이 농업에 접목되어 단순한 먹거리의 제1차 산업에서 건강식품, 보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5

건, 의료, 관광, 생태, 문화에 연결되는 제6차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농업은 21 세기 생명과학 시대에는 생명산업의 재료이자 제품을 책임지며 기초생명과학의 핵심까지도 다루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New Agriculture Technologies to Solve Food Security

Food is the basic condition for human survival and the last resort for keeping the sovereignty of a nation. North Korea now is suffering chronic food shortages. People are dying out of famine. It calls for attention that children suffering developmental disorders out of malnutrition shall turn out as a big societal burden. South Korea scores 25% in food self sufficiency, which is an issue of concern for national security. Yet, people in South Korea do not seem to realize the food emergency as they enjoy plenty of meals and meats, fruits and vegetables such as water melon and strawberry even in winter time, and as they even worry about over-eating and overweight. For the relatively plentiful food supply we owe it greatly to economic prosperity as well as to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Currently, leading edge life science is tightly linked to agriculture to lead its transformation from a primary industry of food production to a 6th industry that connects to health food, health and medicine, sight-seeing and travel, ecology, and culture. In the age of life science in the 21st century agriculture takes charges of life material supplies and final products. Agriculture also is being promoted as a major player in the core of basic life science.

전립선 암의 오늘 발전과 도전

임종식(의대 51)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Surgery. Uniformed Services Univ. of the Health Sciences

Prostate Cancer(전립선암)은 미국 남성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미국 남성 암 사망율 2위에 해당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은 Androgen ablation (아드로겐 제거법)으로 치료 초기에는 대부분 objective clinical response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립선암 환자들은 이 치료법에 내성을 가진 전립선암이 재발하며 다른 부위로 전이된다. 현재는 progressive hormone refractory metastatic prostate cancer 를 치료하는 방법이 전무하다. 전립선암의 발생 mechanism 을 위한 연구는 이에 꼭 맞는 in vitro system의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Primary prostate epithelial cells(1차 전립선 상피세포)는 제한된 수명 동안 자라고 곧 노화한다.

Immortalization 은 노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세포로 정의되는데, 이는 초기 종양 발생 단계를 대표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이러한 초기 종양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prostate epithelial cells immortalization의 In Vitro 모델을 개발해 왔다. Primary human prostate epithelial(HPE) 세포를 얻기 위해 serum-free 조건을 사용하였다.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TERT)를 포함한 retrovirus를 사용해 immortalization된 primary HPE 세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Putative stem cell marker 들인 CD133과 CXCR4를 사용하여 HPE 세포에서 유도된 hTERT-immortalized primary non-malignant, 그리고 malignant 종양을 구분했다.

최근에 본 연구진은 최초로 동일한 전립선 암 환자로부터 유도한 한 쌍의 immortalize된 non-malignant 그리고 malignant 종양 세포주를 확립하였다. 이들 새로운 in vitro model 들은 정상 세포와 암 줄기 세포의 prostate carcinogenesis를 위한 독특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항암제를 실험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Prostate cancer is the most common male cancer in America and second leading cause of male cancer death in America. The therapy most widely used against advanced disease is androgen ablation and, initially, it almost always produces objective clinical responses. However, most patients eventually relapse with abl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and develop metastatic disease; currently, there is no treatment that will cure progressive hormone refractory metastatic prostate cancer. Research into the mechanisms of prostate cancer progression has been limited by the lack of suitable in vitro systems. Primary prostate epithelial cells grow for a finite life span and then senesce. Immortalization is defined by continuous growth of otherwise senescing cells and is believed to represent an early stage in tumor progression. To examine these early stages, we have developed in vitro models of prostate epithelial cell immortalization. Generation of primary human prostate epithelial (HPE) cells has been achieved using the serum-free condition. Retrovirus containing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hTERT) was successfully used for the immortalization of primary HPE cells. Putative stem cell markers CD133 and CXCR4 were further identified in hTERT-immortalized primary non-malignant and malignant tumor-derived HPE lines. Recently, we have for the first time established immortalized cell lines of a pair of non-malignant and malignant tumor derived from the same prostate cancer patient. These novel in vitro models may offer unique tools for the study of prostate carcinogenesis and of normal and cancer stem cells and also provide for the means for testing chemotherapeutic agents.

뇌 감염 연구의 현주소

김광식(의대 65)
Professor and Director Eudowood Division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Johns Hopkins Univ. School of Medicine, Baltimore, MD

뇌 감염은 전세계 인류의 중요한 사망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뇌감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관한 병원성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은 뇌감염을 일으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사람에게 뇌감염을 일으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BBB라고 불리는 소위 '혈관-뇌-차단막' 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뇌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뇌감염 병원균은 뇌감염에 반드시 필요한 혈관-뇌-차단막을 통과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뇌감염 병원균은 세포를 직접 통과하거나, 우회하거나 아니면 기만작전을 통해 혈관-뇌-차단막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이한 미생물학적인 요소와 혈관-뇌-차단막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며 또한 뇌감염 병원균들은 혈관-뇌-차단막을 통과하기 위하여 미생물 - 숙주간의 아주 독특한 신호전달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뇌감염 연구의 새로운 전략으로서는 구조유전학을 사용해 혈관-뇌-차단막의 통과에 관련된 병원 미생물과 숙주의 인자를 조사하거나 새로운 화합물질의 스크리닝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기초연구가 뇌감염의 방지와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rain infection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cause of mortality and morbidity throughout the world. A key factor contributing to the high prevalence of this disease is the incomplete knowledge of its pathogenesis. Almost all microbes that are pathogenic to humans have the potential to cause the brain infection, but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microbial pathogens account for most cases of brain infection in humans and the reasons for this observation remain incompletely understood. The blood-brain barrier (BBB) protects the brain from any microbes circulating in the blood. Recent studies, however, have shown that brain-infecting pathogens exhibit the ability to penetrate the BBB, the essential step for the development of brain infection. Brain-infecting pathogens traverse the BBB via transcellular, paracellular or Trojan-horse mechanisms. Traversal of the BBB by brain-infecting pathogens involves specific microbial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the BBB, and brain-infecting pathogens exploit microbe- and host-specific signaling molecules for their penetration of the BBB. Determin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bial and host factors contributing to BBB penetration by functional genomic approaches of microbes and host genomes as well as screen of chemical libraries demonstrates novel strategies for studying brain infection, and such factors represent novel targets for prevention and therapy of brain infection.

어떻게 하면 장수:실험동물 및 사람 조직에서 얻는 교훈

송병준(약대 68)
Chief, Section of Molecular Pharmacology and Toxicology Lab.of Membrane Biochemistry and Biophysics, NIAAA, NIH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심지어는 일찍 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담배와 술을 매일 과량 섭취해도 장수하기도 하고, 또 겉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다면 이들의 수명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기 사망을 방지하고, 또는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가 '각자의 운명' 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각각의 사람들의 '유전적 체질' 과 '환경적 요소' 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우리 연구실은 음주, 흡연, 약물 복용, 고지방 식사, 청량음료, 노화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병들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폭음,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자살한 사람들의 간 조직을 채취하여, 병리 생화학적 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저의 강연 시간 동안, 사람들이 흡연 또는 음주(폭음), 또는 고지방 식사를 할 때 생성되는, 산화 및 니트로화(oxidative/nitrosative) stress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과 간 또는 뇌의 조직손상 기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병리 생화학적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다. 또한 저희 실험동물 및 사람 조직에서 얻은 결과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암·당뇨·알츠하이머병 같은 장년·노년층에서 흔히 겪는 다양한 질병들을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의 생각 및 권장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most people want to live long, healthy, and happy lives. However, many people suffer from various diseases and sometimes die prematurely, while a few (exceptional) people live long and are apparently healthy, although they smoke heavily and/or drink large amounts of alcohol. What would be the reason(s) for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ir life spans and how could we prevent premature deaths and/or suffering from various diseases? Some people may relate the reasons to our destiny. The more biologically-relevant answers to these fundamental questions likely depend on the genetic makeup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each individual involved. To understand the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of disease processes caused by normal aging, alcohol drinking, smoking, clinically used drugs, or high fat diets with or without soft drinks, we have conducted a variety of in vivo and in vitro experiments, simulating human conditions. We also studied the post-mortem changes in liver tissues of autopsied people who died from binge alcohol drinking, acute cardiac failure, or suicide. During my talk, I will present some physiologically relevant data of increased oxidative/nitrosative stress, mitochondrial dysfunction, liver or brain damage, and ultimate death when people smoke or consume alcohol, non-alcoholic substances, or high fat diets. Based on our laboratory results from experimental models and human tissue specimens as well as literature search, I would also like to share my thoughts/perspectives on how to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by preventing various diseases including diabetes, cancer, and Alzheimer's Disease frequently observed in middle/aged people.***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6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제3회 SNU Brain Network Symposium에 대하여

하용출(문리대 67)
Univ. of Washington 교수

미주 동창회가 주최한 제3회 SNU Brain Network 심포지움이 지난 6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오인환 회장의 인사말과 필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진지한 토론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 2회에 이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이뤄진 발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주제들과 일상 생활과 연계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로 발표 후 많은 토론으로 이어졌다.

제일 먼저 발표한 Stanford 대학 한국사 담당 문유미 교수(외교 85)는 북미주 한국학계내의 일본에 의한 한국 식민지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통해 식민지 시기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이에 맞서는 저항의 역사에서 식민지 근대화 이론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벌어진 토론에서 문 교수는 북미는 물론 서구 학계에 만연된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서는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Georgetown 대학 명예 교수인 오(조)봉완 교수(법대 53)는 한국 역사의 또 다른 주요 사건인 미 군정의 설립, 특성 및 한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를 통해 비록 3년에 그쳤지만 해방 후 미 군정 3년은 한반도 분단과 더불어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오 교수는 이어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민주적 정치상황과 냉전 속의 미국의 독주 하에 이 시기에 대한 조명은 제대로 되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정의 공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중문화와 한국어의 변화’에 대해 Rutgers대학의 유영미 교수(영문 75)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냈다.

한국어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괄하면서 유 교수는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어는 근대화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핵심은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전환해 있었다고 규정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면 20세기는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이 컸고, 21세기는 글로벌 문화 속에 한국 언어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어의 변화에는 대중 문화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각종 광고, 영화, 문학, SNS에 나타난 재미있는 한국말 변용에 대해 비교적 분석을 제시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오전 토론의 마지막으로 김영진 George Washington대학 명예 교수(정치 49)는 국제정치 사이의 남북관계를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의 정책결정의 결정적 요인을 ‘유일지도체계 확립의 기여’로 전제하고 이것이 지난 수년간 북한이 야기한 대형 대남도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북한 행위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의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김영진 교수는 한-미-일 등 관련국들이 자신들이 제시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은 북한의 벼랑끝 정책의 재가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후 세션은 임종식 박사의 사회로 김병동 서울대 명예교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신농업기술’에 관한 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식량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 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줄 최후의 보루”라고 설파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반면 남한은 식량 자급률이 25정도에 미치는데 반해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쌀과 고기를 즐기고 겨울에도 신선한 과일 먹으면서 위기감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표에서 ‘식물공장’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소개되었는데 대형 건물내에서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LED광선을 활용하여 사시철 대량으로 채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요의 이면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농업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 교수는 “첨단생명과학이 농업과 연계되어 단순한 일차산업에서 건강식품, 보건, 의료, 관광, 생태, 문화 등과 연계되는 제 6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전립선 암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해 상세한 발표를 한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의 명예교수인 임종식(의대 51) 교수는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며 남성 암 사망율 2위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인 안드로겐 제거법은 초기에 유효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이 치법에 내성을 가진 새로운 전립선 암의 재발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임 교수는 이어 현재 progressive hormone refractory metastatic prostate cancer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없고 노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초기 종양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어 NIH의 송병준 연구책임자(약대 68)는 실험동물과 사람 조직에서 얻은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많은 흥미를 유발하였다.

음주, 흡연, 약물 복용, 고지방식사, 청량음료, 노화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병들의 병태 생리학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행한 동물실험과 폭음,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거나 자살 한 사람들의 간 조직을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부전과 간 또는 뇌의 조직 손상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호두의 중요성 등 일상 섭생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발표후 추가한 사항은 남자의 경우 술 2잔, 여자의 경우는 한 잔 정도는 두뇌활동을 촉진하고, 좋은 콜레스톨을 올려주며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였다. 여자가 두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 유방암에 노출 될 수 있다고 부연 경고하였다.

오후 마지막 발표자는 Johns Hopkins 의과대학의 김광식 교수(의대 65)였다.

뇌감염 연구의 현주소를 주제로 김 교수는 “뇌 감염이 인류 사망의 중요한 원인인데 반해 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뇌 감염의 잠재력이 있는 병원성 미생물 중 오직 극소수만 뇌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뇌 감염은 바이러스(virus), 박테리아(bacteria), 곰팡이(fungi), 기생충(parasite)등이 원인이 되는데 최근에는 몇 가지 박테리아에 의한 전파를 막는 Vaccine이 개발되어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연구는 혈관-뇌-차단막을 뚫고 세포를 통과해 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과 숙주 사이에 차단막을 뚫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뇌감염 방지와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장이 드리는 글

Brain Network Symposium연사 동문들께

오인환(문리대 63)
미주 동창회장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값진 논문을 발표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제23차 평의원회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Symposium을 예년과 달리 전국에서 모인 평의원님들, 워싱턴 동문들, 워싱턴 동포들을 위하여 개최하면서 주최측의 책임자로서, 혹은 서울대인으로서 무한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 선배,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과학·생명과학 분야를 넣었는데도 의외로 동문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동문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분과였습니다.

인문계통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 분야에서 문유미 교수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역사관을 조명하면서 한국의 시각이 결핍 혹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Bonnie Oh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학자들의 연구가 절실하고 시급함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용출 교수는 이를 위해 ‘SNUAA-USA Korean Studies Faculty(가칭)’ 연구팀의 제안과 지원을 요청하고 평의원회와 회장단에서 full support를 받을 수 있도록 인준받았습니다. 이제는 ‘SNUAA-USA Korean Studies Faculty(가칭)’를 위한 구체적인 plan이 필요해졌습니다.

먼 장래에나 Think Tank를 기대하려던 것이 이번 Brain Network Symposium을 통해 예상외로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제가 아주 고무되어 있습니다. 선·후배들께서 idea를 내주시고 자원해주시니 이제는 Think Tank 만드는 기금을 모아 오는 일이 시급해 졌습니다.

모두 여러 분들이 합심해주셔서 synergy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고 여러 분들의 고견을 그 때 그 때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진 교수께서 모든 준비를 해주셨고, 하용출 교수의 symposium moderation, 임종식 교수의 생명과학 분과 좌장 담당, 미주 동창회 김정식 사업 국장의 행정 지원 등이 결합하여 이번 Symposium 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SNUAA-USA Korean Studies Faculty(가칭)의 결성

이번 제3회 SNU Brain Network의 새로운 성과는 SNU Alumni Association Korean Studies Faculty의 구성에 대한 결의안의 채택이었다. 27일 오전 세션에서 다루어진 한국식민지 연구 현황에 관한 발표와 토론과정에서 필자는 문유미 교수가 소개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하루 빨리 연구 성과를 통해 극복하고 이를 위한 미주 서울대 동창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필자는 28일 평의원회 토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참석 평의회원들에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뿌리와 현황 그리고 이의 극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필자는 미국내에 일본에 의한 한국 식민지 근대화론이 정착된 이면에는 제1세대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일본학으로 출발한 점, 이들 밑에서 훈련받은 제2세대들이 현재 주요 미국 대학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내고 있어 이민 2~3세들이 주로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대영제국 선전매체를 통해 조선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 동문 교수들을 포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한 미주 학계내 노력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해 우선 서울대 동문 학자들을 그 핵심으로 하는 ‘서울대 동문 한국학 연구자 모임(SNUAA-USA Korean Studies Faculty 가칭)’의 결성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주 서울대 동창회가 이를 지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필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되는 일본주도의 한국에 대한 이해의 극복의 중요성 ▶기존의 장학 사업을 초월하여 한국은 물론 미주 및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게 되어 새로운 동창회 사업의 유형 개발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문후계자 양성 등 모교와의 연계 강화 가능 ▶미주 한인 후속세대에 정확한 역사 인식과 후속 학문세대 개발 등을 들었다.

또한 필자는 ‘서울대 동창회 한국학 연구자 모임(SNUAA-USA Korean Studies Faculty가칭)’은 미주 서울대 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사업인 Think Tank 설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가 이 연구자 모임의 연구, 후학 양성, 학생교육 등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이어 오인환 회장의 발의로 평의원회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 한국학 연구자 모임을 구성할 것과 이에 대한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요약** = 지난 6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치러진 제3회 SNU Brain Network Symposium의 새로운 성과는 SNU Alumni Association Korean Studies Faculty(미주 서울대 동창회 한국학 연구자 모임, 가칭)의 구성에 대한 결의안의 채택이었다.

6월 28일 가결된 이 결의안은 평의원회가 6월 27일 일본에 의한 한국 식민지 연구 현황에 관한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미주와 서구 학계에 만연된 식민지 사관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론 극복을 위한 미주 서울대 동창회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대 동창회 한국학 연구자 모임의 구성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한중민(왼쪽) 회장과 조화연 동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중민 전 회칙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27~28일>

열띤 토론이 벌어진 본 회의

28일 오전 9시부터 본 회의가 시작됐다.

정평희(공대 71)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본 회의는 오전 성원보고에 이어 오인환 회장의 환영사, 서울 모교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격려사(동영상), 모교 오연천 총장의 축사(모교 남익현 기획처장 대독)에 이어 회의록 낭독 등으로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오전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토의시간으로 진행됐는데 이날 있었던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추려 게재한다.

<업무보고>

▶**Brain Network 사업** = 김정식(농대) 미주 동창회 사업국장의 Brain Network 사업보고를 했다. 김정식 사업국장은 "Brain Network Symposium은 처음 시카고의 고병철(법대 55) 명예교수와 남가주 이채진(문리대 55) 명예교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이번에는 하용출(문리대 67) 교수께서 도움을 주셨다" 고 말했다.

김 사업국장은 "인문 사회 분야 외에 자연과학 분야가 일반 대중에 어떤 흥미를 느낄 것인지에 대해 우려했으나 의외의 높은 관심도에 전혀 기우인 것으로 드러나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동창회보** = 윤경의(공대 57) 편집위원은 현 동창회 발행 상황과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에 추가해 동문들의 기고와 관련된 참고 사항으로 '동창회보가 바라는 글(오른쪽 별첨 참조)' 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시카고의 조봉완(법대 53) 명예교수는 "우리 동창회보가 지식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2번째 '정치 사회적…내용' 을 제약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이의를 제기했다.

필라델피아의 조화연(음대 64) 동문도 "편집실의 편집방향을 존경하지만 조 명예교수의 의견에 동감하며 상반되는 의견을 동시에 게재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그런 이슈성 글은 게재 후 후유증이 워낙 커 부작용이 더 심해서 차라리 게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또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글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동시 게재도 어렵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윤상래(수의대 62) 전 회장은 반송회보에 따른 처리 비용 손실 우려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인환 회장은 "동문 database의 update를 위해 연간 1회 1st class mail을 보낸 후 반송을 받고 있지만 그외는 모두 반송없이 현지에서 폐기토록 3종 우편물로 나가고 있어 회송에 따른 비용손실은 없다" 고 말했다.

▶**평의원 Proxy** = 한재은(의대 59) 회칙위원장은 현재의 평의원 proxy 회칙이 완전치 못해 1인이 여러 개의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어 토의안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고 제의했다.

▶**homepage 개선** = 뉴욕 동창회의 김원영(미대 81) 동문이 동창회 homepage 개선에 대한 보고를 했다.

김원영 동문은 앞으로 webmaster로서 동창회가 운영하게 될 homepage에 대해 영상으로 보여주며 설명해나갔다. 기존의 homepage는 설계 당시 용량의 한계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최대한 기능을 높여 보다 upgrade된 시스템으로 동문들이 다양한 입력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글과 영문 사이트 등 2개의 화면으로 구성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이 homepage 운영에는 매월 일정액의 경비가 필요해 오인환 회장은 "동창회를 위해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online 광고 donation을 해줄 것" 을 요청했다.

<8면에 계속>

←본 회의장에서의 윤경의 편집위원(왼쪽)과 정평희 사무총장

동창회보가 바라는 글

존경하는 동문 여러 분, 우리 동창회보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문 여러 분들의 신문입니다.

살아온 이야기, 전문적인 분야의 나누고 싶은 글, 체험담, 기행문,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리는 대화의 공간입니다. 여러 분들이 보내주시는 글들은 미주 동창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따뜻한 내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과 모교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글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미주 동창회는 미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사회봉사(Charity,Donation Service)와 장학 학술활동(Education, Scholorship)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관련된 동문들의 활동, 의견, 경험담을 환영합니다.

기고해주시는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1.모교 혹은 서울대 동창회의 이미지에 반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내용

2.정치적, 이념적 혹은 사회적으로 편협된 글로 동문간 논쟁과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3.지나치게 종교적인 내용

4.타인의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음해할 수 있는 내용

5.개인이나 기업의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6.조국(혹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7.기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무릇 글에는 글을 쓴 사람의 얼굴과 자신의 품위를 나타나게 합니다. 동문 서로간에 상처를 주거나 글을 쓴 자신에게도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글은 피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긴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가 적당합니다(특집이나 기획 등의 경우는 예외).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독자가 흥미를 잃고 지루해 하며 끝까지 읽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국을 떠난 오랜 이민생활에서 한글로 글을 쓰는 일이 다소 힘이 들겠지만 우리 동창회보는 올바른 품위있는 원고를 싣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런 동문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여러 분 중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한 분이 많이 계실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체험담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동창회보는 재미 우리 동문들이 참다운 친목을 나누는 대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전공은 다르지만 여러 위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아진 동창회보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의 글이 모두 소중합니다. 몇몇 정해진 필자(20여명)가 자주 쓰는 글보다 되도록 많은 동문들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담긴 글을 환영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정을 나누는 그런 글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수 작품상(8월 15일 마감)에도 많은 응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지역 동창회 회장단 회의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과 전야제의 환영 만찬, 각 지역 동창회별 장기자랑 시간이 끝난 10시부터 오인환 회장 주재로 각 지역 동창회장 회의가 시작됐다.

다음은 이날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역 동창회와 미주 동창회간 대화 및 통신** = 미주 동창회 회장단에서는 수시로 미주 동창회와 지역 동창회 발전을 위한 소식과 계획을 전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역 동창회간 대화 및 통신** = 미주 동창회와 지역 동창회뿐만 아니라 지역 동창회 사이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회원 명부 및 전문분야 관리** = Brain Network 작업이ㅏ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문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data base의 manual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동창회의 함은선 전 회장은 "date base작업도 필요하지만 update도 중요한데 안되면 어려워진다" 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오인환 회장은 "2500달러를 들여 website도 만들었는데 앞으로 유지가 어려워 서로 대책을 논의해보자" 고 말했다.

▶**재정관리 및 세금 보고** = IRS 감사를 대비해 각 지역 동창회로부터 관련 세무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이에 응해온 동창회가 20%가 되지 않는다. 물론 남갖 동창회나 뉴욕 동창회처럼 독자적으로 세무감사에 대비하고 있는 지역 동창회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동창회는 그동안의 activity를 알려주면 미주 동창회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 작업은 제12대 미주 동창회 임기가 끝난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공로 및 감사패 수상자 선발** = 미주 평의원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동안 봉사해준 동문들에 대한 시상을 위해 적당한 동문을 추천해주기를 각 지역 동창회에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동창회에서는 이에 대한 협조가 아주 저조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 있다.

▶**사회봉사** = 비영리 단체는 주기적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또한 기금이 모금되면 절반 이상을 이에 사용해야 한다. 장학사업이나 학술 지원 활동 등이 아주 좋은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 한인사회를 위한 계획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명문대 동창회와 교류** = 하버드 대학 등 미국 명문대학 동창회와 교류를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목표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한국의 대학과는 문화와 시스템이 달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엽적 파트별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동창회 윤경의(공대 57) 박사의 장남이 하버드 출신으로 하버드-유타 동창회 등지에서 e-mail로 접근 중이다. 하버드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이나 예일대 등도 대상이 된다.

▶**관악세대 활성화** =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동참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관악세대 최대 조직을 자랑하는 남가주 관악연대의 대표자를 초대해 관악세대와의 대화를 마련했다.

▶**후원금 모금** = 미주 동창회는 전적으로 동문들의 donation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회장단이 처음 인계받고 3개월까지는 내내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악순환에 대한 대책으로 30만 달러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8

<7면에서 계속>

한편 시카고의 전현일(농대 62) 전 회장은 "앞으로의 방향은 인터넷 세상인데 게다가 종이 신문 발행에 큰 예산이 들고 있어 하루 빨리 website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IRS 감사대비 내부감사 =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배규영 감사위원장을 대신해 오인환 회장이 그동안의 과정과 실적에 대해 밝혔다. 총 25개 지역 동창회 중 감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내온 곳은 아직 20% 정도로 호응이 너무 저조해 각 지역 동창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미주 동창회 감사위원회에서는 100% 호응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재무보고 = 유홍열(자연대 74) 재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정평희 사무총장이 대신했다.

뉴욕 동창회의 이전구 전 미주 동창회장은 "과거 제9대에서 하틀랜드의 김명자(문리대 62) 동문이 종신이사회비를 냈는데 그동안 계속 이름이 누락돼 왔다" 면서 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시카고의 송순영(문리대 52) 미주 동창회 전 회장은 "당시 업무착오로 김 동문의 이름이 누락된 것 같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윤상래 전 회장은 "동문들이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기금을 많이 냈는데 수입에 들어가 있는지" 물었고 "종신이사비 3천 달러씩 적립에 대한 이자여부" 를 물었다.

이에 오인환 회장은 "대도약 기금은 특별후원금에 포함돼 있다. 또한 종신이사회비 신설 당시 이자수입을 기대했으나 이후 금리가 떨어져 0.01% 정도로 이자가 거의 없어 더 많은 동문들이 100달러씩이라도 내주시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전구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이자가 아주 떨어져 동창회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 부연설명했다.

필라델피아의 서중민(공대 64) 전 회칙위원장은 "모교발전기금을 미주 동창회에서 쓸 수 있도록 결의했는데 지난 해는 지출이 없는 이유" 를 물었다.

오인환 회장은 "지난해에는 모교에서 요청이 없어서 지출이 없었다" 고 말했다.

이전구 전 회장은 "모교 발전기금은 해마다 여름방학기간 중 모교가 재학생 Yale대 연수를 보내 이를 위해 사용했는데 모교에서 중단된 것 같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의 고일석(보건대학원 69) 동문은 "종신이사회비 3천 달러는 동창회 발전을 위한 fund로 많이 참여할수록 좋을 것이며 이를 위해 분할납부하도록 하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회장은 "동창회비 납부 동문 수가 아직 3분의 1이 되지 않는데다 종신이사회비 납부 종신이사 동문도 적어 동창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종신이사회비를 차라리 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동창회관과 Headquater = 고일석 동문은 이어 "미주 동창회가 2년마다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하니 한인회처럼 한 곳에 동창회관을 마련하고 headquater를 운영할 것" 을 제의했다.

▶감사보고 = 미주 동창회 박평일(농대 69) 감사(監事)가 나서서 "감사(感謝)를 하라는 것인지 감시를 하라는 것인지…" 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박 감사는 "여러 해 감사를 맡아 왔지만 어느 해보다 소상하고 정확해 감시가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 평했다.

필라델피아의 조화연 동문은 "감사는 2명으로 2명의 sign이 필요한데 어째서 한 분만 sign돼 있느냐" 고 물었다.

이에 오인환 회장은 "11개월분의 자료로 아직 6월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가 필라델피아의 주기목 감사의 sign이 아직 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의안건 처리 시간이 시작됐다.

▶차차기 회장 Nomination Committee위원 선출 = 새로 시카고의 이승자(사대 60), 중부 텍사스의 이영재(상대 58), 워싱턴주의 김무웅(음대 64), 뉴욕의 김창수(약대 64) 동문 등 4명의 새로 선출된 위원에 대한 인준이 필요하다.(직전 및 현재, 차기 미주 동창회장은 당연직).

▶Tennessee동창회 설립 = 지난해 설립요청된 테네시 동창회는 회원 수 30명으로 요건을 충분히 갖췄으나 설립 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회의에서토의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이다.

▶평의원 배정 = 그동안 지역 동창회 별 평의원 수는 특수 지역(알래스카 총 동문수 4명에 평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지역회장과 차기회장)혹은 수석부회장)외에 동문 100명당 1명씩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이것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새로 조정했다. 이의 인준이 필요하다.

▶ '평의원' 용어 검토 = '평의원' 이라는 말이 일본식 용어같아 '대의원' 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토에 들어가 토의안건으로 제출됐다.

▶ '관악후원회비' 명칭변경 = 관악후원회비라는 명칭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문이 많다. 이에 대해 '미주 동창회 후원회비' 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각종 후원금들의 종류 후원금, 특별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대도약 후원금 등도 부분적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건토의>

▶Tennessee동창회 = Tennessee 동창회는 평의원 인준을 받게 되는 오늘 인가 신청을 했는데 회칙 bylaw에 의해 평의원 거수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입이 인준됐다.

▶ '평의원' 용어 = 하틀랜드의 이상강 회장은 "과거 정운찬 총장과 cruise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함께 자리한 동문들이 평의원 이라는 말에 모두 반대한 일이 있는데 서울대 동창회보에서도 평의원 회의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 고 말했다.

시카고의 한재은(의대 59)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장은 "이곳 미국에서 굳이 일본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으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일본에서 온 말인지 확실하게 조사해봐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시카고 동창회의 한재은(의대 59)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장(오른쪽서 계신 분)이 평의원 proxy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정평희 사무총장은 "이곳에 많이 참석해본 동문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용어를 아는 동문이 별로 없다. 나도 맨 처음 이 말을 듣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라고 생각했을 정도라 누구에게나 익숙한 용어가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영묵(공대 59)미주 동창회 전 회장은 "그렇게 하면 부장, 경리 등도 모두 일제시대 용어로 모두 바꿔야 할 것이다. 평의원이라는 말이 이상할 것 없지 않으냐. '대의원' 은 오히려 공산당 같다" 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오인환 회장은 "꼭 일본식 표현이라서기보다 젊은 세대에 편리한 용어를 선택하자는 뜻" 이라고 말했다.

이에 필라델피아의 박형진(공대 87) 동문은 "평의원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다. 용어가 처음부터 의미가 와닿아야지 그렇지 못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평일 감사는 "이름을 당장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것 또한 너무 이르고 문제가 있다.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깊이 생각해서 차기 회의 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띤 논쟁 끝에 표결에 붙여져 좀 더 연구해서 내년에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결됐다.

▶'관악후원회비' 용어 =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미주 동창회 후원회비' 로 가결됐다.

▶Nomination Committee = 차기 회장 선출 등에 필요한 위원으로 당연직(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외에 4명(시카고 동창회의 이승자 전 회장, 중부 텍사스의 이영재 전 회장, 워싱턴주 동창회의 김무웅 전 회장, 뉴욕 동창회의 김창수 전 회장)을 인준받고 김은종 인선위원장은 이번 평의원 회의를 통해 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추천공고를 발표했다.

▶평의원의 Proxy문제 = 지금까지는 평의원 proxy문제가 다소 모호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제22차 전국 평의원회의록 18항에 note로 기록된 것을 추인했는데 다음과 같다. Note : '회칙에 의해 평의원이 다른 평의원의 proxy를 가져왔더라도 참석자 본인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평의원이 아닌 지부 동문이 해당 지부 평의원의 proxy로 참석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참석인원 당 하나의 투표권만 인정). proxy는 회의 정족수로 사용된다. 종신이사는 본인이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평의원 자격을 가지게 돼 투표할 수 있으며 proxy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주재단과 관계 = 이번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미주 동창회 활동과 미주재단의 기금모금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제21차 평의원 회의(알래스카 크루즈)에서는 미주재단과 상관없이 독자적 모교발전기금 모금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후 오인환 회장은 미주재단 이만택(의대 52) 이사장과 뉴욕에서 만나 두 단체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모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협력 partnership을 맺자고 제안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제안과 반론도 있었는데 모교 총장도 바뀌어 방침도 달라질 수 있으니 현 회장단은 미주재단은 물론 모교와 대화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내년 평의원 회의때 보고하기로 했다. 미주 동창회는 22년 이상된 단체로 미 25개 지역 동창회를 가진 조직에 비해 미주재단은 이제 3년 밖에 되지 않아 독자모금보다는 미주 동창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관악세대와 대화 = 적극적인 젊은 세대 동참을 위해 남가주 관악연대 동문을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box기사와 같다.

<9면에 계속>

←차기민 동문(왼쪽 서있는 사람)이 남가주 관악연대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차기민 동문 남가주 관악연대 설명

젊은 세대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남가주 관악연대(연대장 고정범·법대 79)의 차기민(공대 85) 동문을 초청해 대화를 시도했다. 관악세대의 생각과 기성세대의 생각, 남가주 관악세대의 활동사례,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점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차기민 동문은 남가주 관악연대의 조직 설립 동기와 그동안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해주었다.

차기민 동문은 남가주 관악연대의 탄생연원으로 "단과대학 단위의 동문회가 갈수록 노령화되고 후배들의 영입에 실패하고 있으며 관악세대들은 한 캠퍼스에 다녀 단과대학 정체성 보다는 학번별 동기 의식이 강하다" 고 말했다. 또한 "관악세대들이 단과대학에서 잘 mix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한 선배들이 별도로 모여보라는 주문에 따라 2001년 창립해 매년 급속도로 회원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남가주 관악연대의 활성화 계기는 초기 e-mail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off-line 모임을 자주 가지며 친목을 도모했으며 이들을 주축으로 2005년부터 총동창회에서 연극을 시작했다. 또한 website acropolistimes.com와 취미중심의 소모임에서 많은 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지게 됐다. 여기에서 총동창회와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재 남가주 관악연대의 특징은 ▶단과대별 폐쇄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심지어 비서울대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지적 수준이 통하는 동기들(같은 학번)끼리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선후배 분위기가 마치 고교모임처럼 친근하다 ▶한 번 분위기를 파악한 신입회원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사진 연극 영화연극 등산 합창 록밴드 캠핑 사이클 등 각종 소규모 동호 모임을 통해 친목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네트 워킹이 아닌 친목이 주목적인 모임이다 ▶서울대 엘리트라는 우월감보다는 뭔가 더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우선하는 사람냄새 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민 동문은 총동창회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관악연대를 통해 형성한 연대감이 총동창회 소속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관악연대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총동창회 멤버로 편입되고 있다 ▶초기 관악연대(40~50대)처럼 더 젊은 동문의 영입을 위한 제2의 관악연대(20~30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초 동창회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총동창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9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인터뷰 & 낙수>

"내년엔 동창회 차원으로 올것"

오하이오대 김용헌(경영대 59) 교수

"내년에는 반드시 동창회 조직 차원에서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람있고 의미있는 행사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미주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김용헌(경영대 59) 교수(신시내티대)의 다짐이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 김용헌 교수는 부인 방경숙(음대 66) 동문과 함께 참여했다. 한편 김동광(공대 62) 동문과 부인 이수자(공대 62) 동문이 최인갑(공대 57) 전 회장의 proxy를 가지고 참석했다.

오하이오 동창회에서는 근래 미주 평의원 회의에 참여한 일이 거의 없다. 미주 동창회와 소통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김 교수의 참석은 사실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김 교수는 "오하이오에서는 최인갑(공대 57) 전 회장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동창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최 선배 때문입니다. 동창회 초기부터 얼마 전까지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지요. 그래도 너무 오래 장기집권을 하셨는데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웃음).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더니 '우리 동창회가 생긴 이래 유명한 교수가 참석해준 일은 처음입니다. 동창회에 나오신다면 우리 동창회에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하시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하이오는 신시내티와 컬럼버스, 그리고 클리블랜드 지역까지 커버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서로 연락을 취해줄 수 있는 젊은 동문 한 사람만 붙여주신다면 회장이라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라면서 "최 전 회장에게도 다짐했다" 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인갑 전 회장 이후 오하이오 동창회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몇 명의 동문들에게 참석을 권유했지만 각자 개인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 혼자서 땜빵으로 아내와 같이 왔다" 며 "이번에는 이해해주기 바란다" 고 부탁했다.***

권기현(사대 53)전 회장·윤경의(공대 57)박사

"남다른 누이와 동생 애정 과시 "

평의원 회의 행사 내내 거의 같이 붙어다니며 서로를 챙기는 남녀 동문이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처음 대하는 동문이라면 혹시 부부지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겠다 싶다(실례).

워싱턴 DC동창회의 권기현(사대 53) 전 회장과 동창회보 편집위원인 윤경의(공대 57) 박사다.

알고 보니 두 분은 이종사촌지간으로 권 전 회장이 동문으로도 4년 선배다. 그런데 재학시절 권 전 회장의 거주지역이 인천이었던 관계로 윤 박사의 자택이 있었던 서대문구 영천에서 거주 통학을 하며 누이와 동생간 남다른 정이 도타와졌던 까닭이다.

두 분의 도타운 정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어진다. 부산 피난 시절 권 전 회장의 부친이 당시 문교부 고위직으로 부산여고 기숙사를 문교부 관사로 사용하고 있을 당시 잠시 가족과 떨어져 홀로 피난해야 했던 윤 박사가 이번에는 권 전 회장 거처에 머무르게 됐던 것.

이같은 환경에서 생긴 더욱 각별한 누이와 동생간 정이 남들보다 더욱 커진 것이다.

두 분은 행사 내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에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한정민(농대 87)총무국장·박형준(공대 87) 동문

"40년만의 한 동네 초교동문 "

이번 평의원 회의 행사 중 거의 40년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초등학교 동문이 있어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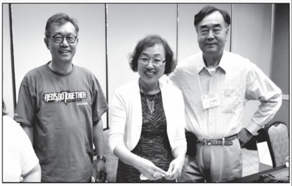
미주 동창회 한정민(농대 87) 총무국장과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박형준(공대 87) 동문이 주인공들이다.

같은 학번의 두 동문은 어린 시절 서울 방배동에 살아 방배 초등학교 동문으로 초등학교는 박 동문이 1년 선배로 밝혀졌다.

본 회의가 끝나고 송별 만찬이 열렸던 28일 우연히 같은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던 이들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거주했던 지역을 이야기하던 차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 반가와 했던 것.

박 동문은 "같은 학번이다보니 더 친밀감이 생겨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초등학교도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놀랐다" 고 감격스러워 했다.

한 총무국장은 "초등학교 때는 박 동문이 한 해 선배라 처음에는 잘 몰랐다. 출신 중고교 역시 길 하나 사이로 가까왔는데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고 말했다.***



손재옥(가정대 77)차기 미주 동창회장이 드리는 글

"평의원 회의를 마치고…"

지난 29일 Maryland의 아름다운 P.B. Dye Golf Club에서 골프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제23차 워싱턴 DC.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저도 일정을 모두 끝낸 것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지금까지 골프채를 몇 번 잡아보지 못해서 18홀을 어떻게 마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골프차 운전도 운동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골프대회에서 120야드 정도의 스윙을 했을 때 저희 팀 응원은 대단했습니다. 남가주 김창신(사회과학대 75)선배는 '이잘공(이민와서 최고로 잘 맞은 공)' 이라는 신조어를 알려 주셨고, 고병은(문리대 55)선배는 김창신 동문의 '이잘공' 을 위해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골프는 아마도 저의 또 하나의 서울대 마크가 되겠지요. 골프를 시작하지 못한 동문들에게 드리는 "나도 할 수 있다" 는 경험담입니다.

정평회 사무총장의 김밥을 손수 나누어 주시던 손길로부터 가족까지 동원한 임원진의 분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토록 자상하게 준비해주신 워싱턴 DC 동창회 여러분과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차 평의원 회의는 평의원 회의와 시카고에서 시작된 제3차 Brain Network Symposium이 함께 열려서 하루가 더 걸리는 회의였습니다. 그만큼 교제의 시간이 더 주어져서 많은 동문들과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7일(금)에 있었던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며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한국학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서울대 동문들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는 지금의 한국이 당면한 세계 정세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제별 기사를 회보에 실어 달라고 하는 동문들의 말씀에 동감하였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자연계의 연구발표는 식량개선, 전립선 암의 연구 현황, 장수의 비결, 뇌 감염의 현주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은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주제발표 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발표하신 동문들께서 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충분히 소개해주지 못하셨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Brain Network Symposium에 각 분야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는 생산적인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회의에서는 전 회장님들께서 동참하셔서 여러 안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배경설명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의원 회의 때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동문들을 격려해 주신 많은 평의원님들과 동문들께서도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오인환 회장님께서는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 귀중한 자료를 수시로 보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미주 동창회를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님과 오연천 총장님, 그리고 서울대 동창회 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대표로 평의원 회의를 지원하시기 위해 이틀 여행길에 오르셨던 서울대 남익현 기획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6월 20일 경에 필라델피아에서 평의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8면에서 계속>

▶미주 동창회장 유고시 =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 현 사무총장의 순으로 미주 동창회장을 대리하기로 표결한 결과를 다시 확인 가결했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회칙개정 amendment list로 작성해서 첨부 수록하기로 했다.

▶회원 자격 = 미주 동창회 회칙에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서울의 총동창회칙에는 준 회원이 하나 더 있다.

또 이 회칙에는 회원 자격정지 혹은 박탈 - 목적에 반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모교발전을 저해하는 자,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 에 관한 조항도 있다.***

<편집주간>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0

모교소식

←시진핑 주석(왼쪽)의 모교 강연 뒤 오연천 총장이 김병종 미대 동양학과 교수의 작품을 기념선물로 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서울대 강연

"각국과 협력해 아시아 발전·평화 이룰 것" 중국 발전방안 키워드로 서울대생 초청 '대학생 여름캠프' 개최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로운 정세에 주변국과 신뢰를 쌓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함께 평화에 기여하고 아시아 지역에 공헌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 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시아가 발전하려면 개방과 협력, 평화가 중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 각국과 단합해 국제·정치·경제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상은 연말까지 타결하겠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친구가 된 뒤 장사를 하자' 고 얘기했다. 이같은 선의후리(先義後理) 사상은 양국이 나아갈 옳은 관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국이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고 주변국으로부터 배우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30여년간의 급성장으로 현저한 성과를 이뤘다. 중국의 발전에 일각에서는 '매서운 악마' 로 형용하는 등 위협이 된다고 예상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민족은 예부터 평화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도모하고 수호하고 싶다. 21세기는 협력의 세계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번영을 위한 개발 전략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강연 내내 한국과 우호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까운 두 나라는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려해 비약적인 관계를 맺었다" 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동반자이자 수출입 대상국, 해외 투자 대상국, 해외 유학·여행 목적지" 라며 "한국도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투자 대상국 중 하나다. 중·한 교역액은 이미 한·미, 한·일, 한·EU 교역액을 합친 규모보다 많다" 고 설명했다.

또 "2008년 중국 특대형 지진 재해 때 한국 인사들이 주머니를 털고 지원해줬다. 앞으로 기쁨과 의로움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임진왜란 때 양국 국민들은 전쟁터로 함께 행했다. 20세기 상반기 일본은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중국 국토를 공격하는 등 야만적인 침략을 자행해 양국이 큰 고난을 겪었다. 대외전쟁이 가장 치열한 시절 양국은 생사를 같이 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는 유필을 남겨 청년들에게 젊은 시절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 양국 청년들이 서로 배우고 창조하며 중한 친선에 충실한 계승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강의 후 학술연구에 필요한 책과 영상자료 등을 서울대에 기증했다. 다음해 서울대학생을 초청해 '대학생 여름캠프' 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강연 시작과 말미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해 갈채를 받았다. 오연천 총장은 감사의 뜻으로 김병종 미대 동양학과 교수의 작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뉴시스>

재학생 4명 중 1명

"자퇴 생각해본 적 있다"

모교 재학생 4명 중 1명은 자퇴를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국의 세계일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 100명 중 24명이 '자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고 답했고, 그 중 4명은 '자퇴를 자주 생각한다' 고 답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수재 소리를 듣던 A(24)씨는 주입식 강의에 불만을 느껴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

그는 "강의 방식이 고등학교 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서 강의 시간에 '내가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만 들었다" 고 전했다.

'대학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자퇴생 수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 수치는 2만 1천여 명 수준인 총 재적학생 수의 0.5%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 재학생은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한다기보다는 단순히 학점을 따고 마치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고시학원 같다" 고 말했다.

모 TV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던 L씨는 박사과정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진학, 대학생활만 11년을 했지만 결국 자퇴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았다" 고 고백했다.

그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재학 중에도 창업을 꿈꾸었던 L씨는 "학칙상 공부와 창업을 병행할 수 없는 대학 내 구조, 또한 학교 당국의 무사안일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 고 고백하고 있다.

지난 해 빌게이츠가 서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회사를 창업하고 싶은데 학교를 자퇴하는 게 나으냐" 고 질문을 던졌다. 당시 빌 게이츠는 "나는 (하버드 대학을) 자퇴했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 면서 받아넘겼다. 강연 후 빌 게이츠는 따로 만나 L씨를 면담하기도 했다.

L씨는 "학생이 회사를 세우려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인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조경제'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며 "서울대 관계자들 말대로 창조적 인재가 나오려면 열심히 리포트 쓰는 학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창업 등으로 대표되는 창조적 활동을 권장하는 구조로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뻘질문(?)을 날렸다" 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울대가 학생들에게 학문 연구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원인으로 서울대 내부의 폐쇄성과 기초학문 취약 등을 꼽았다.

이원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기초학문 분야를 튼튼히 하고 학제 간 연구(통섭)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진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으로, 교수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평이 있다" 며 "해외 유명 석학을 초빙하는 등 실력 있는 교수진용으로 재편하고 첨단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서울 = 뉴스 1, 중앙일보)

법인화후 오히려 '뒷걸음'?

"모교가 국내 1위에서 밀렸다는 것보다 도약해야 할 때 오히려 뒷걸음질했다는 게 진짜 문제죠."

'2014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에서 서울대가 국내 정상을 카이스트에 내준 데 모교 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국제 경쟁력을 기르겠다며 정부통제를 벗어나 법인화한 이후 순위가 정체됐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QS 평가에서 서울대가 1위를 내준 게 처음은 아니다. 평가 첫해였던 2009년에도 2위에 머물렀다. 이듬해 1위를 탈환했지만 '2009년 쇼크' 는 서울대 법인화의 물꼬를 텄다.

"교수 1명 채용부터 예산·교육·연구 계획까지 일일이 규제받는 관료화 체질로는 세계 일류 대학이 될 수 없다" 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2011년 12월, 마침내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단 후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국제 경쟁력을 제대로 높이겠다" 고 공언했다.

서울대의 아시아 대학 평가 순위는 그러나 이때부터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2010년 아시아 6위 뒤 2012년 4위에 올랐으나 3년 연속 제자리였다. 반면 카이스트는 2010년 13위에서 올해 2위로 수직 상승, 서울대를 앞질렀다.

서울대는 지난 해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THE' 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포스텍(5위)에 밀려 8위에 머물렀다. 올해 평가에선 '국제화' 부문에서 특히 고전했다. 애써 모셔온 해외 석학은 계약 기간을 채우기도 전 떠났다. 외국인 학생 기숙사는 부족하고 영어 강의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소가 됐다.

뒷걸음질하는 이유는 여전한 관료주의가 큰 원인으로 법인 이사회가 신설되면서 의사 결정 구조는 옥상옥(屋上屋)이 됐다.

공대 이건우 학장은 "공대에서 무슨 사업을 벌이려면 하나하나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했다. 다른 학장 역시 "전공 신설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 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 판단과 추진력을 갖춘 카이스트·포스텍에 비해 변화 속도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데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현재 한계상태에 부닥쳐 있다. 그래서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 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모금 액수는 3년간 총 1천억으로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기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팀>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
서가		500만원($5,000)	☐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
개인캐럴	개인실	1천만원($10,000)	☐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
	8~10인실	5천만원($50,000)	☐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
	60석 규모	3억원($300,000)	☐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1

←민병곤 교수의 '한국어 표현론' 수업은 한국에 와 색다른 경험을 한 외국인 학생들의 발표로 늘 웃음꽃이 핀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대학원생 절반이 외국인!"

이 학과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기자도 이곳 국어교육과 출신인데, 어느 날 선배인 이 학과 윤여탁 교수를 만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윤 교수가 말했다. "나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 제자들이 공항마중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제자라니, 내가 재학 중이던 1970년대 후반에는 국어교육과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윤 교수는 "지금 국어교육과 대학원생의 절반은 외국인이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현재 이 학과 대학원생이 200명쯤인데, 그중 100여 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수업을 직접 보고 싶었다. 5월 16일 오후 민병곤 교수의 '한국어 표현론' 수업을 참관했다. 이 과목은 한국어교육 전공자에게는 필수다. 이 학과에서 '국어'와 '한국어'는 의미가 다르다. '국어'는 한국인이 한국어를 전공할 때, '한국어'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전공할 때 쓰는 말이다.

민 교수 수업에는 22명의 대학원생이 들어왔다. 그중 외국인은 14명인데 중국·대만· 러시아·홍콩·캐나다 등으로 석사과정 14명, 박사과정 8명이었다(이곳도 여풍이 거세 남자는 3명 뿐).

수업은 학생이 읽은 책의 개요를 대표로 발표하고, 내용에 부합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조 발표자로 지정해 이야기를 시킨 뒤, 다른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대표 발표는 한국인 학생, 보조 발표는 중국인 학생이 맡았다. 이런 방법은 많은 학생이 돌아가며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텍스트로 쓰인 에드워드 홀의 '생명의 춤'을 소개하면 시간은 문화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며 시간의 흐름이 리듬인데 리듬은 문화마다 달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은 '리듬의 충돌'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보자는 식으로 전개됐다.

학생들의 경험담이 이날 수업의 하이라이트였다. 원어민 중국어 교사로 부임하던 첫 날, 학생들이 '워 아이 니(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환영했을 때 당황했다는 경험담이 나왔다. 중국에서 이 말은 연인들 사이에서나 쓰는 말이기 때문. 한국어를 가르치던 중 미국인 학생이 "피곤하다"며 가방을 싸서 나가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했을 때의 황당한 경험도 나왔다.

한 중국인 여학생은 한국인 종업원들이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네,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소개해서 폭소가 터졌다.

이 밖에 러시아와 몽골 학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걸 보고 놀랐다거나, 중동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의 '공유개념'이 부족해 개인의 일을 가져와 얘기하는 바람에 고민했다거나, 친해졌다고 생각한 서양의 룸메이트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남남처럼 선을 긋는 행동을 해 머쓱해졌다거나, 멕시코인들은 외국인에게 벽을 허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경험을 했다는 등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3월 현재 이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24명. 최초의 박사학위자는 2002년에 나왔는데 중국인이었다. 역시 중국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몽골이 2명,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인도·태국·터키가 각 1명이다. 몽골인 박사학위자 중 한 명이 2010년 8월 외국인 처음으로 한국외국어대의 학과장(몽골어과·2009년 개설)이 된 어트겅체첵 담딘슈렌 교수다.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재적 중인 외국인도 43명(재적 14명)이나 된다. 박사학위자는 대부분 모국으로 돌아가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석사 졸업생은 104명, 석사 과정 수료자 및 재적생은 60명(재적 25명)이다. 석사 졸업생 중 33명은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나머지 70여 명은 모국으로 돌아가 취업했다. 석사 학위만으로도 교수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서울대의 은사가 자국을 방문하면 마중을 나가는 제자가 많을 수밖에.

외국인 대학원생은 정원 외로 선발하는데 경쟁률은 보통 3대 1쯤 된다.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다.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처음으로 오는 국가의 학생을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능하면 많은 국가에 한국어를 전파하려는 뜻이다. 어렵게 입학한 만큼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매우 좋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다.

외국인 학생이 많아진 이유는 역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에도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과 이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한다. 서울대로 오는 학생은 모국에서 교수나 교사를 꿈꾸는 경우가 많고, 다른 대학은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는 분석이다.

휴식 시간에 두 학생을 따로 만나봤다. 러시아의 리타 씨(26)는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공했다. 고려대에서 어학연수를 한 뒤 지난해 8월 이 대학원에 들어왔다.

"왜 한국에 올 생각을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좀 낭만적이어서"라고 했다.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꼭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100% 진심은 아니란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러시아와 한국은 더욱 긴밀해질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될 때 러시아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판팅샨 씨(25)는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온 경우다. 한국에 조기유학을 왔다고나 할까.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이 대학원에 진학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교사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더 좋겠다고 했다. 그는 신방과를 졸업한 때문인지 한국의 언론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기사 스타일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외모는 한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아 국적을 밝히지 않으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듯 했다.

한국어 실력 말고 두 사람에게서 느낀 공통점은 젊음이 주는 힘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50대 후반인 내게 그 말은 '진짜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었어도 그걸 극복할 충분한 젊음이 있다'는 말로 들렸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충만했다. 그리고 한국과 맺은 인연을 어느 때인가는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한국어도 국제사회에서는 젊은 언어다. 그래서 이 학과의 대학원을 두드리는 외국인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라는 젊은 언어를 무기로, 세계 곳곳에서 젊은 도전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 도전이 성공해 한국어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기를 기원해 본다.

기자가 이번 취재가 즐거웠던 진짜 이유는 한국어로 취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동아일보 대학세상 www.daese.cc 심규선 대기자 ksshim@donga.com>

달라진 의대 면접시험

좋은 머리만큼 '따뜻한 심장'

'다면(多面) 인·적성 면접' 수능 만점자도 떨어져…핵심은 인성(人性)과 소통능력, 60분간 6개 면접실에서 교수 12명이 속사포 질문. 학생들 "답변 꾸미려 해도 본모습 드러나게 되더라" 캐나다·미국 등 이미 시행

지난 1월 서울 연건동 모교 의대 교육관의 2014학년 정시 모집 면접 현장. 복도 양측에 각 6개씩, 총 12개의 면접실 앞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수험생들이 한 명씩 문 앞에 섰다.

벨 소리가 울렸고, "지금부터 문에 붙어 있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으라"는 방송이 나왔다. 2분 뒤 다시 벨과 안내 방송이 나오자 수험생들은 문을 열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교수 면접관 2명이 앉아 있었는데 8분 동안 수험생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공세를 펼쳤다. 종료 벨 소리와 함께 수험생들은 한 칸씩 옆방으로 이동해 질문만 다를 뿐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됐다. 수험생들은 이런 식으로 60분간 6개의 면접실을 돌았다. 모든 과정은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듯 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었다.

모교 의대가 2012학년도부터 도입한 이 면접은 '다면(多面) 인·적성 면접(MMI·Multiple Mini Interview)'. 의사로서 기본 인성과 적성을 검증하는 면접법이다. 처음엔 의학전문대학원 수시에 적용했고 이후 2013학년도 의대 수시, 2014학년도 의대 정시로 확대했다.

이 면접은 올해 유독 큰 주목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이변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화제가 됐던 것은 수능 자연계 유일 만점자의 불합격이었다.

의대는 이번 정시에서 수능 100%로 입학정원(25명)의 2배를 선발한 뒤 학생부 10%·수능 60%·면접(MMI)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그런데 자연계 수능 만점자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종운 이투스 청솔 평가이사는 "1단계 통과자들은 모두 수능성적 최상위권으로 점수 차(8점)가 크지 않아 2단계 MMI 점수(30점)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수험생의 반발이 거셌던 점도 MMI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정시면접 후 대입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스 옵티무스'에는 "과연 이런 면접이 무슨 변별력이 있는지 의문" "이 면접이 의대 혹은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찰나의 면접으로 수능 만점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악당들이나 하는 짓"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서울대가 MMI를 고수한 까닭은 무엇일까.

강대희 의대 학장은 "의사가 전문적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로서의 인성이 올바른지도 중요하다"며 "MMI는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는 MMI 도입 취지에 대해 "의사소통 능력과 rapport(의사와 환자의 심리적 신뢰) 형성 능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고, 공부만 잘 하는 지원자는 걸러내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의대생을 뽑을 때 인성과 적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오랜 화두(話頭)다.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스는 몇 년 전 '의사 지망생을 위한 새로운 인성·사회성 테스트'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의대 중 MMI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실력 좋은 의사들이 환자·간호사 등과 소통이 안 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환자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현대 의술이 갈수록 팀플레이 위주로 전개돼 의사에게 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MMI는 지난 2001년 캐나다 맥마스터 의대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는 캐나다 대부분 의대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미국으로도 넘어가 뉴저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등의 주요 주립대 의대가 실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2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 · 한국일보 인용)

POSTEC 전 총장 백성기(공대 67) 박사

뉴욕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좋은 대학보다 적합한 대학 선택해야" 2세들 학업 스트레스 전공선택에 원인

지난 해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한인학생이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시험을 피하려 저질렀다는 이 학생의 말에 한인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기말고사를 망친 한인 대학생이 시카고 공항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가 이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미국내 한인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2세들을 미 주류사회 곳곳에 포진시키는 열매를 맺었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작용은 피하지 못했다.

백성기(공대 67) POSTEC(포항공대) 총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것에 주요 원인이 있다"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은 욕심을 버리고, 명예나 돈이 아닌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전공을 택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백성기 전 총장은 지난 5월 '올바른 교육'을 주제로 뉴욕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교육전문가가 바라보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재능이 있다. 재능을 잘 찾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세상에 기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교육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교육은 어떤가.

-교육의 첫 걸음은 사실상 K~12(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뤄진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흐름은 대학전공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낸다. 미국은 이런 교육 환경이 잘 마련돼 있다.

-그래도 모두가 성공을 열망하는 사회에서 재능만으로 전공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당장의 성공보다 나만의 끼와 능력을 찾아 개발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확신과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들이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다. 부모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은 참 힘들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것보단 적합한 전공을 찾아 갈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부모도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용기도 중요하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25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학부 졸업 학교가 아이비리그가 아닌 미 전역에 퍼져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좋은 대학보단 적합한 대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대학생활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많은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 잠재력을 찾아내고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라는 걸 깨닫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 역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돼 줘야 한다.

-부모가 돼 주라는 의미는.

-우리 정서상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만 부모가 되려고 한다. 성공뿐 아니라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부모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실패할 때마다 부모가 든든하게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과감한 선택을 하게 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가 버려진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라.

백성기 전 총장은…

1949년 수원에서 태어난 백성기 전 총장은 모교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코넬대를 거쳐 1986년 포스텍의 개교와 함께 이 대학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부총장,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을 거쳐 2007~2011년 5대 총장으로 재임했다. 그 뒤 포스텍이 수년간 세계 신흥명문대 1위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정부의 교육부 산하 한국 대학 구조개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진현(법대 76) 국제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

159개국중 130개국 압도적 지지.한국 3회 연속 재판관 진출

【뉴욕=뉴시스】=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기구 선거에서 잇단 낭보를 전하고 있다. 백진현(법대 76) 재판관이 지난 6월 11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됐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백진현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아시아 그룹 두자리 중 하나는 일본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ITLOS 현 소장이 재선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재판소 설립 이래 3회 연속(27년간)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지난 2009년 3월 고 박춘호 재판관의 후임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115개국 중 113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연소(당시 51세) 재판관에 선출된 백진현 재판관은 2023년까지 향후 9년간 재판관직에 재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날 김형식(70) 한반도 국제대학원 교수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CRPD)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재선된 바 있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3년마다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5명, 중남미와 서구가 각 4명, 동구에서 3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은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력은 물론, 유엔 해양법 협약 성안 과정 이래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주요 해양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진현 재판관은 "지난 5년간 재판관으로서 성실히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해양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해양에서 국제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보였다.

백 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경계 획정, 어업,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5년 임기의 사무처장은 벨기에(Mr. Philippe Gautier)가 맡았고 사무차장은 우리나라(김두영)가 맡고 있다.***

남가주 한인의사협회장 차민영(의대 76) 동문

환자와 의사 위한 획기사업 마련

"한인의사 만큼 환자에 헌신하는 의사 없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처 방안 강구

지난 1월 1일 1년 임기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차민영 내과 전문의는 부회장 4인과 차기회장 조지 인 가정주치의로 2014년도 KAMA 회장단을 구성했다.

차민영 회장은 "한인 이민사가 길어지면서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1세 회원들은 점점 은퇴하고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1.5세와 2세의 회원 가입이 많아지면서 의사협회는 한인 1세와 1.5세 혹은 2세가 격년으로 회장직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가입이 시행된 올해 의사협회를 맡아 여러 모로 일복이 터졌다. 오바마 플랜 시행에 대한 문의도 해결해줘야 하고 메디칼과 메디케어가입자들이 HMO로 바꾸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을 피하도록 환자를 위한 설명회 등 획기적으로 계획 중이다.

차 회장은 "3~4년 사이 급변한 의료 환경과 정책변화 속에서 환자중심 의료에 치중해야 하는 의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최근한인 의사들이 미국 의사들보다 처방전 남용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와 협회 차원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제기를 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녔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미국 의사와 한인 의사는 진료만을 놓고 볼 때 문화적 차이가 확연하다. 미국 의사에 비해 한인 의사의 진료 환자수가 1.5~2배 높으니 처방 횟수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그렇다고 한인타운 문화가 진료비를 높게 받는 것도 아니고 예약 없이 찾아오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다. 한인 의사들은 최소 주 5일 진료를 하고 토요진료를 하는 의사들도 많다. 그만큼 환자 중심 의료에 치중한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내과전문의는 82년 졸업과 함께 도미했다. USC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미국 내과 보드전문의를 획득했다. 30여년간 한인타운에서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3년 서울 메디칼 그룹을 설립, 현재 9천5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팍뷰 병원 구철회(의대 78) 전 원장

병원최초 한인의료원장 봉사활동

"헌신하는 한인 의사 이미지 심는데 공헌"

500여명의 전문 의료인과 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 병원인 '리버사이드 팍뷰 커뮤니티 병원' 최초로 한인 의료원장을 지낸 구철회 박사(의대 78, 소아과 전문의)는 이 지역 의료업계에 한인 의사들의 성실한 이미지를 심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의료진을 위한 병원 식당에 김치가 등장할 정도로 한인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50여명의 전문의들과 함께 '프라임 케어 메디칼 그룹'의 설립에 참여한 구 박사는 2006~2013년 8년간 이 그룹의 리버사이드 지역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재 2천여 명의 스페셜 의료진을 갖춘 메디컬 그룹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도 했다.

구 박사는 "이제 한인 2세 의료인들도 많이 늘어났다"며 "소수계 이민 민족으로 여러 타민족과 더불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런 한민족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984년 모교 의대 졸업 후 도미, 남가주 LA 카운티 병원에서 소아과 수련을 마치고 1990년 리버사이드로 이주한 구 박사는 팍뷰 커뮤니티 병원의 소아과 과장직을 역임하는 등 지난 24년 동안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구 박사는 로마린다 안식일교회(담임목사 오충환) 산하의 '다솜클리닉'이라는 봉사단체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클리닉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지역 주민과 홈리스를 위해 치아 건강 상담과 치과치료, X 레이 및 스케일링을 비롯 가정주치의 분야로 일반 건강, 예방 상담 및 식이요법 등 다양한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3

←원주 카리타스가 이사회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앞줄 가운데가 유홍열 회장.

유홍열(문리대 74) 회장의 원주 카리타스

16만4천여 달러 모아 불우아동 돕기

워싱턴 DC 지역에서 유홍열(문리대 74) 동문이 회장, 노상문(문리대 82) 동문이 회계를 맡아 봉사하고 있는 원주 카리타스(복지재단 이사장 정인준 신부)가 지난 해 총 16만 4천256달러의 후원금을 모아 한국과 네팔·필리핀·파푸아 뉴기니·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

카리타스는 지난 6월 10일 애난데일의 한식당 한강에서 연례 정기 이사회를 소집, 후원회원 확대와 기금 모금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사장인 정인준 신부(성 정바오로 한인성당 주임신부)는 "현재의 삶이 힘겹더라도 가장 낮고 소외된 계층인 고아와 과부 등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이 중요하다" 며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마더 데레사의 말을 기억하며 고국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워싱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복음정신이 실천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카리타스 유홍열 회장은 "지난해까지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올 들어 조금 나아져 후원금이 조금 늘었다" 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 하겠다" 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윤경자 이사가 서기에 선임돼 5명(정인준 이사장, 유홍열 회장, 노상문 회계, 유자경 홍보)으로 구성된 회장단에 합류했다. 또 김현숙씨가 새 운영이사에 선정됐다.

원주 카리타스는 지난 해 15만 4천729달러의 총 수입에 지출은 17만 3,263달러로 집계됐다.

지출 가운데 총 16만 4천256달러는 회원들에게서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으로 세계 여러 곳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됐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우편발송비, 전화, 사무용품 등) 9천7달러는 재정이사들이 낸 재정 후원비로 충당됐다.

카리타스 회원은 매달 12달러를 후원하는 정기회원, 특별후원, 매달 60달러씩 후원하는 고국 아동결연, 해외아동 복지급식지원(연 200달러) 회원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35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문의 (571)432-9868***

김광진(문리60)목사 40년만에 박사학위

휴학,은퇴 후 학업성취 꿈 이뤄
143년 역사 ABSW신학교서 '공동체의 갈등과 화해' 연구

김광진(문리대 60) 목사가 1974년 버클리의 연합신학대학원(GTU)에서 Ph.D 과정 중 휴학했다가 40년만인 2014년 5월 17일 143년 역사의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졸업식에서 목회학 박사학위(Doctor of Ministry)를 받았다.

김광진 목사는 "학업성취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이루게 된것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73년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그는 2007년 LA연합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마지막으로 34년 목회에서 은퇴 후 여행과 휴식등으로 보내다가 2012년부터 학업에 재도전, 3년간 노력 끝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논문 주제는 '갈등과 화해:재미한인공동체의 역동성' 으로 20세기 초 하와이와 LA를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교회의 갈등과 화해를 연구한 것이다. 갈등과 화해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 500여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통계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ABSW의 박상일 교수는 "연로하신 은퇴 목회자가 열정을 다한 노력으로 학위를 받아 자랑스럽다. 논문은 한인공동체의 갈등과 화해 사역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고 평했다.

김 목사는 모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달라스의 남감리교대학(SMU)에서 석사(M.Div)학위를 받았다. 버클리 연합신학원(GTU) 조직신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2년간 Course Work을 마치기도 했다.***

모교 행정대학원

DC 한국문화원과 국제 Symposium

'창조경제 시대의 예술정책'
6월 6~7일 전문가 10여명 참가

모교 행정대학원이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원장 최병구)과 공동으로 지난 6월 6~7일 이틀 동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예술정책과 창의적인 Smart Governance' 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문화•예술 정책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21세기 창조 경제와 문화융성을 연계시키기 위한 예술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술과 공공정책 ▶글로벌 관점에서 본 예술과 거버넌스 ▶사회에 대한 예술의 충격 ▶글로벌 세계에서 예술과 창의적인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예술과 공공서비스 동기 유발' 은 모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가 강연했고 그 밖의 주제별 발표자는 '문화 전쟁 후 미국에서의 예술 지원과 거버넌스' (히메나 발레라 아메리칸대 교수), '예술에서의 보완성' (윌프리드 엑스타인 괴테연구소장),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무한한 기회:매뉴팩처에서 마인드팩처로(펠리프 뷰트라고 미주개발은행 문화센터 관리), '격동의 시대에 문화 거버넌스: 뉴욕의 사례' (노철영 레먼 칼리지 교수), '터치가 한국인들의 온라인 샤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승희 제인 워크먼 남일리노이대 교수) 등이다.

한국문화원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의 연구 및 발표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요구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문화예술 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고 밝혔다.***

서병선(음대 65)동문뉴저지 가곡교실

"가곡으로 보다 풍요로운 이민 생활 하세요!"

서병선(음대 65 **사진 오른쪽**)동문이 지도하고 있는 뉴저지 가곡교실이 지역 한인사회에 큰 인기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뉴저지 릿지필드 소재 시온 제일장로교회(1040 Edgewater Avenue, Ridgefield, NJ 07657)에서 열리는 뉴저지 가곡교실은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며 그동안 수강 인원만 200명이 넘었다.

잘 알려진 한국 가곡과 외국 가곡을 성악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매 시간 평균 10여 명의 한인들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30년 넘게 가곡 보급에 앞장서 온 뉴욕 예술가곡연구회의 서병선 회장이 이은숙씨의 반주로 직접 지도하며 가곡 부르기에 적합한 이태리 전통 벨칸토 창법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교 음대 성악과와 줄리어드음대 성악과에서 성악을 공부한 테너 서 회장은 가곡 애찬론자다.

서 회장은 "가곡은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선율이 빚어내는 최고의 예술작품" 이라며 "사랑과 진실, 자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곡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면 이민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저지가곡교실 수강생 가운데는 가곡 덕분에 오랜 우울증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겨낸 한인들이 많다" 며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가곡의 치유력을 체험하는 한인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뉴저지 가곡교실 수강생들의 애창 가곡은 '동무생각' , '그리움' , '언덕에서' , '이별의 노래' 등 주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와 두고 온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대부분이라고. 고등학생부터 75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는 뉴저지 가곡교실의 월 수강료는 50달러. 문의 347-324-7802 ***

이방은(음대 63)동문 폴 핏맨 박사와 협연

첼로와 피아노 '이중주' LA 엔시노 제일장로 교회서

첼리스트 이방은(음대 63) 동문이 피아니스트 폴 핏맨 박사(Dr.Paul Pitman)와 지난 6월 29일 LA의 엔시노 제일 장로교회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콘서트에서 이들은 '베토벤의 7 변주곡', '브람스 소나타 제1번 e단조', ' 슈만의 판타지 피시스', '브람스 소나타 제2번 F 장조' 를 연주했다.

첼리스트 이방은 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주최 음악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타이완 국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중국 문화대학 교수로도 활동했다. 이후 뉴욕 메네스 음대를 졸업하고 호놀룰루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솔레네 앙상블' 이라는 단체의 멤버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왔다.

피아니스트 폴 핏맨 박사는 UCLA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이방은 동문은 그동안의 실황

연주를 선별해 CD를 제작 중이며 그 중에는 북한의 동생 피아니스트 리민섭과 함께 연주한 '노을 비낀 바닷가' 도 포함돼 있다.***

유안진 교수 여름문학캠프 강연

모교 유안진(사대 61) 명예교수가 미주 한국문인협회, 미주 한국소설가협회, 재미 수필문학가협회, 재미 시인협회 등 4개 단체가 9월 19~20일 LA 한인타운의 로텍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미주연합 문학캠프에 초빙돼 강연한다.

시인이기도 한 유안진 명예교수 외에도 저명한 수필가와 소설가 등이 초청돼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문학행사로 꾸며질 계획이다.

문학단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각 단체마다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일정의 중복과 참가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행사에 참석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1년에 한 번 미 전역에 있는 장르별 문인들과 '함께 한 자리' 에서 만나는 '문학축제' 가 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최성호(문리대 58·Houston TX) 동문 모친상 = 지난 7월 3일 Houston Texas에서.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4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14명의 동문, 5개 지역 동창회 시상

제12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2013~2014년도 미주 동창회와 지역 사회에 크게 봉사한 동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에서 11명의 동문들에게 개인 공로 표창을 했다. 또한 지난 해 모교 경영대 재학생들의 현지 연구차 미국을 방문한 재학생들에게 해당 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등 크게 봉사하고 지원해준 뉴욕 동창회, 샌프란시스코 동창회, 남가주 동창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주 동창회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모범사례에 대해, 김창원(화공 49) 동문을 비롯한 김범석(의대 53) 동문과 박종수(수의대 58) 동문에 대해서 각각 학술 봉사와 참여 표창패를 증정했다. 다만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을 대신해서 해당 지역 동문들이 대리 수상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부문별로 각각 개인 공로상과 표창이 주어진 동문들은 15면에서 보는 바와 같다.

<15면에 계속>

↓아랫 사진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김은종(상대 59) 미주 동창회 11대 회장, 미주 동창회 윤경의(공대 57) 편집위원, 곽승용(의대 71졸 뉴욕 동창회장, 박상원(음대 69) 전 동창회장 대리수상), 워싱턴 DC 동창회 함은선(음대 77) 전 회장.

참가 지역 동창회와 동문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오연천 총장과 성낙인 총장의 이취임 일정에 따른 업무로 서정화 총동창회장이 참석치 못하고 모교 남익현 기획처장과 미주 지역에서는 총 8개 지역 동창회가 참가했다(왼쪽 사진은 참가지역 동창회, 아래는 사진 순서별 이름).

워싱턴 DC 동창회

▶정평회(공대 71)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 강연식(사대 68) 동문 ▶한정민(농대 87)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권기현(사대 53) 워싱턴 DC동창회 전 회장 ▶오인환(문리 63) 미주 동창회장 ▶ 하용출(문리 67)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이영묵(공대 59) 미주 동창회 8대 회장 ▶박영삼(공대 99) 동문.

필라델피아 동창회

▶박형준(공대 87) 동문 ▶고병은(문리대 55) 명예교수 ▶손재옥(가정대 77)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 ▶이만택(의대 54) 서울대 미주재단 및 발전기금 이사장 ▶ 조화연(음대 64) 필라델피아 동창회 전 회장 ▶주기목(수의대 68) 미주 동창회 감사.

뉴 잉글랜드 동창회

▶고일석(보건대학원 69) 동문 ▶정정욱(의대 60) 뉴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장수인(음대 76) 뉴 잉글랜드 동창회장 ▶윤상래(수의대 62) 뉴 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중부 텍사스 동창회

혼자 참가한 ▶이주희(음대 89) 동창회 부회장(가운데)을 위해 필라델피아 동창회 박형준 동문(왼쪽)과 뉴욕의 이전구(농대 60) 미주 동창회 9대 회장이 찬조출연(?) 해주었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5

개인 공로패

▶김은종(상대 59 미주동창회 제11대 회장 ▶김경덕(공대 75 테네시 동창회 초대회장 ▶김무웅(음대 64 워싱턴주 동창회 전회장 ▶심상철(공대 81 샌디아고동창회 전 회장 ▶전은옥(간호 75 미네소타 동창회 전 회장 ▶이석진(공대 89 오레곤 동창회 전 회장 ▶정선주(간호 68 뉴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민흥식(수의대 60 필라델피아 동창회 전 회장 ▶김용수(수의대 75 하와이 동창회 전 회장 ▶표한승 (치대 58 록키마운틴 동창회 전회장 ▶서윤석(의대 62 동창회보 편집위원 ▶윤경의(공대 57 동창회보 편집위원.

단체 감사패

서울대 경영대 재학생 연구차 방문단 지원 ▶NY 동창회 ▶New England 동창회 ▶San Francisco 동창회 ▶남가주 동창회

모범사례 표창

▶워싱턴 주 동창회 (사회 봉사 모범사례)

학술표창

▶김병석(의대 53)

봉사 표창

▶김창원(공대 49)

참여 표창

▶박종수(수의대 58)

↓아랫 사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윤상래(수의대 62) 뉴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동창회장, 한중희(공대 80)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장수인(음대 76)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참가 지역 동창회와 동문들

시카고 동창회

▶한재은(의대 59)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장 ▶이용락(공대 48) 미주 동창회 제6대 회장 ▶오(조)봉완(법대 53) 명예교수 ▶이승자(사대 60) 시카고 동창회 전 회장 ▶송순영(문리대 52)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이영우(문리대 66) 시카고 동창회 전 회장 ▶전현일(농대 62) 시카고 동창회 전 회장 ▶김호범(상대 69) 시카고 동창회장

남가주 동창회

▶김창신(사회과학대 75) 남가주 동창회 총무국장 ▶박혜옥(간호대 69) 남가주 동창회 차기 회장 ▶김은종(상대 59)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동창회장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차기민(공대 85) 남가주 동창회 골프위원장

하틀랜드 동창회

▶이상강(의대 70) 하틀랜드 동창회장 ▶김호원(치대 52) 하틀랜드 동창회 전 회장 ▶김명자(문리대 62) ▶김경숙(가정대 70 이상강 회장 부인) 동문

오하이오 동창회

▶방경숙(음대 66) ▶김용헌(경영대 59) 동문 부부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6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27일 장기자랑>

반짝 gag에 멋진 화음·율동·연주

"요즘 우리 고국에서 한 젊은이가 좀처럼 직업을 못 구해 애를 태우다가 다행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동사무소에 발령받았습니다. 어느 날 모두 점심식사를 나가 혼자 남았는데 주민이 와서 '사망신고하려 왔는데요' 해서 이 친구 왈, '본인인가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민이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하길래 이 친구 '본인이 오는게 더 확실하구요' 하더랍니다."

" '소취하당취평(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 같이 취해봅시다."

이상은 장기자랑에 출연한 남가주 동창회 박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의 반짝이는 gag다.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이 끝난 27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전야제의 환영 만찬 이후 각 지역 동창회별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평의원 회의 전야제에서 마련한 지역 동창회 장기자랑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앞으로 참가지역 동창회가 늘어날수록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시간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회를 맡은 워싱턴 DC동창회의 함은선(음대 77) 전 회장은 "타 대학 동창회에 초대받아 갔었는데 80이 넘은 분들이 새파란 젊은이들과 같이 세대를 초월해 덩실덩실 뛰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다. 그 자리에서 동창회를 위해 2만 달러가 걷히는 모습에 정말 부러웠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함은선 전 회장은 "총 7개 동창회에서 출연을 신청했다" 고 밝히고 "공정성을 위해 심사는 출연하지 않는 동창회에서 맡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하틀랜드 = 첫번째 출연은 하틀랜드 동창회 김호원(치대 53) 박사가 대표 선수(?)로 나섰다.

김 박사는 "동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 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김 박사는 세대를 초월해 나훈아의 '고향역' 을 멋들어지게 불러 재차 갈채를 받았다.

▶뉴잉글랜드 = 두번째는 뉴 잉글랜드 동창회로 이날 참가자 모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 의 곡을 멋진 화음으로 들려주었다. 이들은 아름다운 율동을 곁들이며 동문 모두 사랑으로 가득찬 동창회임을 새삼 강조했다.

▶시카고 = 시카고 동창회로 이용락(공대 48) 미주 동창회 전 회장(제6대)이 대표로 출연했다.

사회자 함은선 전 회장은 "이 전 회장님은 오늘 이 자리의 최고 원로지만 내일이면 바뀝니다" 고 소개해 주변의 폭소를 자아냈다(최고 원로는 43년 약대 입학의 방은호 동문으로 이날 불참했기 때문). 이 전 회장은 '눈물젖은 두만강' 을 구성지게 불러주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만주 피난 시절을 경험한 터라 이 노래가 주는 의미를 더했다.

▶남가주 = 박창신 총무국장의 반짝이는 gag로 주변을 부드럽게 만든 후 참가자 모두가 무대에 올라 멋진 율동과 함께 신나게 '남행열차' 를 불러제꼈다.

▶워싱턴 DC = 이 날의 highlight에 다름없을 무대를 연출했다. 최고 원로 권기현(사대 53) 전 회장을 비롯, 한정민(농대 87) 총무국장까지 한 데 어울려 색색의 양산까지 동원한 '막춤' 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정평희(공대 71) 사무총장은 hippie성 가발에 짙은 모자와 sunglass로 분장, 전직(前職)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필라델피아 =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한중희(공대 80) 회장이 대표선수로 등장했다. 한 회장은 지금까지 광란(?)의 무대와는 달리 조용히 피아노로 걸어가더니 눈부신 솜씨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곡명은 'Secret Garden' 과 'Ballade Pour Adeline' 의 두 곡으로 피아노 전공 전문 연주자 수준의 깜짝 실력을 발휘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뉴욕 = 마지막으로 뉴욕 동창회 이전구(농대 60) 미주 동창회 전 회장(제9대)이 하모니카 6개를 준비해 클래식과 가곡, 그리고 뽕짝을 넘나드는 연주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 전 회장의 하모니카 실력은 미주 동창회 뿐 아니라 미 주류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바로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도 협연을 했을 정도다. 이날 처음 관람한 동문들로부터는 탄성이 절로 솟아나왔다.

<심사결과>

장기 자랑의 무대가 끝나고 최종 심사 발표 시간에 함은선 전 회장은 "순수 아마튜어를 위해 전문가 수준의 동문은 일단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날의 우승은 하틀랜드의 김호원 박사가 차지했다. 김 박사에게는 거대한(?) wine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

↑"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워싱턴 DC동창회 팀이 색색의 양산까지 동원해 신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남가주 동창회 팀이 박창신 동문의 단독 gag 뒤 무대로 나와서 열창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하나 있지. 바람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 외롭지 않아~. 유잉글랜드 동창회 팀은 '사랑으로' 의 멋진 화음을 들려주었다.(사진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시카고 이용락 전 회장(오른쪽)의 가창에 함은선 전 회장과 중부텍사스 이주희 부회장이 파안대소하고 있다.하틀랜드 김호원 박사. 필라델피아 한중희 회장, 뉴욕의 이전구 전 회장.(위에서 시계방향)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7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27일 B.N.Symposium>

"뜻깊은 행사 계속 지속돼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 참석을 위해 동문들은 하루 전인 26일부터 hotel에 들어 왔다.

오인환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서울대 동창회가 나라를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는 기구가 없는 이 시대에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아주 접합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행사를 위해 28명의 동문들이 donation을 해주어 책자를 미리 반드는 등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이런 뜻깊은 행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식 교수 사회로 하용출 교수가 오전 session에 강연해줄 학자들을 차례 차례로 소개하면서 분야별 학자들의 강연이 시작됐다.

▶문유미 교수 = '일본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 : 북미에서의 연구 동향' 이라는 제목을 통해 미주 지역 주류사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강연해나갔다.

문 교수는 "한국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지 북미 학자들이 거의 일본의 시각에 의해서 연구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조)봉완 교수 = '미 군정 ; 설립 특성과 한국에의 공헌' 을 통해 1945년

해방과 함께 찾아온 우리 고국의 정치사회 환경에 대해 강연했다.

조 교수는 "1945년 8월 15일 당시 11세였는데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 라는 함성이 울려퍼지며 일장기가 내려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곧바로 한반도가 38도선으로 갈라지는 민족의 비극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시 미군정에 의한 신탁통치안의 재평가에 대해서도 함께 부연설명을 했다.

▶유영미 교수 = '대중문화와 한국어의 변화' 를 통해 우리 고국의 언어문화의 변화를 시대별로 설명해나갔다.

유 교수는 "우리 고국의 언어 변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고국에 나가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의 변화는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에 참석해 강연해준 동문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왼쪽부터 유영미 교수, 유영미 교수, 하용출 교수, 김병동 교수, 임종식 박사, 오인환 회장, 김광식 교수, 송병준 박사. 윗 사진은 김영진 교수의 강연 장면, 왼쪽 사진은 오(조)봉완 교수.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화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심지어 세종대왕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김영진 교수 = '국제정치 사이의 남북관계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에서 지난 "1973년부터 북한을 방문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부터 핵실험을 해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과 김정일-김정은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설, 선군정치를 위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유력설은 정치적 계승과 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그들의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벼랑끝 전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동 교수 =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신농업 기술' 에서 세계의 경작농지 축소와 다수확, 신품종 개발을 위해 형질전환 식물과 식물공장의 예를 들어 강연했다. "특히 신품종 개발은 과거 8~9년 걸리던 것이 3~4년으로 단축됐다는 것. DNA교환에 의한 신품종은 아직 식용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미래 식량 증산을 d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니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박사 = '전립선 암의 오늘 : 발전과 도전' 으로 특히 미국 남성 암 사망률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 건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임 박사는 전립선 암의 치료를 위해 NIH에서 연구하고 있는 In Vitro모델과 이에 따른 항암제를 실험하기 위한 가능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송병준 교수 = '장수를 위해 실험동물 및 인체조직에서 얻는 교훈' 을 통해 건강문제를 다뤘다. 송 교수는 "인간의 건강은 90~95%가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청량음료, 알코올, 지방, 콜레스테롤은 장수 건강에 직결돼 있어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은 40~50대 사망률이 높은 것도 이같은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교수 = '뇌감염 연구의 현주소' 를 제목으로 일반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뇌의 감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보통의 병원균은 혈관-뇌-차단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나 이를 뚫고 들어가는 병원균이 있어 극히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사례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번 symposium에서 크게 기여해준 동문 학자들. 왼쪽부터 임종식 박사, 하용출 교수, 김정식 교수. 임 박사는 오후 session생명과학 분과의 moderator로 진행을 맡아주었고 하 교수는 오전 session 한국의 역사와 전통 분과 moderator로 진행을 맡아주었다. 또한 김 박사는 하 교수와 함께 이번 행사를 총괄 진행했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8

제23차 미주 평의원회의<28일 환송만찬>

Victor Cha's Keynote Speech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본회의가 끝난 6월 28일(토) 오후 6시부터는 만찬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동창회보에서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Victor Cha 교수가 Keynote Speaker로서 '한반도와 북한과 통일'을 주요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차 교수는 2세대 한국계 미국인으로 그의 부친이 서울대 동문이다.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차 교수는 제2 Bush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 6자 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CSIS(국제전략문제 연구소) Senior Advisor 겸 한국학 Chair를 맡고 있으며 Georgetown대학에서 아시아학 Program 의 director로 일하고 있다.

차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오늘 날 당사국인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차 교수의 강연은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이었다.

"과거 한반도의 통일은 거의 요원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질서로 보아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 이에 대해 정신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차 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한반도의 통일이 당장 내년이 될지 또는 앞으로 10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데 지금의 체제로서는 결국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 교수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동구 공산권의 몰락 등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만찬장에서의 Victor Cha 교수

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 통일 등 분단국의 통일 모델에 대해 예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무력으로 한 쪽의 일방적 승리로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통일이 가장 좋은 통일의 방법일 것" 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드레스덴 공대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통일이 되면 한국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지금보다 한 층 더 성장할 것이며 갑작스런 통일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정신적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중국의 친한 정책을 활용한 한중 협상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연설이 끝나고 열띤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관심있는 동문 7~8명으로부터 예민하고 숙고해야 할 질문이 있었다.

차 교수는 침착하고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주어 열열한 박수를 받았다.

오랫만에 top class 연사와 서울대 동문들의 지성이 번득였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Victor Cha 교수(오른쪽에서 4번째)가 keynote speaker로 초청 강연 뒤 동문들과 기념촬영했다.

↑홍지나 동문과 Amy Oh가 동문들을 위해 협연하고 있다.

작은 음악회도 곁들여 커다란 호응

이날 워싱턴 DC동창회 함은선 전 회장이 이끄는 작은 음악회도 곁들여 큰 호응을 받았다.

먼저 홍지나(음대 92) 동문의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다.

홍지나 동문은 모교 음대 및 대학원에서 기악(피아노)과를 졸업한 뒤 Peabody Institute에서 연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Peabody Institute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Juilliard School, Curtis Institute of Music과 함께 3대 음악 대학이다. 홍지나 동문은 현재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반주를 맡아 우리 동포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두번째는 Amy Oh의 violin 연주가 있었다. 올해 13세의 Amy Oh는 전백향(음대 75) 동문의 딸로 어려서부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정평이 있다. 5세 때 바이올린에 입문, 2011년 juilliard 예비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12세 미만의 리사이틀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1년 오스트리아 잘츠브르그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서머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바 있다.

지난 해 워싱턴 동창회가 마련한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하모니 'Juilliard with Pride' 에도 출연해 한인 동포들에게도 낯이 익은 바이올리니스트다. 이 concert는 장애우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juilliard 출신 연주가들로 구성한 concert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19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29일 골프대회>

P.B. Dye G.C.에서 Shot 대결

골프대회가 치러진 29일 12시경 기온은 화씨 85도 정도에 아주 화창하고 바람이 약간 불었다.

지난 해 이 대회에 참가했던 모 동문은 "당시 체감온도 100도에 이른 폭염과 높은 습도에 아주 질렸는데 그에 비하면 올해는 시원할 정도(?)"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시간이 경과함에 점차 심해지는 무더위는 위력을 더해갔다.

올해 참가자가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은 이 지역이 원채 높은 기온과 습도로 악명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또 하나 이곳의 putting green은 유리판처럼 빠른 데다가 굴곡이 너울파도처럼 제멋대로(?)인 것이 마치 PGA 경기에서의 green을 보는 것 같았다.

필자(편집주간)는 이날 Medalist, 2nd, 아차상 등을 받은, 한마디로 챔피언조에 속하는 분들과 라운딩을 함께 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런데 이같은 green 때문에 par 3홀에서 첫 shot을 green에 올리고도 double bogie를 범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경우는 필자의 지금까지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P.B.Dye가 아니라 'P.B. Die' 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DC.동창회 정세근 전 총무는 driver 270~280 야드에 iron shot과 putting역시 정교하기 그지없어 medalist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이날 Nearest상을 받은 미주 동창회 백옥자(음대 71 CA) 조직국장은 "골프대회 참가 이래 이곳에서 처음 상을 받아 앞으로도 평의원 회의 골프대회 마다 반드시 참가하겠다" 고 말해 주위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오인환 회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적극 참가해주어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 고 치하했다.

손재옥(가정대 77) 차기회장은 내년 필라델피아에서도 좋은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상식후 골프장 내에서 뷔페 저녁 식사를 마친 참가 동문들은 오후 8시가 넘도록 일어설 줄을 모르며 아쉬워 했다. ***

↑이날 서정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스폰서를 해주어 대회를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골프대회 수상자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Medalist 정세근(자연대 DC), 1st. 김창신(사회과학대 75 CA), 2nd. 이우진(농대 DC), 3rd. 이수자(공대 62 OH), Longest 최동호(문리 68 DC), Nearest 백옥자(음대 71 CA), Booby Trap 이주희(음대 89 TX), 아차상 손재옥(가정대 77 PA)차기 미주 동창회장, 노상문(사학 82 DC) 동문, 이재훈(미주 동창회 한정민 총무국장 부군 DC).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0

생활 수필

"나이를 먹어가는 것…"

박평일(농대 69) VA
미주 동창회 감사

여든이 넘은 일본 시인 사카무라 신민이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늙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 몰랐다. 늙는다는 것은 수양버들처럼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이다. 숲 속에 살다 보면 사업 약속을 제외하고는 달력이나 시계를 챙길 일들이 별로 없다.

몇 해 전부터 인생을 '처음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처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계절의 첫날은 못 챙겨도 마지막 날 만큼은 가급적 챙기려고 노력한다.

이 코끝시린 짙은 프르름, 벌써 봄이 한참을 지나가고 여름이 한창이다.

지난 달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 고개는 얼마나 숙여졌을까 하며 벽에 걸린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본다.

예전 모습 그대로다. 학처럼 목이 좀 길었으면 좋으련만, 본시 짧고 두루뭉실한 자라목으로 태어났으니 티가 나질 않는다.

젊은이들이 수양버들처럼 고개가 축 늘어져 있으면 측은하고 추해 보인다. 빳빳하게 선 젊은 고개가 아름답다.

반면 늙은이들의 뻣뻣하게 선 고개는 노추(老醜)로 보인다. 오히려 수양버들처럼 축 늘어진 고개가 후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귀거래사(歸去來辭), 나이가 먹어갈 수록 머리를 숙이며 고향인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일까.

인간은 눈이 감긴 채로 어머니 뱃 속에서 태어난다. 눈을 뜨면 몇 달 동안 하늘을 쳐다 보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내려다 보며 기어가는 연습을 시작한다.

혼자서 걷기 위한 본능적 욕구에서 나온 준비과정이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거의 평생 동안을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가끔,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 보고 희망에 부풀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기도 한다.

그것들은 잠시 스쳐가는 변덕일 뿐, 고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고개의 모습은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고개가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성공이 그 사람 삶의 아름다움과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고개를 세운 모습이 숙인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 뿐만이 아니다. 열매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식물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다. 아름다운 생명은 죽음의 겸손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영어 humble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humu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human, humanity와 동일한 어원이다.

humus, 그 어원의 본래 의미는 '흙냄새가 나다' 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흙처럼 겸손해질 때 비로소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겸손한 삶이란 결국 흙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공자는 나이 육십을 귀로 들어오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순(耳順) 나이라고 했고, 나이 칠십을 마음가는 데로 사는 종심(從心)의 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늙어 간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며 인간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과정이다. 인간은 겸손할수록 아름다워 보인다.

나는 한국 시인들 중에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을 유독 좋아한다. 같은 청록파 시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 세 분들의 시 세계는 걷는 모습 만큼이나 각기 다르다.

세 시인들의 시와 고개에 얽힌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 온다.

박두진 시인은 평소에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걷고, 박목월 시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 보며 걸으며, 조지훈 시인은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걷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까. 박두진 시인의 대표적인 시 '해' 나 '꽃' 은 지적이고 분석적으로 느껴지고,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달' 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느껴지며, 조지훈 시인의 '완화삼' , '승무' 는 고매하고 도도하게 나에게 다가 오는 것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을까. 거울 앞에 다가가 나를 다시 바라본다. 고개가 아직 너무 뻣뻣이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진다.***

동해병기, 그 성공과 반성

이내원(사대 58) VA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전국 이사장 역임

버지니아 주 동해병기법이 최근 발효되었다.

뉴욕 주에서는 동해 병기안이 지난 6월 19일 주 하원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지 않아 아깝게 무산됐다. 주 상원에서는 59대 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 있어 아쉬움이 더 크다. 이로써 미주 동해병기 운동은 버지니아주의 성공과 함께 1승 1패의 실적을 남겼다.

버지니아 주 상·하원 결의 촉구 운동에 참여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 성공의 바탕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강점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버지니아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정구역인 페어팩스 카운티가 한인 최대 밀집지역이 되어 아시안 그룹 중 일본·중국·베트남계를 훌쩍 넘어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한인정치 1번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미 2007년 순수 한인 주 하원의원 마크 김을 진출시켰고 주류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의 러브콜을 받는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 병기의 당위성을 교육적 필요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논리로 강조한 점, 많은 단체 가운데서도 잘 조직된 노인회가 있어 선거 및 의회 결의 촉구에 신속 동원이 가능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1차 운동의 실패에서 중요한 경험적 교훈을 얻었고, 전 시간을 투입하는 열성과 적극성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 리더가 있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버지니아의 경우 일단 성공은 하였지만 처음 하는 정치 운동이다 보니 다시는 되풀이 하면 안 될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로비 운동이란 기밀주의가 기본인데 엄연한 반대 의견과 일본이라는 반대 세력이 엄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고비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공표함으로써 반대세력의 결집과 준비기간을 허용해준 점이다.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유관단체들이 일사불란한 결속에 이르지 못한 점, 반대편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로비인데 백악관 관련 설, 주지사 협박성 발언 등 민감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책임하게 언론에 노출하고 언론은 여과 없이 보도하여 반한 정서를 촉발한 점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주지사 최종 서명 후 '동해 탈환' 이라는 도발적 광고 용어를 채택하여 동해 병기의 교육 논리를 스스로 영토분쟁의 전쟁 모드로 바꾸며 지지해준 의원들의 참 뜻을 배신하고 일본의 반격 빌미를 제공하는 원칙 없는 무모함도 범했다.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로비 단체가 없는 동포 사회에서 이번 버지니아 동해병기 운동 주체는 성공하는 로비 역량을 축적하였다.

동해 병기 성공은 큰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와 동해 병기에서 연패를 당한 일본이 로비 외교의 한계를 절감하고 어떠한 대응 카드를 빼어들 지 예측이 쉽지 않다.

미국의 뒤에 숨어 한국 통일을 방해 하려는 일본의 대미외교와 조국을 대신해 이를 반드시 차단시켜야 하는 재미 한인 정치력의 대회전은 숙명일 듯 하다. 통일 여건조성에 재를 뿌리는 일본의 대북 화해 제스처가 그 징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정치력 신장은 절실하다. 한인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 배가운동과 e메일 로비 청원단 양성이 우리의 갈 길일 것이다.***

불신을 가르치는 사회

윤광현(공대 78) MA

어른들을 잘 따른, 규칙을 잘 따른 이의 잘못인가. 업무에 태만하고 판단력, 책임감없이 저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선장과 선원만 탓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 선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선장이 타고난 악마가 아닐진데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규칙이나 법으로는 아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것을 들었다. 규칙이나 법이 없어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회로 또 여러 규칙을 만들면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살판나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법망을 어떻게든 요령있게 편법으로 잘 피해나가는 것이 세상사는 지혜이며 순진하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사회가 되었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질서 및 법을 잘 지키고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미국인이 도덕심이 높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심과 남을 위하는 마음은 한국인이 훨씬 높으면 높았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은 법을 어기면 거의 예외없이 가혹한 제재가 따른다. 혹시나 편법으로 넘어가려 하면 더 큰 제재가 기다리기 때문에 법을 안지키면 개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이 가는 사회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법을 안지키면 손해를 본다. 불법으로 개축하고, 초과 적재하고, 안전규정 안지키고, 자격없는 선원으로 운행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도록 주무관청은 묵인하고 조장한다.

아마 선장과 회사는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억울해 할 것이다. 재수에 옴붙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럴때마다 사람들은 남탓을 한다. 지도자를 탓하고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북한소행, 전라도 소행이라 한다. 또는 '너나 잘해' '총체적 난국' 이라 하며 얼버무리고 만다.

미래세대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법을 지켜야 되고 위반시 가혹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지도자가 잘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system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도자가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법을 안지키는 지도자, 안지켜 이익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지도자를 뽑고 감시하지 않은 국민들 책임이다. 남탓으로 돌릴수 없다. 왜 그런 지도자를 뽑았는지 왜 감시하지 못했는지. 왜 법을 안지키면 이익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국민이 '내탓이요' 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관심을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및 각종 선거에 국민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고 투표율도 저조하다.

왜 그럴까. 누가 되든 잘 할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잘못했을 때 가혹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한다.

한국도 누가 되더라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과 부는 자기 혼자만 잘 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니다. 남의 도움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저 잘 낫다고 으스대기보다 더불어 사는 Noblise Oblige를 실천해야 한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1

관악세대/Acro광장

Providence에 담긴 뜻은?

민경훈(법대 78)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조지 워싱턴이 처음 전투를 경험한 것은 23살 때다. 1755년 7월 영국의 에드워드 브래덕 장군이 이끄는 1천 300여 군사의 일원으로 오하이오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 군을 공격하러 갔다가 지금의 피츠버그 인근에서 프랑스 군과 인디언의 기습을 받아 참패했다.

이 전투에서 브래덕 포함 450여 명이 사망하고 420여 명이 부상당했다. 워싱턴은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 와중에도 분전하다 타고 있던 말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외투에도 구멍이 송송 났으나 기적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총알이 몇 인치만 위로 날았으면 말 대신 워싱턴이 죽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미국의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워싱턴의 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776년 8월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과 영국군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한 판 크게 붙었다. 여기서 참패한 독립군은 글자 그대로 섬의 한 코너에 몰렸고 거기서 밤을 맞았다. 날이 새면 영국군의 전면 공격이 시작될 것이었고 미국 독립 전쟁은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끝날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가 섬을 뒤덮은 것이었다. 워싱턴은 어둠과 안개를 이용해 배를 타고 남은 군대를 무사히 빼돌릴 수 있었고 그 해 12월 25일 얼음이 떠다니는 델라웨어 강을 몰래 건너 뉴저지 트렌튼의 영국군을 기습 공격,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미 독립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1781년 요크타운 전투 때도 운명의 여신은 워싱턴 편을 들어줬다. 5년이 넘게 계속돼 온 미 독립 전쟁 중 그 때까지 영국은 한 번도 제해권을 상실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크타운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 프랑스 해군은 기적적으로 체사피크 만에서 영국 해군을 물리치고 잠시 제해권을 장악했다. 바로 이 때 워싱턴은 요크타운 반도에 발이 묶인 영국군을 맹공했고 배가 없어 도망갈 길이 막힌 영국군은 워싱턴의 포격에 견디지 못하고 '뒤집힌 세상(World Upside Down)' 을 연주하며 항복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나는 유능한 장군보다 운 좋은 장군을 원한다" 고 말했다는데 워싱턴이 바로 그가 원했던 장군이었던 셈이다. 훗날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오합지졸이던 식민지 민병대가 당시 세계 최강이던 영국을 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 하며 이를 '신의 뜻(Providence)' 으로 돌렸다. 미국 지명에 'Providence'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워싱턴이 가만히 있었는데 운이 따라준 것은 아니다. 첫 인디언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그는 끊임없이 인디언과 영군군의 장단점을 연구했고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는 정규전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게릴라전과 기습전으로 작전을 바꿨다. 많은 사가들은 워싱턴이 없었더라면 독립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여기서 졌더라면 오늘의 미국도 없었으리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워싱턴을 다른 건국의 아버지와 확연히 구분짓는 것은 노예에 관한 그의 태도다. 대농장주였던 그는 많은 흑인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다른 농장주들처럼 이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그러나 독립전쟁을 치르며 흑인 병사들의 용맹함과 능력을 직접 목격한 그는 점차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는 죽기 직전 유언장을 고쳐 자신의 사후 모든 자신 소유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이들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돈까지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는 여기에 어떤 예외도 둘 수 없도록 엄명했다.

건국의 아버지 중 흑인 노예를 자발적으로 해방시킨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던 패트릭 헨리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던 토머스 제퍼슨도 하지 못했다.

'미국의 아버지' 로 불릴만 하다. 올해 그의 탄생 232주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미국 독립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윗 그림은 프렌치 앤 인디언 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조지 워싱턴. (by 주니어스 브루터스 스턴스, 유화, VA 미술관 소장)***

건강의학 칼럼

가장 경제적인 종합검진은?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종합검진의 항목이 각종 피검사(그 수가 수십가지에서 수백가지에 이름), 소변검사, 일반 심전도, 운동부하 심전도, 각종 초음파, 위 내시경, 직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머리부터 가슴, 복부에 이르는 각 부위의 CT(컴퓨터 단층촬영)와 MRI등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검사들을 전부 다 할 수도 없으며 또 다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증세와 질병이 다 다르듯이 종합검진을 각 개인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적인 종합검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Plan A, Plan B, Plan C를 환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마치 케이크 고르듯이 "나는 이것을 하겠다" 또는 "나는 저것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고르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또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 가슴통증이 있어서 온 사람은 폐나 심장검사 쪽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해서, 그쪽으로 종합검진 Plan을 고르지만, 실제로는 가슴통증 환자의 30%는 위산 식도역류병으로 인해 가슴통증이 생기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위 내시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위암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암은 3cm이상이 될 때까지 대부분 아무 증세가 없기 때문에 환자는 자기가 위에 문제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한다. 그러면, 이런 환자는 심장과 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고는, 몇 개월 뒤에서야 위에 통증이 생겨 그때 위 내시경을 받으면 그 때는 이미 늦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예를 들자면 수십가지가 넘는다. 필자는 환자 스스로 진단을 내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종합검진 Plan을 정하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이런 일들은 꼭 막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잘못될 때의 결과는 자기 건강과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에는 먼저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자기에게 잘 맞는 검사를 골라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종합검진' 을 그때 그때 조합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종합검진에서는 의사의 실력과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종합검진은 다 기계가 알아서 할 텐데 어떤 의사가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의사의 통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예에서 보듯이, 가슴 통증의 원인이 위에서 올라온 위산이 식도경련을 일으켜 가슴 통증을 일으킨 것인지 의사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 하면 환자는 자기는 위가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위식도역류병 환자의 절반 정도는 위장증세가 없다).

반대로 심장병(협심증)을 가진 환자의 30% 정도는 가슴 통증 없이 명치가 아프다거나 체했다고 온다. 이런 분들은 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위내시경만 해달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이 통찰력이 없으면 결국 환자는 심장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즉, 기계는 기계일 뿐, 의학기계를 다루는 의사의 통찰력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키포인트다.

그러므로, 병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뛰어난 내과 의사를 잘 고르는 것이 종합검진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

무단 도용 · 전재 · 복제 금지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중 하나는 머리로 만들어내는 생산물, 즉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태도다.

미국은 무단 도용·전재·복제·배포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로 치부되고 망각되기 일쑤다.

한국의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에 복귀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국회의원인 문대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한 그는 당선 직후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탈당, 그 동안 무소속으로 지냈다.

그런데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임명직 장관의 표절은 다르게 봐야 한다' 는 새누리당의 이에 대한 복당 허용 설명은 초라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의석 한 자리라도 아쉬워서 그랬다는 고백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대성의 복당은 잘못이다. 오기(誤記)까지 그대로 베낀 그의 논문은 명백한 지식 도둑질이다.

그에게 학위를 내준 대학은 문대성의 복당이 결정된 후 '심각한 표절' 임을 최종 확정했다.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이에게 법을 만드는 정당이, 그것도 여당이 면죄부를 준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다.

사전에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몰래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칼로 위협한다는 의미의 협박할 '표(剽)' 자와 훔칠 '절(竊)' 자를 쓴다. 타인의 생각이나 경험, 노력을 훔쳐 제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도둑질보다 더 나쁜 행위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이에 대해 분명하게 교육시킨다. 단 한 줄이라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간단한 발표 자료에도 맨 뒤에 출처(refer to)가 빼곡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게 없으면 외려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무성의가 지적된다. 또 표절은 단순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면서 정체불명의 지적 생산물이 넘쳐난다. 심지어 수 년 전 글이 최근 것인 양 떠도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사 기능을 이용해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사회서도 빈번하다. 난무하는 언론매체들은 누군가 공들여 취재하거나 정리, 분석한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대로 갖다 쓴다. 최소한의 확인과 보충 취재를 통해 일부라도 추가하는 것은 가상하기까지 하다.

대학 졸업반 시절, 입학 이후 내내 붙들고 있던 당시 군사정권과 고려시대 무신정권을 비교해보겠다며 몇 달 동안 논문 준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다. 지식은 얕았고 능력도 부족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무난한 주제를 잡아 엉성하기 짝이 없는 논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라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졸업논문보다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고려 무신정권 100년에 관한 단편적 사실들이다.

2년 전 처음 표절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회의원·교수·IOC 위원 등에 연연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을 그만 두지는 않겠다. 대신 박사학위를 다시 따겠다" 고 했던 문대성이 그 동안 새로 학위를 땄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무단 도용·전재·복제·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라는 문구가 장식용에 불과한 사회는 양심과 도덕이 사라진 곳이다. 원칙과 법, 정의는 실종되고 편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용인되는 사회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2

관악세대/Acro광장<박 변호사의 영화이야기-17>

도둑 넷,세마리 개,젖가슴 둘…,
A Fish Called Wanda

박준창(영문 79) CA
변호사

4명의 도둑들과 이들 때문에 애꿎게 당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진한 변호사와 도둑 총수의 얼굴을 본 할머니 증인의 이야기인데, 껄껄 웃게 만드는 유쾌한 영국 영화다.

영국 런던의 사기꾼이며 도둑인 George는 다이아몬드 강도를 위해 평소 그의 부하인 말더듬이 Ken 이외에 미국에서 Wanda와 Otto까지 끌어들인다.

완다는 조오지의 애인인데 실제 그녀의 애인은 오토(완다 역은 Jamie Lee Curtis가 맡았는데, Arnold Schwazenegger와 공연한 영화 True Lies에서처럼 또 한 번 진지한 척하면서 너무나 웃긴다). 완다는 그냥 애인인 척 해주는 것일 뿐이고, 완다와 오토는 다이아몬드 강탈 후 조오지를 내쳐 버릴 심산이다.

2천만불짜리 다이아몬드 강도짓은 잘 끝난다. 단 하나의 문제라면 요크셔테리어 3마리를 이끌고 산책하던 할머니가 조지를 본 것. 완다와 오토는 조지를 경찰에 고발해 버리고 조지는 체포된다. 그런데 완다와 오토가 다이아몬드를 가지려 하니 조지는 이미 다이아몬드를 다른 데로 옮겨 버린 후다. 악당들은 이래서 다 질이 좋지 않다. 모두 다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숨겨진 곳의 열쇠는 켄에게 준다.

조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켄에게 자신의 얼굴을 본 할머니 살해를 지시한다. 켄은 하는 짓은 강도짓이지만, 동물을 끔찍이 사랑하는 좀 모자라는 순진한 인물(이 역을 맡은 Michael Palin 참 우습게 연기를 잘 한다).

어항에 고기를 키우면서 가장 아끼는 고기에게 완다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정성스럽게 보살핀다. 켄은 조지에게서 받은 열쇠를 상자에 넣어 어항 속에 둔다. 그리고 할머니 살해 작업에 착수, 맹견을 시켜 할머니를 물어 죽이게 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만 맹견에게 물어뜯기고 불쌍한 요크셔테리어만 죽는다. 개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켄. 1차 시도에 실패한 켄은 이번엔 자동차로 할머니를 깔아 죽이려 하는데 또 실패. 남은 개 둘 중 한 마리를 또 죽인다. 또 다시 개의 죽음에 눈물짓는 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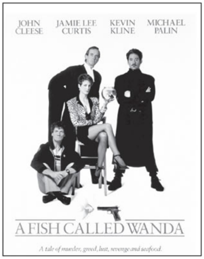
한편 완다는 켄이 열쇠를 보관하는 걸 훔쳐보고 열쇠를 꺼낸 다음 자신의 펜던트 목걸이 안에 보관한다. 그런데 조지는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주었는지 완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결국 완다는 조지의 변호사에게 접근, 다이아몬드 있는 곳을 알아내고자 한다. 분명 자신의 변호사에겐 얘기하지 않았겠냐며. 조지의 변호사 아치는 증인과 얘기하면 안 된다며 처음엔 완다를 피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매력있는 완다가 자꾸 접근해오니 이를 물리칠 수가 없다.

완다는 실상 오토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토는 니체의 철학 서적을 읽는 지식인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벨기에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가짜 엉터리 지식인. 그리고 엉터리 이태리어를 마구 지껄여 대는데, 이는 완다가 이태리어나 러시아어 같은 외국어를 남자가 하는 걸 들으면 그냥 오르가즘이 느껴지는 탓이다. 그리고 오토는 영국인의 지성이나 우월을 참지 못한다. 성질은 급하고 못되어먹어 아무 데서나 총을 꺼낸다.

그가 제일 참지 못하는 말은 “어리석다, 바보다(stupid)” 라고 불릴 때. 그런 말을 한 상대방은 오토에게 단단히 혼이 나고 욕을 본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미안하다’ 라는 말이 안나오는 불한당이다.

완다는 실제로 오토를 배신하고 다이아몬드를 혼자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질투가 심한 오토가 매번 나타나 완다와 아치의 데이트를 훼방 놓는다.

아치는 완다와 밀회를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눈물겹다. 집으로 찾아 온 완다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가 했더니, 오토가 방해하지, 게다가 차고장이라고 갑자기 아내와 딸이 들이 닥치지를 않나, 완다가 급히 나가느라고 빠뜨린 목걸이(그래, 그 중요한 열쇠가 든 목걸이 말이다)를, 둘러 대느라고 선물로 아내에게 주고 만다.



아치는 휴가 간 친구의 집을 빌려 완다와 밀회를 다시 한 번 계획하는데 오토가 또 나타나서 방해를 한다. 오토는 아치가 그를 ‘stupid’ 라고 했다고 아치를 거꾸로 창 밖에 매달아 사과를 요구한다. 그런데 사과가 참 변호사 답다.

←영화 포스터. 변호사 역 Archie를 맡은 John Cleese는 각본까지 썼다.

“저는 아끼지 않고 사과합니다. 저는 그 말의 완전하고 완벽한 취소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시사는 사실에 있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결코 정당한 말이 아니었고 순전히 악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끼쳤을 고통에 대해 심히 후회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중상모략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I apologize unreservedly. I offer a complete and utter retraction. The imputation was totally without basis in fact and was in no way fair comment and was motivated purely by malice and I deeply regret any distress that my comments may have caused you or your family and I hereby undertake not to repeat any such slander at any time in the future.)”

그런데 완다는 목걸이를 되찾아야 하니 목걸이 없이는 아치와 안 만나겠다고 한다. 아치가 목걸이를 잘못 준 거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 왈 선물이라곤 변변히 받은 게 없으니 기어코 자기가 가지겠다는 것 아닌가? 진퇴양난에 빠진 아치. 결국 도둑으로 가장하고 자신의 집을 턴다. 목적은 물론 목걸이를 완다에게 가져다주기 위한 것.

그런데 완다의 요구 때문에 오토는 어쩔 수 없이 아치를 거꾸로 매단데 대한 사과를 해야만 한다. 사과하러 아치 집에 간 오토는 도둑으로 변장한 아치를 못 알아보고 아치를 때려 기절시키고 두 손을 묶어 둔다. 이때 집에 돌아 온 아내. 정신이 든 아치는 목걸이를 입으로 주워 아내에게 들통 날 위기를 모면한다.

목걸이를 줄 수 있게 된 아치는 완다와 다시 한 번 밀회를 하는데, 아뿔싸, 너무나 신이 나, 발가벗고 러시아어를 지껄이며 노래를 하는 아치에게 그 집에서 살게 될 가족들이 들이 닥친다. 그 집 꼬마는 아치의 그 부분을 흥미롭다는 듯이 들여다보고, 개망신을 당한 아치는 완다와의 만남을 그만 두기로 한다.

슬픔에 잠겨 집으로 온 아치에게 오토가 나타난다. 정말 사과를 하러. 도망치는 아치를 잡아 오토는 총을 아치에게 겨누고 사과가 필요 없다는데도 기어코 사과를 한다. 그런데 이 사과 아닌 사과 장면을 아내가 목격하게 되고, 오토가 완다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바람에, 아치의 바람 아닌 바람 행각을 알게 된다.

그 사이 켄은 할머니 살해에 성공한다. 어떻게? 직접 할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또 실수로 마지막 남은 요크셔테리어를 죽이게 되고 충격을 받은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 할머니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모여든 군중의 질책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켄은 좋아 웃음을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조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조지의 증인으로 나온 완다는 거꾸로 조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조지가 강도 현장에 없었고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야 하는데 완다는 반대로 증언한 것. 당황한 아치는 완다를 “달링” 으로 부르다가 법정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로부터 이혼 선언을 듣는다. 흥분한 조지는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혼도 당하고 이젠 잃을 것도 없는 아치는 마음을 바꿔 먹고 완다와 함께 정말 다이아몬드를 가져 남미로 튀기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아치는 완다가 탄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성공하고 켄은 그의 사랑하는 고기 완다를 오토가 씹어 삼킨데 대한 복수로 오토를 시멘트 고르는 중기로 눌러 버린다. 복수가 하도 통쾌해서 그의 말더듬증이 고쳐져 버린다.

모든 것은 해피엔딩. 완다와 아치는 결혼해서 17명의 애를 낳고, 켄은 London Sea World의 사회자가 되며 오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무장관이 된다—고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온다.

유쾌한 코미디. 안 보면 후회할 영화다.***

박흥진의 할리웃 산책

감독 가브리엘 피게로아

박흥진(사대 64) CA
영화 평론가

영화는 명암의 격정적 충돌의 산물이자 빛과 그림자의 활동사진이다. 우리가 어느 영화를 보면서 감독 이름은 몰라도 이미지만으로 그 작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영화가 무엇보다 이미지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뚜렷한 시각 미와 스타일을 갖춘 감독들 중 세계 영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멕시코의 가브리엘 피게로아(1907~1997)다. 디에고 리베라에 의해 ‘제4의 벽화가’ 라 불린 그는 빛과 명암의 절대적 혼합을 추구한 장인이었다. 그의 흑백 영화들을 보면 가차 없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가 빚는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인해 보는 즉시 화면 속으로 취한 듯이 빨려들게 된다. 영화가 빛과 그림자의 마술이라는 말이 맞다.

훌륭한 감독들은 마치 신이 빛을 만들어내듯 빛을 마음대로 부릴 줄 아는 능력을 지녔는데 피게로아의 영화를 보면 빛이 그의 노리개처럼 느껴진다.

내가 지난 해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열린 피게로아의 작품 전시회 ‘멕시코의 하늘 아래: 가브리엘 피게로아-예술과 영화’ 를 보면서 대뜸 느낀 바는 그의 영화가 그렉 톨랜드의 영상미를 많이 닮았다는 것이었다.

빛의 마술사였던 톨랜드는 디프 포커스의 장인으로 ‘분노의 포도’ 와 ‘시민 케인’ 및 ‘폭풍의 언덕’ 을 찍었다. 피게로아는 처음 할리웃에 와 일할 때 톨랜드 밑에서 수련을 하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후에 피게로아를 존 포드에게 소개한 사람도 톨랜드다. 이 두 사람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흑백 이미지로서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긴 또 다른 감독이 ‘제3의 사나이’ 와 ‘짧은 만남’ 을 찍은 영국의 로버트 크래스키와 할리웃에서 활동하면서 ‘장미의 문신’ 과 ‘허드’ 를 찍은 중국계 제임스 웡 하우다. 둘 다 명암의 절묘한 배합을 구사할 줄 아는 빛의 마술사들이었다.

↑영화 The Fugitive(1947)

컬러의 장인으로는 ‘분홍신’ 과 ‘흑수선’ 을 찍은 영국의 잭 카디프가 있다. 이 밖에도 잉그마르 베리만의 영화를 많이 찍은 스벤 니크비스트와 빌모스 지그몬드 및 네스토 알멘드로스 등도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촬영감독들이다.

전시장에는 대형 화면이 여러 개 설치돼 피게로아의 영화가 상영됐는데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루이스 부누엘이 감독한 ‘로스 올비다도스’ 도 볼 수 있었다. 급격히 도시화하는 멕시코의 슬럼에 사는 10대 망나니들의 삶을 그린 영화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각박한 현실과 함께 초현실적인 꿈의 장면이 황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피게로아의 흑백 명암의 갈등은 작렬하는 태양 광선처럼 느껴질 정도로 치열하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면서 시각을 비수로 찌르는 듯하다.

그가 할리웃에 와서 찍은 존 포드의 ‘도망자’ (1947)를 보면 이런 명암이 상치하면서 만들어 내는 날카로우면서도 감싸 안는 듯한 아름다움을 잘 볼 수 있다. 헨리 폰다가 반정부 신부로 나오는 영화에는 피게로아의 영화에 많이 나온 할리웃에서도 크게 활약한 페드로 아르멘다리스와 돌로레스 델 리오가 나온다. 영화는 그래엄 그린의 소설 ‘권력과 영광’ 이 원작이다.

명암의 절대적 구사자일 뿐 아니라 화면구도에서도 제도사와 같은 치밀성을 보여주었던 피게로아의 이미지는 주름이 팬 농부나 서민의 얼굴과 혹독한 하늘 그리고 메마른 풍경 등을 부각시키면서 멕시코의 토속적이요 전통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와 동의어다.

초현실적 분위기를 초혼하듯 불러내던 피게로아의 영상미가 찬란한 또 다른 영화가 ‘진주’ 다. 그가 할리웃에서 찍은 또 다른 훌륭한 영화가 존 휴스턴이 감독한 흑백 ‘이구아나의 밤’ 과 컬러 ‘화산 아래서’ 다.

1930~50년 멕시코 영화의 황금기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피게로아는 50여년 간 200여편의 영화를 찍었다. 많은 다른 흑백 영화 장인들처럼 독일 영화계의 표현주의와 느와르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시각 스타일과 예술혼을 각인시킨 사람이었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3

←6.25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60여년이 됐지만 북한과 접경지역에는 아직도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수없이 많이 있어 크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12〉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논산훈련소 = 나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왔다. 입대 당시 18개월 학도병과 36개월 일반병의 선택이 있었다. 공대 3학년 때 학비가 떨어져 논산 훈련소에 혼자 내려갔다. 일반병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원입대했다.

입대 첫날 삭발한 머리에 군복을 입고 배당된 숙소에 찾아갔다. 충청도 시골에서 징병으로 온 훈련병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기차나 버스를 평생 처음 타고 논산에 왔다는 산골에서 농사만 짓다 온 청년들도 만났다. 낯선 분위기였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에 어려움은 없었다.

다음 날 군번을 받아 목에 걸고 군화 신고 철모를 쓴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 며칠 전까지 학생이었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우스꽝스럽고 귀엽고 조금은 씩씩해 보이기도 했다.

30명이 한 막사에서 자고 아침 여섯 시 나팔소리에 깬다. 세수를 마치면 막사에 15명씩 서로 맞보고 앉아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밥과 국이 담긴 냄비를 앞에 놓고 소대장의 "식사!" 호령을 기다린다. 잡곡이 섞인 밥에 쇠고기 콩나물국을 하루 3번 먹는데 가끔 김치가 따라 나오면 큰 경사였다. 군대생활 3년 하고 먹은 콩나물을 한 줄로 이어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농담이 실감 났다.

가끔은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난다. 30개의 밥 냄비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는데 마지막 훈련병의 밥 냄비가 도착하지 않았다. 식사 당번과 소대장은 모든 사병을 세워놓고 온 막사를 뒤졌지만 숨겨진 밥 냄비를 찾지 못했다. 냄비 하나 더 만들어 식사를 마친 후 돌아온 냄비는 31개다. 두 줄로 서로 마주보고 식사했는데 누가 마술 부려 한 그릇 더 먹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대학 재학생의 프리미엄 = 소대장 박 대위는 내가 서울대 재학생임을 알고 소대장 보조병으로 발탁하고 사무실 청소와 심부름을 시켰다. 소대장 밥 냄비는 장교식당에서 내가 배달했고 소대장이 외출하면 내가 먹었기에 가끔은 내 옆의 훈련병과 나눠 먹는 재미가 대단했다.

박 대위는 나에게 여러가지 특권을 부여했다. 소대에 배달되는 담배와 건빵을 내가 소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소대원들은 나의 공정성을 보았는지 내 의견을 따르게 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듯했다. 하지만 말썽꾸러기는 어디나 꼭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화를 자주 내고 평생 처음 들어보는 시골 사투리 욕은 말끝마다 튀어나왔다. 드디어 다른 소대원과 싸움이 터졌다.

> "어둠속에 숨어 들어간 마루 밑은 몹시 춥고 병원 쓰레기로 가득 쌓인 곳이었다. 잠옷만 입고 잠들면 얼어 죽을까 두려워 유리조각으로 손바닥을 찌르며 아픔을 참았다"

말리던 소대원 중 한 사람이 대검(총에 꽂는 칼) 두 개를 들고 와 쌍방에 하나씩 주며 나가서 남자답게 싸우고 오라고 막사 밖으로 쫓아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욕하고 화낸 병사는 피를 흘리며 끌려 들어왔다. 곧 위생병을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끝냈다.

당시 훈련과정은 일제강점기의 연장으로 인권유린이 심했다. 훈련 중 두들겨 맞는 경우가 심했고 변소에서 타살된 시체가 발견돼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뜻밖의 위기 = 1958년 1월 13일 새벽 나에게도 그런 위기가 일어났다. 북한 최전방 일선에서 트럭을 타고 훈련병을 실어가는 전투복 헌병들이 나타나 나를 찾고 있었다. 학도병들을 일선으로 데려가는 과정이었다. 내가 학도병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기에 나는 곧 훈련소 사무실 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다. 몇 시간 후 학도병 여러 명을 태우고 트럭은 떠났다.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간 마루 밑은 몹시 춥고 그곳은 병원 쓰레기로 가득 쌓인 곳이었다. 아침에 박 대위가 출근할 때까지 그 속에서 기다리려고 마음을 다졌다. 잠옷만 입고 잠들면 얼어 죽을까 두려워 유리조각으로 손바닥을 찌르며 아픔을 참았다. 새벽빛이 들며 주사기 깨진 것들과 바늘, 피 묻은 수술 방 쓰레기 위에 내가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생 처음 당한 엄청난 구타 = 잠시 후 청소 병사가 쓰레기 한 바켓을 구멍 속에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모두 얼굴과 머리에 덮어썼다.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기어 나와 헌병대를 찾아갔다. 헌병들은 모두 경비에 나가고 술에 취한 듯한 헌병 혼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훈련병임을 알고 내 손에 수갑을 채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밟고 차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과 배를 감싸고 한사코 피했지만, 코피 터지고 숨이 막히고 얼마 후 정신을 잃었다. 평생 그렇게 심하게 매 맞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헌병 장교가 방에 있었다. 그는 내가 혼자서 자진 입대한 사실을 알고 혹시 간첩이 아닌지 심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이 피투성이로 얼굴이 멍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대답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모양이다. 얼마 후 다시 정신 들었을 때는 막사 안 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박 대위가 옆에 있었다. 누군가 사무직원이 내 등록을 일반병 아닌 학도병으로 잘못 취급해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톡톡히 치른 셈이 됐다. 박 대위는 누이동생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곧 훈련 3개월을 마치고 숙부가 병원장이시던 대전 63육군병원에 배치됐다.

▶처절한 삶을 목격 = 나는 위생병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환자들의 음식을 나르고 침구를 치워주는 동안 그들과 친구가 됐고 병든 몸으로 고통 받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 알게 됐다. 그들 중 어떤 환자는 참으로 비참했고 조금은 건강이 회복된 듯한 환자들과는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병이 회복되어 퇴원할 때는 기쁘고 헤어짐이 섭섭했다. 하지만 간절히 회복되기를 고대했지만 끝내는 목숨을 잃는 환자도 있었다. 내 손으로 담요를 펴고 시체를 감싸 침대 위에 누이고 다음 날 화장지로 운송될 때까지 나는 그 시체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때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종교를 갈구하는 심정은 내 젊은 시절의 인생관이 요동치는 경험이었다.

어느 날 지뢰 폭발사고로 두 발과 한쪽 팔을 잃고 후송돼온 환자를 보았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일선에서 가끔 보는 지뢰 사고였다. 나는 그 환자를 볼 적마다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러웠다. 어느 날 일선에서 동료가 찾아 왔다. 측은한 마음으로 찾아온 친구를 보자마자 "야 내가 큰일 날 뻔 했어, 살아서 널 보니 얼마나 반갑냐." 하며 남은 손 하나로 목을 끌어안는다.

순간 그 환자의 희망을 보았고 생명의 의욕을 보았다. 아! 살아 있는 목숨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후 살아가는 길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도 이 환자를 기억하여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용기를 다시 얻기도 했다.

▶고교 때 문학에 심취 = 나는 고교 시절 문학에 취미를 가졌던 때가 있었다. 군복무 하는 동안 시를 쓰고 일기 쓰는 시간을 다시 얻게 됐다. 21살 내 나이에 나름대로 인생관을 찾아 헤매는 귀중한 경험을 거쳤던 듯 하다.

군의관들은 내가 병원장의 조카이며 서울대 재학 중임을 알고 더욱 친절해졌다. 숙부는 내가 복무하는 동안 공대 학점을 받도록 배려해 주셨기에 대학은 6개월 늦어 1961년 9월 졸업하고 일반병 복무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미국에 이민 온 가정의 젊은이들이 가끔 미군으로 입대하는 경우를 본다. 미국시민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교육과 직업의 혜택으로 선택하는 길이라고 한다. 남자로 태어나 한 번은 거쳐 자신을 수련해 정신적 육체적 성숙을 얻는 기회이기도 하다.

의과대학은 6년제이고 공대는 4년제여서 형과 나는 같은 해에 졸업했다. 내가 훈련을 마친 2년 후 형이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다. 형이 훈련받는 동안 내가 방문했을 때는 논산 훈련소가 미국식 군사훈련으로 개선돼 내가 겪은 훈련소 분위기와 크게 대조되었다.

인권보장이 향상되고 막사 설비와 식당 분위기가 대학 숙소 같은 인상을 받았기에 백선엽 3군 사령관의 현대식 군부 개조 노력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내가 일본식 군국주의 군사 훈련을 겪었다면 2년 후 형은 미국식 민주주의 군사 훈련을 받는 대조된 모습이 한국 군부 현대 역사의 단편을 보여주었다.

▶갑자기 찾아온 질환 = 미국에 올 때 호주머니에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허락한 50달러와 미국에서 형이 마련해준 비행기 표에 딸려온 어깨 가방 하나 메고 이국땅에 찾아와 일어설 수 있었던 능력은 이러한 군사 훈련 덕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때도 있었다.

우리 형제는 비교적 만리타향 이국생활에 적응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해 미국의 초년병 건축가로 설계와 제도에 몰입하는 동안 내 몸에 나쁜 버릇과 질병이 자라고 있음을 몰랐다.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친구들과 정구를 치고 왔다. 땀 뻘뻘 흘리고 몸을 씻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고 직장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듯 했다.

어느 날 운동하고 집에 왔을 때 바른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저리고 서 풀리면 아프기까지 했다. 밤에 자다 깨면 바른팔에 감각이 없고 움직이질 못해 왼팔로 들고 놓아야 할 만큼 심해졌다.

아내는 빨리 병원에 가도록 재촉했다. 친구 외과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곧 입원하도록 하고 엑스레이 혈액검사를 마친 후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다.

"뒷목 척추에서 신경이 눌린 듯하다" 며 "다음 날 혈관에 색소를 넣어 엑스레이로 정확한 장소를 확인한 후에 곧 수술해야겠다" 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한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 '혈관에 색소를 넣어 검사하고 목에 척추 수술을 한다?' 는 친구 의사의 말이 내 귀에서 비명을 친다.

다음 날 새벽에 친구 의사에게 "집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다" 는 글을 남기고 병원에서 도망쳐 나와 곧바로 정구장 사우나에 들어가 내 방식의 열 치료를 하고 있었다. 도면을 그리고 글을 쓰고 정구를 치는 바른팔이 고장 났으니 앞이 캄캄했다.

그 순간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나에게는 구세주처럼 천사가 찾아 왔다.

키가 건장한 독일계 중년 남성이 벌거벗고 걸어 들어 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왜 병원에서 나왔는지 묻는다.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내가 병원에서 나온 줄을 어떻게 아느냐" 고 물었다. 그는 내 손목에 병원 밴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정신병 환자인가 궁금해 했다.

나는 웃으면서 자초지종 내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도 웃으면서 "몇 달 전 허리에 신경이 눌려 다리가 몹시 아파서 허리 척추 수술을 할 뻔 했는데 닥터 어네스트 존슨이 구해 주었다" 고 말해준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병원 의사로 물리치료 두 주일 받고 체조를 따라 하면 한 달 안에 낫는다고 알려주었다.

▶구세주 닥터 존슨 = 나는 곧 집으로 달려가 닥터 존슨에게 전화했다. 그의 사무직원이 "환자가 너무 많아 앞으로 2년 동안 새 환자를 받지 못한다" 고 한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의사의 조수를 불러 내가 건축가이며 가정과 아이들이 있고 이 병은 운동하다 갑자기 일어난 내 생애에 치명적인 병이기에 닥터 존슨을 꼭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약 10분 후 닥터 존슨이 전화했다. 혈액검사 보고서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오라고 한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해 기다리는 동안 그는 세계 의학 잡지와 미국의 타임지에 그의 얼굴과 글이 실렸음을 보고 그가 세계적 명의임을 알게 되었다.

타임 잡지에 그의 말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중 차 안에 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 벌을 때려죽이려고 차 사고를 낸다" 였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벌이 나가도록 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환자가 아픈 곳을 치료하는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하기보다 서둘러 수술을 받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는 줄 모른다" 고 했다. <계속>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4

↑잘 알려져 있다시피 1달러 짜리 지폐의 앞면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뒷면에는 궁금스럽게도 이집트의 피라밋과 전설의 이집트 호로스 신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다. .

<달러 속 주인공의 이야기>

↑미 의사당 돔 안쪽에 있는 방을 로톤다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있는 조지 워싱턴 동상의 앞에서.

1달러 초상화의 조지 워싱턴

이영묵(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1달러 짜리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 조지 워싱턴(1732~1799)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미 건국의 아버지로 독립전쟁 총 사령관(1775~1783), 그리고 초대 대통령(1789~1797)이다.

그는 아버지 어스틴 워싱턴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메리 볼의 첫 번째 아들이며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난 두 형을 두고 있었다.

현재 북 버지니아로 불리는 당시 그 지역에는 Sir Fairfax 경과 그의 사촌이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복형 로랜스가 이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그 인연으로 17세 때 그들 땅을 관할하는 측량기사로서, 또 버지니아 민방위 장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미망인과 결혼 = 그리고 3년 뒤 그가 21살 되던 해에 그의 이복형 로랜스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 일부를 물려받았고 사회적 지위도 물려받아 버지니아 민방위의 부관이자 소령으로 군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 후에 그는 버지니아 민병대를 거쳐 영국 정규군에 편입되어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도 참가하기도 하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마운트 버논 농장으로 돌아온다.

그로부터 6년 후 그는 다니엘 커스티스의 미망인 마사와 결혼하여 3천명의 노예와 1만 7000 에이커의 토지 재산이 불어나 토지만 2만 2000 에이커를 소유하는 버지니아에서 최고의 갑부 중 하나가 된다. 마사와 결혼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 하자면 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원대한 꿈의 첫 발자국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세속적인 눈으로는 그의 마음은 페어팩스 경 가문의 딸을 좋아 하면서 돈 때문에 마사와 결혼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독립군 총 사령관으로 추대되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종전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1787년 미 합중국 탄생을 위한 회의에 버지니아 대표가 되고, 2년 뒤 치러진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돼 역사상 초대 대통령이 된다.

▶초대 대통령 = 이미 미 합중국 탄생을 위한 회의에 유독 혼자 독립전쟁 총사령관 당시의 군복을 입고 떡 버티고 앉아 좌중을 압도했다는 것은 꽤나 유명한 에피소드다.

>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1787년 미합중국 탄생을 위한 회의에 버지니아 주 대표, 2년 뒤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최고의 높은 자리라는 것이 황제(왕)이라는 관념이 박혀 있던 당시에 생소한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2년 중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미국 역사상 중임 이상이 허용 안되는 전통을 세운 그는 지금도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된다.

그리고 2년 후 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향집에서 사망한다.

사실 그 당시에 그의 고향집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지금에 와서는 워싱턴 DC의 외곽도시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인 즉 알렉산드리아는 꽤나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고, 그 외곽에 오늘 날 워싱턴 DC가 되는 곳은 한낮의 갯벌이었다. 그러니 고향집 알렉산드리아의 그의 장지는 꽤나 이름 있는 곳이었다.

▶수도 이전 = 그리고 잘 알다시피 미국 첫 수도는 뉴욕이었다. 그러나 후에 남부 농경지역의 대표인 반연방주의자 토마스 제퍼슨과 북부 공업지대의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과 사이에 독립전쟁 때 지은 빚 청산에 대한 타협의 하나로 수도를 워싱턴 DC로 정했던 것이고 새 수도 건설 중 필라델피아를 임시 수도로 얼마간 정하기도 했었다.

낙수(落水)라고나 할까, 조지 워싱턴에 관한 헛소리라고 할까, 가십이라고나 할까. 어찌 되었건 몇 마디 추가하고자 한다.

내가 이곳 워싱턴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 손님을 차에 태우고 워싱턴 이곳 저곳을 안내하며 다녀 보았다. 그러다가 좀 더 알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경비를 써 가며 관광 가이드로부터 하루 안내받도록 했다.

또 아브라함 링컨 일대기를 써서 출판한 어떤 분의 책도 읽기도 했고 또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얻어 듣기도 했다.

그런데 두 분의 시각이라고 할까, 관점이 아주 달랐다.

▶흑인 노예와 바람 = 관광가이드는 '영웅도 그도 우리와 같은 그저 하나의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했고 그런 시각에서 나를 안내하는 듯 했다.

한편 작가인 그 분은 그 영웅들의 훌륭한 업적을 강조 하는 듯 했다. 그 관광 가이드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다만 그 이야기는 진실을 떠나 그저 흥미꺼리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조지 워싱턴은 자기 집 노예가 죽었다가 며칠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국회의사당 로톤다 밑에 묻는 것을 사양하고 자기 집에 무덤을 만들어 땅에 묻지 말고 그냥 관 속에 넣어 땅 위에 놓아 달라고 했다.

조지 워싱턴은 말년에 흑인 노예와 바람을 피다가 들킬 것 같아 창밖으로 급히 알몸으로 도망치다가 비바람에 감기가 들어 이로 인하여 사망했다.

워싱턴은 말년에 위스키 양조장을 했고 그리고 그 술을 군대에 납품을 했다. 그래서 그의 고향집 마운트 버넌 그의 생가 기념관에서 위스키를 팔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특별 허가를 해 주고 있다.

▶미망인과 결혼은 돈 때문? = 조지 워싱턴의 진짜 여인은 페어팩스 경의 딸이고 그가 미망인 마사와 결혼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반면에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 기념관에 자원 봉사하는 프리메이슨 멤버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은퇴 후 그의 집을 찾아오는 일반 서민들이 아주 많았다. 그는 그들을 아주 즐겁게 맞이했다. 또 저녁 만찬도 꽤나 많이 열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추운 날 그는 방문객을 안내하였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만찬 약속 시간이 늦어서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초대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찬장으로 급히 갔다. 지금 상식으로는 양해를 구하고 옷을 갈아입었겠지만 그는 젖은 옷을 입은 그대로 저녁 만찬을 끝냈던 것이다.

그것이 폐염이 되어 결국 죽게 된다. 그는 국회 의사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 묻히게 해달라는 유언을 했다. 그러나 묘지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었던 터라 일차 급히 묘지를 만들었고 그 후에 제대로 된 현재의 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묘가 두 개나 현재 보존되어 있다.

또 하나 이야기. 조지 워싱턴은 프리메이슨 멤버(?)랄까, 교도(?)랄까, 그 무엇이 되었던지 이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이거나 아니면 조선조 후기에 있었던 대동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프리 메이슨 멤버 = 물론 일부 지역의 프리메이슨 집단이 유대교, 가톨릭 신자, 또 유색인종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단위(롯지)도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절대 신(유일신)을 믿고 도덕성과 박애정신을 추종하는 현재까지 이어 내려오는 모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조지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들도 프리메이슨 멤버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가이드는 마치 다빈치 코드 소설의 한 페이지나 되는 양, 프리메이슨이 비밀결사처럼 생각하고 있고 조지 워싱턴이 그 교도임에 색안경을 쓰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단 한 가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남는 여운이 있다.

모든 화폐의 뒷면은 모두가 미국 역사의 현장이다. 2달러짜리 지폐의 독립선언 회의 장면부터 모든 지폐 뒷면은 백악관, 의사당, 재무부, 자유의 종 등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유독 1달러 짜리만 이집트의 피라밋과 전설의 이집트 호로스 신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다. 유태계 프리메이슨 멤버가 지폐 도안을 했다고 한다. 무언가 목적과 전달하려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끝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조지 워싱턴에 대한 남아 있는 인상으로는 그의 장례식에서의 헨리 리의 연설의 마지막 구절이다.

"First in war, first in peace, and first in the hearts of his countrymen" ***

→버지니아의 Mount Vernon에 위치해 있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 그는 1761년 29세 때 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계속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1799년 67세로 서거했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5

역사 칼럼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上〉

송병문(공대 62) NJ
EmblemHealth,Sr.Systems
전 Engineer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세운(BC 2333) 조선 이전 환국(桓國)과 배달국(倍達國) 두 나라가 더 있었다. 삼성기전(三聖紀全), 조대기(朝代記), 삼성밀기(三聖密記) 등의 고사(古史)에 의하면 처음 환인천제(桓仁天帝)가 BC 7197년에 세운 환국으로 3300년간 지속됐고 7명의 환인·환인천제·환인혁서·환인고시리·환인주우양·환인석제임·환인구을리·환인지위리가 알려져 있다.

▶환국 = 환국은 파내류산(波奈留山)과 천산(天山), 천해(天海)에 이르는 넓은 땅으로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나 됐다. 파내류산은 중국의 불함산(不咸山) 북쪽에 있고 동쪽은 큰 바다, 북쪽은 고비사막으로 흐르는 약수에 접한다. 천산은 천산산맥, 천해는 바이칼호다. 환국에는 오훈(五訓)이 있었다.

첫째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둘째 경건하고 근면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셋째 효도하고 순종하며 어기지 않아야 하고, 넷째 청렴하고 의로워 음란하지 않아야 하고, 다섯째 겸손하고 온화, 다투지 않아야 한다.

환국의 마지막 환인지위리께서 아들 환웅(桓雄)과 신하 반고(盤固)를 태백산(지금의 백두산)에 보냈다. 반고는 따로 삼위산(三危山,중국 감숙성 돈황현의 산)으로 가서 반고가한(盤固可汗)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삼위산 근방에 살고 있는 서이(西夷),견이 등의 모든 부족들은 한족(漢族)만 제외하고 모두 이 반고의 후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민족인 동이족(東夷族)이다.

환웅은 환인지위리로부터 천부인(天符印)을 받아 3천의 무리를 이끌고 BC 3897년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 나라를 세워 신시(神市)라 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국(倍達國)이라 했다.

천부인은 국권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옥새(玉璽)같은 도장을 뜻한다. 천부인을 거울·방울·검이라는 설도 있으나 20세기 이전 문헌에는 찾을 수 없다. 환웅은 오사(五事)를 다섯 종족인 오가(五加)에게 각각 나누어 맡겼다.

오사는 곡식을 주관, 임금의 명령을 주관, 병을 주관, 형벌을 주관, 선악을 주관하는 일이다. 오가(五加)는 우가(牛加)·마가(馬加)·구가(狗加)·저가(猪加)·양가(羊加)다.

옛날에는 종족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으로 많이 표시했다. 짐승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종족들로 곰족과 호랑이족도 있었다.

환웅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에게 366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했다. 역법을 만들어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1년으로 했으며 신지혁덕(神誌赫德)에게 문자를 만들게 했다.

▶사슴 발자국으로 글자 = 신지씨는 사냥갔다가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이것이 녹도문(鹿圖文)이며 태고 문자의 시작이다. 환웅은 환인 때부터 구두로 전해오던 우리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과 삼일신고(三一神誥)를 녹도문으로 쓰고 가르쳐 성통광명(性通光明-하나님의 神性을 깨쳐 두루 살핌),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이 하늘의 이치에 맞도록 교화), 홍익인간(弘益人間-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함)하게 다스렸다.

이 경전들은 참전계경(參佺戒經, 366事라고도 함)과 함께 우리 고유의 3대 경전이다. 환웅의 배달국은 1565년간 18분의 환웅께서 구역(九域)의 백성을 다스렸다. 구역이란 한반도·만주·중국의 황하유역, 산동 등 우리 민족이 살았던 지역을 말한다.

▶복희 = 제5세 환웅 태우의(BC 3511)는 열두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이 제6세 환웅 다의발이고 막내가 태호다. 태호를 복희(伏羲)라고도 한다.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나 우사(雨師)의 직책을 세습했으며 하도(河圖)와 팔괘(八卦)를 만들었다. 하도는 황하(黃河)에서 나왔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고 양(陽)을 의미하는 열개의 흰 점과 음(陰)을 의미하는 열개의 검은 점이 서로 조합을 이룬 그림이다. 복희가 이것을 연구해 우주와 인생의 이치, 삶의 철학을 가르쳤다.

> **"환국에서의 '환인', 배달국의 '환웅' 은 '임금' 이라는 뜻으로 조선과 부여에서는 '단군' 이다. 임금은 '천제' 의 우리 말로 제후국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 이라 불렀다"**

팔괘는 건(乾 하늘)·태(兌 연못)·이(離 불)·진(震 우뢰)·손(巽 바람)·감(坎 물)·간(艮 산)·곤(坤 땅)이다. 복희는 이를 이용해 우주의 기본구조를 설명한 후 청구(靑丘)를 거쳐 진(陳)에가 수인(燧人)·유소(有巢)와 함께 서토(西土)에서 이름을 떨쳤다. 진(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다스렸다.

복희의 여동생 여와가 대를 이었고 15대를 계승했는데 청구는 지금의 요하 서쪽이다. 서토는 서안(四安) 일대의 넓은 지역이고 진(陳)은 지금의 하남성에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 에도 태호 복희를 동이족이라고 했다.

복희는 천부경과 팔괘로 환역(桓易)을 만들었는데 주(周)나라를 거치면서 주역(周易)이 됐다. 이 팔괘중 네개의 괘가 우리의 태극기 안에 그려져 있다.

제8세 환웅 안부련이 신하 소전(少典)에게 군병 감독을 위해 강수(姜水)에 보냈는데 그의 아들 신농은 강수에서 온갖 풀의 맛을 보고 의약의 체계를 세워 동양의학의 시조가 됐다. 소전은 우리 곰족(雄族)에서 갈라진 배달겨레인 고시(高矢)씨 후손이다.

▶신농 = 신농은 강수에서 자라 강씨(姜氏)로 성을 삼았다. 강수는 중국 섬서성 기산현을 흐르는 강이다. 여와의 나라가 몰락하니 신농은 진(陳)에 도읍을 정해 나라를 세워 왕이 됐는데 염제신농(炎帝神農)이다. 그후 도읍을 곡부(산동성)로 옮기고 유망까지 8대 530년을 유지했다. 제(齊)나라 기록에 이(怡)·향(向)·신(申)·여(呂)씨와 여상(呂尙)강태공,진시황의 친부 여불위는 모두 강씨성(姜氏性)의 후예들이다.

▶치우천황 = 제14세 환웅 자오지(BC 2706, 일명 치우천황)는 구야(九冶 9곳의 야금소)를 세우고 광석으로 쇠를 제련해 병장기를 만들었으며 특히 구리와 쇠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가는 곳마다 싸워 이겼다. 이때 쇠퇴해 가는 염제신농 지역에서 공손(公孫)의 후손 헌원(軒轅)이 군사를 모아 치우천황에게 대항했다. 공손은 소전의 후손으로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해 배달국에서 헌구(軒邱 중국 하북성 근처)로 쫓겨난 자로 결국 헌원은 동이족이다.

당시 배달국 근방의 제후국으로 대요(大撓)와 창힐(倉詰)이 있었다. 대요는 탁록(하북성 탁록현)의 북쪽, 창힐은 동쪽에 있었다. 헌원은 대요와 창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치우천황은 헌원과 73번 싸워 다 이겼다. 마지막 탁록전투에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

치우천황에 대한 구리머리, 쇠이마, 탁록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 에도 나온다. 중국은 헌원을 중국역사에서 한족(漢族)이라 하나 아무 고서에도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

한족은 지나족(支那族)이라고도 하며 China는 지나에서 유래했다. 상고시대 중국이라는 나라나 중국인이라는 종족이 없었다.

대요는 배달국에서 간지(干支)의 기술을 배웠고 창힐은 부도(符圖)의 글을 받아 갔으며 헌원은 삼황내문경(三皇內文經)을 치우천황의 스승인 자부선생(紫府先生)으로부터 얻었다. 삼황내문경은 천부경, 삼일신고, 환역 등을 기초로 자부선생이 3편으로 집대성한 책이며 녹도문(鹿圖文)으로 쓰였다. 간지는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조합, 육십갑자(六十甲子)라고도 한다.

▶십간 십이지 = 십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십이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다. 이 십간과 십이지가 갑자을축 순으로 조합을 이루어 다시 갑자로 돌아오면 60년 환갑(還甲)이 된다.

부도는 상형문자를 간단히 만든 글이다. 삼황내문경은 도교와 동양의학을 다룬 경전이며 동양철학의 바탕이 됐다. 자부선생은 선인(仙人) 발귀리(發貴理)의 후손으로 발귀리는 복희와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다. 선생은 해와 달의 운행을 측정하고 오행수리를 살펴 칠정운천도(七政運天圖)를 만들어 치우천황께 바쳤다. 오행(五行)이란 수·화·목·금·토의 오성(五星), 칠정(七政)은 일월(日月)과 오성의 별들이다. 운천(運天)은 별의 운행으로 이 운행을 연구해 달력을 만들었다.

자부선생은 동양의 으뜸 석학으로 유위자(有爲子-천문·지리·人道)를 모두 깨친 단군조선의 대학자)의 학문도 선생으로부터 나왔다.

▶환웅 = 단군세기(檀君世紀)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BC 2333년 10월 3일 아사달에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다. 조선은 우리 말로 당시 한자가 없었다. 단군왕검의 부친은 배달국 마지막 환웅 제18세 거불단(일명 檀雄)이며 어머니는 곰족(熊族)의 왕녀다.

고려 충열왕 11년(AD 1285) 중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의 고조선편에 환국과 배달국에 관한 기록이 없고 환인과 환웅의 이야기만 나와 마치 1세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기 쉽다. 고려 인종 23년(AD1145) 김부식(金富軾) 삼국사기에는 아예 우리 상고사에 관한 기록이 없다. 당연히 중국에 보고해야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환인과 환웅은 다 임금이라는 뜻으로 환국에서는 환인, 배달국에서는 환웅, 조선과 부여에서는 단군이다. 임금은 천제의 우리 말이고 제후국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 불렀다. 평양이나 아사달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읍지를 말하는 보통명사다. 평양이나 아사달이라 불리는 곳들이 중국이나 만주에 많이 있었다. 환단고기(桓檀古記)의 태백일사(太白逸史)편에 의하면 단군왕검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삼한(三韓)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진한(眞韓)·마한(馬韓)·번한(番韓)이라 했는데 진한은 임금이 직접 다스리고 번한과 마한에 각각 왕을 두었다. 웅백다(熊伯多)를 마한의 왕으로 봉하고 치우천황의 후손인 치두남(蚩頭男)을 번한의 왕으로 임명, 요(堯)왕의 우(虞)나라 정치를 감독하게 했다. 진한은 요하 동쪽의 만주지역이고 마한은 한반도 지역이며 번한은 요하서쪽과 산동일대와 회대지방의 넓은 지역이다.

단군왕검 67년 태자 부루(扶婁-제2세 단군 BC 2240~2183)를 시켜 우(虞)나라에서 사공(司空) 벼슬을 하던 우사공(虞司空)인 우(禹)와 도산(塗山-안휘성 방부시)에서 만나게 해 삼보와 오행치수법(五行治水法)이 담긴 금간옥첩(金簡玉牒)과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전했다. 그후 유주(幽州)와 영주(營州) 땅을 얻고 회대(淮岱-산동과 양자강 이북땅)에 제후를 두었다.

오행치수법은 정전제(井田制)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홍범구주는 단군조선 전부터 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적힌 심오한 글로 65자, 9개 항목으로 돼 있다. 중국은 이것을 '서전·사기·죽서기년' 등에 기록해 은나라 임금의 숙부인 기자(箕子)가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전했다고 하나 그 전 부루에서 우사공(虞司空)인 우(禹)에게 전해진 것이다. '오월춘추' 등 중국 사서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가 도산에서 열린 제후회의에서 부루태자로부터 금간옥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동쪽으로 순행해 망제(望祭)를 지내고 동쪽 임금을 알현했다' 고 했다. 동쪽 임금은 바로 단군왕검이다. 그후 우사공(虞司空)인 우(禹)는 우(虞)나라 순(舜)왕이 61년간 다스리고 세상을 뜨자 하(夏)를 세웠다. 단기고사에 의하면 우(虞)나라 순(舜)은 고수(高搜)의 아들이며 고수는 단군조선의 중신(重臣)인 고시(高矢)의 형이다. 순은 단군조선에서 벼슬하지 않고 요(堯)왕의 충신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고수의 미움을 샀다. 그래서 요왕은 더욱 순을 신임해 왕 자리를 물려 주었다.

▶한글의 전신 = 제3세 단군 가륵은 죄를 지은 욕살(성주를 뜻함) 색정(索靖)을 약수(弱水-고비 사막으로 흘러 들어 가는 강)로 유배 보냈고 그후 사면해 그곳을 다스리게 했다. 이 후손들이 흉노(凶奴)로 동이족이다. 또 단군 가륵은 을보륵에게 명해 정음(正音) 38자를 만들게 했다. 이것이 가림토(加臨土, 또는 加臨多)이며 신전(神篆)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한글의 전신이며 구성모체는 천지인이다. 자음은 원방각(ㅇㅁA), 모음은 천지인(ㅣㅡ .)들로 구성됐다. 또한 가륵 3년 신지 고설에게 배달유기(倍達留記)를 쓰게 했다(BC 2180). 기록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이다.

제9세 단군 아술은 번한 장수 치운(蚩雲)에게 탕(湯)을 도와 하(夏)의 왕 걸(桀)을 치게 해 탕은 하 나라 땅에 은(殷)나라를 세우게 됐다. 은나라 마지막 왕 주(紂)는 포악해 주 나라 무왕(武王)에게 멸망 당했다.

제22세 단군 색불루가 삼한을 진조선·번조선·마조선의 삼조선으로 바꾸게 했다.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라고 돼 있으나 단기고사의 기자(奇子)조선 제3세 솔귀(번조선 제32세)에 보면 기자(箕子)가 은이 망한 후 주나라 신하가 되기 싫어 요수(遼水)변에 머무니 제25세 단군 솔나가 요서의 한 모퉁이에 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치우천황의 후손인 치두남이 번한의 제1세 왕이고 제21세 단군 소태가 BC 1333년 소정을 제29세 번한의 왕으로 임명했고 상장(上將) 서우여(徐于餘)에게 살수의 백리 땅을 주어 기수(奇首)라고 부르게 했다.

제22세 단군 색불루가 BC 1286년 상장 서우여를 제30세 번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이 때부터 번조선을 기자(奇子)조선이라고도 불렀다.

서우여는 수유족이다. 수유는 지금의 산서성에 있다. 복희의 후예중 풍산으로 갈라져 나온 풍이족 풍씨의 후손들이 살던 곳으로 옛 제나라가 있던 곳이 산서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번한은 치우천황이 다스려왔던 곳이며 묘족 혹은 강족이 그 주류로 단군조선의 저가(猪加)가 또한 주류며 우사의 계통에서 이은 맥이다. 중국 사가들은 서우여가 수유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자(奇子)조선을 기자(箕子)조선으로 주장하나 서우여는 기자(箕子)의 후손이 아니다. <계속>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6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3.7.1 ~ 2014.7.9)

동창회비

▶Alabama
서안희(간호63)

▶Alaska
윤제중(농대55)
하인환(공대56)

▶Arizina
김영철(공대55)
박양세(약대48)
유기석(문리60)
장석용(공대63)
정문필(사대56)
지영환(의대59)
진명규(공대70)
최종태(공대69)

▶California
강경수(법대58)
강동순(법대59)
강동원(수의75)
강명식(의대61)
강영호(의대63)
강윤희(간호72)
강재신(음대61)
강재호(상대57)
강정수(문리61)
강정자(간호61)
강정훈(미대56)
강천호(사대58)
강호석(상대81)
강희창(공대57)
고석규(치대65)
고석원(문리50)
고영순(음대59)
고용규(의대67)
고재천(공대57)
곽웅길(문리59)
권기상(대원72)
권길상(음대45)
권영재(의대57)
권오형(사대61)
권영달(문리50)
권영조(의대65)
권용덕(공대54)
김강수(문리59)
김건진(문리62)
김경숙(간호68)
김경순(대원64)
김경옥(미대61)
김계윤(의대57)
김광은(음대56)
김광하(치대46)
김교복(농대63)
김군빈(법대56)
김기선(간호55)
김기수(공대74)
김기태(의대52)
김기형(경영75)
김길평(상대62)
김낙구(상대67)
김난경(음대66)
김난영(공대53)
김대우(치대62)
김동산(법대59)
김동석(음대64)
김동호(농대58)
김명원(의대62)
김명환(문리67)
김명희(간호67)
김병곤(공대58)
김병완(공대58)
김병호(상대57)
김상엽(공대57)
김상온(약대21)
김석두(농대58)
김석홍(법대59)
김선기(법대59)
김성복(공대59)
김성호( )
김성환(의대65)
김수백(치대49)
김수영(사대57)
김순길(법대54)
김순덕(간호61)
김순자(치대57)
김양희(음대77)
김영기(의대54)
김영배(미대61)
김영옥(간호69)
김영춘(수의64)
김영한(법대54)
김영희(사대56)
김영희(간호66)
김완기(사대50)
김원경(약대59)
김원탁(공대65)
김원호(약대63)
김용권(문리49)
김용수(경영74)
김윤범(의대58)
김의신(의대60)
김은희(치대46)
김익창(의대51)
김재영(농대62)
김재종(치대62)
김 정(치대59)
김정민(상대58)
김정애(간호69)
김정희(음대56)
김종수(공대74)
김종표(법대58)
김진호(약대64)
김창무(음대53)
김철한(공대57)
김태곤(공대59)
김현왕(공대74)
김현철(의대57)
김혜숙(약대77)
김홍묵(문리60)
김희재(사대66)
김희창(공대64)
나두섭(의대66)
나민주(음대65)
나승옥(문리59)
남승채(공대66)
남장우(사대56)
노명호(공대61)
노문희(사대59)
럼원규(문리57)
문병길(문리61)
문병하(법대51)
문석훈(농대59)
문인일(공대51)
민경탁(의대61)
민병곤(공대65)
민병돈(문리57)
민영기(치대61)
박경룡(약대63)
박노면(사대50)
박병원(의대49)
박서규(법대56)
박성욱(상대58)
박순자(간호60)
박영옥(사대55)
박우성(사회77)
박원준(공대53)
박의순(상대53)
박은숙(미대62)
박인수(농대64)
박인창(농대65)
박임하(치대56)
박자경(사대60)
박정모(문리66)
박제인(약대60)
박종성(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찬호(농대63)
박창선(공대55)
박취서(약대60)
박태호(치대66)
박혜옥(간호69)
박홍근(공대64)
방명진(공대73)
배동완(공대65)
배병옥(음대58)
배석민(상대71)
배옥례(간호55)
배효식(문리52)
백산옥(간호77)
백소진(문리55)
백승호(치대55)
백옥자(음대71)
백혜란(미대70)
변영근(수의52)
부영무(치대72)
서동영(사대60)
서영석(문리61)
선우원근(공대66)
성낙호(치대63)
손기용(의대55)
손명세(공대60)
손선행(간호69)
손창순(공대69)
손학식(공대61)
신광재(공대73)
신대식(상대60)
신동국(수의76)
신우식(치대59)
심상은(상대54)
심진숙(간호68)
안백영(공대75)
안병일(의대63)
안병협(공대58)
안호삼(문리58)
양명교(의대55)
양은혁(상대56)
양창효(상대54)
엄세옥(간호69)
염동해(농대74)
오문성(법대56)
오송자(가정59)
오재인(치대33)
우춘식(상대61)
원미랑(미대65)
유두영(공대55)
유석홍(상대61)
유재환(상대67)
유한택(농대70)
유희자(음대68)
윤경민(법대55)
윤병석(사대51)
윤성희(사대58)
윤성희(공대74)
윤용길(공대55)
윤정옥(약대50)
윤진수(의대57)
이건섭(치대54)
이관모(공대55)
이광재(공대59)
이교락(의대53)
이근웅(의대61)
이근원(공대67)
이기재(문리52)
이기준(법대54)
이명선(상대58)
이문상(공대62)
이미정(의대76)
이방기(농대59)
이범식(공대61)
이범진(상대60)
이병무(치대70)
이병준(상대55)
이상문(의대54)
이성숙(공대56)
이성형(공대57)
이승재(상대67)
이영모(의대53)
이영송(치대63)
이영수(상대60)
이영식(농대58)
이영신(간호77)
이영일(문리53)
이우근(음대50)
이원익(문리73)
이원택(의대65)
이은경(간호80)
이익삼(사대58)
이일복(공대64)
이장길(치대63)
이장우(문리72)
이재권(법대56)
이재룡(공대71)
이재선(농대58)
이정근(사대60)
이정옥(공대52)
이정옥(가정71)
이정희(음대55)
이종걸(상대53)
이종묘(간호69)
이준식(의대61)
이준호(상대65)
이중희(공대53)
이진주(문리55)
이창무(공대54)
이창섭(공대57)
이채진(문리55)
이청광(상대61)
이해영(공대56)
이호진(간호74)
이홍기(공대62)
이홍표(의대58)
이희순(음대64)
이희충(공대68)
이철훈(치대60)
임동규(미대57)
임동호(약대55)
임문빈(상대58)
임용오(의대57)
임정란(음대76)
임진자(미대60)
임진환(치대68)
임창희(공대73)
임춘수(의대57)
임화식(치대59)
임희례(간호73)
장기열(치대55)
장기창(공대56)
장기화(치대57)
장동석(문리66)
장문섭(공대69)
장 준(인문85)
장진성(약대66)
장효성(공대57)
전경배(의대75)
전낙관(사대60)
전명자(미대58)
전병련(공대54)
전상옥(사대52)
전순열(사대47)
전원일(의대77)
전희택(의대58)
정규남(공대52)
정낙영(음대52)
정대연(치대74)
정동구(공대57)
정동주(가정72)
정두호(공대64)
정수만(의대66)
정예현(상대63)
정원훈(상대38)
정인환(법대54)
정재훈(공대64)
정정순(사대56)
정진수(공대56)
정진화(약대)
정창희(법대54)
정철륭(의대55)
정태무(사대44)
정현진(간호68)
정형민(문리71)
정 황(공대64)
조동준(의대57)
조만연(상대58)
조상하(치대64)
조성윤(법대46)
조임현(간호72)
조재길(사대61)
조정시(공대60)
조태묵(사대60)
조태준(문리59)
주정래(상대65)
진성호(공대64)
차기민(공대85)
차민영(의대76)
차재철(의대62)
차종환(사대54)
최경선(농대65)
최경희(사회83)
최동욱(의대59)
최리나(생활72)
최상집(치대65)
최수일(법대55)
최승륭(상대53)
최왕욱(공대69)
최용완(공대57)
최재윤(문리54)
최종권(문리59)
최 철(의대62)
최태근(법대48)
최홍수(자연87)
추춘득(공대69)
탁혜숙(음대67)
하기환(공대66)
한상봉(수의67)
한성구(상대53)
한정헌(치대55)
한종철(치대62)
한효동(공대58)
허영진(문리61)
현기웅(문리64)
현순일(문리58)
현순화(56)
홍병익(공대68)
홍선애(미대62)
홍유현(음대61)
홍춘만(문리58)
황규혁(공대50)
황동하(의대65)
황만익(사대59)
황준오(치대70)

▶Chicago
강영국(수의67)
강창만(의대58)
강화영(문리50)
고병철(법대55)
곽영로(수의72)
구경회(의대59)
권호연(문리57)
김갑조(간호51)
김갑중(의대57)
김경일(공대58)
김광천(47)
김사직(상대59)
김상기(문리56)
김성일(공대68)
김연화(음대68)
김영호(의대71)
김용우(공대58)
김일훈(의대51)
김정숙(약대51)
김정주(문리60)
김현주(문리61)
김호범(상대69)
노영일(의대62)
문병훈(사대47)
민영기(공대65)
박기정(간호72)
박영준(문리67)
박용순(의대53)
박정일(의대61)
박창용(공대87)
박창욱(공대56)
배영섭(의대54)
백영구(대원60)
서상헌(의대55)
소진문(치대58)
손인섭(의대68)
송재현(의대46)
신석균(문리54)
안은식(문리55)
유태종(공대50)
윤병애(약대50)
윤봉수(간호69)
이덕수(문리58)
이동균(공대75)
이상오(문리61)
이소희(의대61)
이승자(사대60)
이승훈(공대66)
이시영(상대46)
이용락(공대48)
이윤모(농대57)
이정일(농대57)
임근식(문리56)
임영신(의대54)
임이섭(미대54)
임현재(의대59)
장기남(문리62)
장시경(약대58)
장윤일(공대60)
장 홍(문리61)
전현일(농대62)
정병욱(의대55)
정승훈(공대60)
정영숙(사대59)
정지희(문리55)
조대현(공대57)
조봉완(법대53)
조형원(약대50)
최혜숙(의대53)
한의일(공대62)
한재은(의대59)
함성택(문리55)
현운석(법대64)
홍영석(공대58)
홍인표(미대60)

▶Florida
김덕윤(수의68)
김연국(수의74)
김택희(문리55)
박창익(농대64)
송용덕(의대57)
신상재(수의59)
안창현(의대55)
이 영(공대59)
이정필(의대60)
이중오(의대58)
정진묵(의대50)
한기빈(공대52)
한성수(의대54)
홍순호(수의74)
황현상(의대55)

▶Georgia
김순옥(의대54)
김영서(상대54)
김용건(문리48)
김용자(사대60)
김태형(의대57)
김학래(공대60)
방창모( )
손종수(의대50)
안승덕(상대51)
오경호(수의60)
유성무(상대66)
유우영(의대61)
이영진(공대76)
임수암(공대62)
임한웅(공대60)
정경근(농대59)
정광호(공대60)
정양수(의대60)
정인태(의대58)
정일화(상대55)
진창건(의대55)
최재학( )
최종진(의대63)

▶Hawai
김승태(의대57)
김용진(공대50)
김창원(공대49)
문세화(법대57)
송호민(문리52)
유재호(문리59)
전영표(문리55)
장광수(사대51)
최경윤(사대51)

▶Heartland
곽노균(상대51)
구명순(간호66)
권준희(생활87)
김명자(문리62)
김경숙(가정70)
김승희(법대55)
김제권(사대68)
도태형(사회93)
배규영(사대68)
백산옥(문리51)
이경배( )
이상강(의대70)
이상문(상대57)
이주현(미대62)
정민재(농대70)
최원웅(의대64)

▶Michigan
고광국(공대54)
권순관(공대60)
김국화(공대56)
김원정(의대69)
김정일(의대67)
남성희(의대56)
문광재(의대62)
박준환(의대55)
서경원(공대53)
오동환(의대65)
이상설(의대52)
정 태(의대57)
서영일(의대61)
신강근(공대66)
신동화(문리55)
유효명(의대58)
육대식(의대61)
윤효윤(의대63)
이상설(의대58)
이상일(의대54)
이성길(의대65)
이영모(의대53)
임병훈(의대54)
조문희(공대56)
차대양(공대55)
채무원(의대59)
최병두(의대52)

▶Minnesota
강선 M( )
권학주(치대59)
김영남(사대53)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박정선(농대60)
변우진(인문81)
성옥진(치대87)
송창원(문리53)
이창재(문리56)
주한수(수의62)

▶Las Vegas
김영중(치대66)
김용재(의대60)
김택수(의대57)
이 관(공대55)
이순환(의대53)
이장섭(의대52)
최영식(법대59)
최창식(의대61)

▶New England
강동순(법대59)
고일석(보대69)
김경석(공대70)
김경일(공대58)
김만옥(약대56)
김명자(문리62)
김문소(수의61)
김선혁(약대59)
김신형(의대50)
김은태(의대48)
김은한(의대60)
김제호(상대56)
노인규(의대52)
박영철(농대64)
박종건(의대58)
오세경(약대61)
윤상래(수의62)
이강원(공대66)
이의인(공대68)
이회규(공대69)
장수인(음대76)
정선주(간호68)
정승훈(공대60)
정태진(의대53)
최선희(문리69)
한승원(미대60)

▶N.Carolina
김기현(문리52)
마동일(의대57)
신두식(의대58)
우양구(법대70)
이범세(의대56)
이석형(사대56)
이종영(음대58)
이항열(법대57)
한광수(의대59)
홍 훈(자연)

▶NY & NJ
강석권(법대61)
강성권(공대65)
강신자(간호59)
강에드(사대60)
강영선(공대50)
강재룡(의대51)
강태원(상대62)
계동휘(치대67)
고강희(약대56)
고순정(간호69)
곽노섭(문리49)
곽상준(약대55)
곽선섭(공대61)
권문웅(미대61)
권영국(상대60)
권용구(상대61)
금영천(약대72)
김경순(상대59)
김경애(간호54)
김광현(미대57)
김광희(간호69)
김기훈(상대52)
김동욱(법대55)
김동진(약대56)
김명철(공대60)
김문경(약대61)
김병권(문리63)
김병석(의대53)
김병숙(대원)
김봉련( )
김부웅(공대71)
김석식(의대58)
김석자(음대61)
김성현(약대56)
김세중(공대50)
김세환(공대65)
김수산(의대52)
김순자(약대59)
김양호(의대51)
김영숙( )
김영애(사대56)
김영일(약대58)
김영철(의대55)
김용두(의대58)
김용연(문리63)
김용술(상대56)
김욱현(의대59)
김완주(의대54)
김윤수(상대50)
김은섭(의대53)
김인형(미대59)
김자억(의대69)
김정빈(약대54)
김정순(법대53)
김정순(법대57)
김정필(공대71)
김정환(문리60)
김정희(간호69)
김종원(사대58)
김종율(사대51)
김진승(문리53)
김창수(약대64)
김태원(상대62)
김택환(의대61)
김해암(의대52)
김현중(공대63)
김 훈(의대65)
김훈일(공대60)
김희국(약대50)
남상래(간호65)
노용면(의대49)
라준국(공대47)
라찬국(의대57)
문석면(의대52)
민발식(의대60)
민준기(공대59)
박경원(미대66)
박상원(음대69)
박성일(상대58)
박수안(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승화(간호69)
박영태(상대63)
박은규(약대72)
박정우(의대54)
박중섭(상대74)
박진우(상대77)
박찬명(약대57)
박현성(약대60)
방신자(간호59)
배명애(간호47)
배상규(약대61)
백낙환(약대56)
백윤자(간호64)
변건웅(공대65)
변영근(수의52)
서병선(음대65)
서영숙(간호67)
서충선(사대57)
선우치민(약54)
선우문혜(약59)
선종칠(의대57)
석창호(의대66)
성기로(약대59)
손경택(농대57)
손광호(의대59)
손완배(농대70)
송근숙(간호66)
송기인(의대60)
송병문(공대62)
송영순(사대60)
송영우(사대64)
송용섭(농대63)
신남철(인문81)
신두식(의대58)
신의정(음대55)
신정택(약대62)
안이섭(법대53)
안태홍(상대65)
양거영(의대49)
양명자(사대63)
양성택(상대66)
엄종열(미대61)
우관혜(음대63)
우상영(상대55)
유 강(의대64)
유영호(의대52)
유재룡(공대58)
유택상(문리58)
육순재(의대63)
윤병하(농대80)
윤봉균(사대54)
윤신원(의대50)
윤영섭(의대57)
윤인숙(간호63)
윤정옥(약대50)
윤준식(법대58)
이강욱(공대70)
이경림(상대64)
이경태(공대63)
이국진(사대51)
이근수(상대64)
이능석(의대57)

<27면에 계속>

2014.7~2015.6 동창회비 선납

▶Alabama
유성무(상대66)

▶California
강재호(상대57)
강중경(공대48)
계지영(문리60)
고영순(음대59)
권오형(사대61)
김광은(음대56)
김동산(법대59)
김석홍(법대59)
김 정(치대59)
김혜숙(약대77)
남장우(사대56)
배동완(공대65)
신광재(공대73)
신대식(상대60)
신우식(치대59)
안병일(의대63)
양은혁(상대56)
양창효(상대54)
유희자(음대68)
이현숙(사대62)
정동주(가정72)
제영혜(가정71)
차재철(의대62)
황준오(치대70)

▶Chicago
강영국(수의67)
이소희(의대61)
이승자(사대60)
임근식(문리56)
임현재(의대59)
전현일(농대62)
정승훈(공대60)
최희수(문리67)

▶Florida
황현상(의대55)
홍순호(수의74)

▶Georgia
방창모(문리49)
임수암(공대62)
임한웅(공대60)
정광호(공대60)
정일화(상대55)
최재학(사대56)

▶Hawaii
김승태(의대57)
김용수(농대75)
장광수(사대50)

▶Heartland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이상강(의대70)

▶Michigan
고광국(공대54)
김국화(공대56)

▶Minnesota
변우진(인문81)

▶NY & NJ
계동휘(치대67)
김봉련(54)
김용술(상대56)
김정순(법대53)
배명애(간호47)
박순영(법대56)
서병선(음대65)
송병문(공대62)
양명자(사대63)
유재섭(공대65)
이경태(공대63)
이재진(의대59)
이전구(농대60)
조종수(공대64)
한인수(사대73)

▶Ohio
최인갑(공대57)

▶Oregon
김상만(음대46)
김상순(상대67)
한국남(공대57)

▶Philadelphia
전회근(의대54)

▶Texas
최관일(공대54)
황명규( )

▶Utah
김인기(문리58)

▶Wa.DC
강연식(사대57)
권오근(상대58)
권철수(의대68)
김시환(공대71)
김영기(공대73)
김창호(법대56)
방정화(의대61)
서윤석(의대 62)
신용계(의대62)
이유세(사대72)
정기순(간호67)
정원자(농대62)

▶Wa.States
김석민(사대55)
김선호(사대59)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7

<26면에서 계속>
이대연(약대65)
이명준(공대72)
이문봉(미대76)
이병무(법대58)
이성구(약대56)
이성기(간호72)
이승철(약대66)
이시진(문리54)
이영숙(간호56)
이영애(농대59)
이용대(약대63)
이운순(의대52)
이유성(사대57)
이유찬(의대58)
이재진(의대59)
이전구(농대60)
이정은(의대58)
이정자(간호59)
이종대(약대65)
이종석(상대57)
이종환(법대51)
이준행(공대48)
이중춘(공대56)
이충오(의대63)
이태상(문리55)
이태형(문리62)
이희경(의대55)
임건식(음대54)
임공세(의대63)
임대묵(의대60)
임충섭(미대60)
장영식(법대59)
전병삼(약대54)
정도현(공대57)
정순기(문리6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조규웅(의대59)
조남천(사대59)
조달훈(사대66)
조대영(공대61)
조성준(의대58)
조숙자(간호59)
조영일(공대68)
조종수(공대64)
조태환(상대56)
조희재(음대58)
주선후( )
차국만(상대56)
천병수(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수강(의대65)
최영태(문리67)
최영혜(간호64)
최원로(의대42)
최일단(미대55)
최준희(의대58)
최치권(상대53)
최태식(의대69)
최한선(공대56)
최한용(농대58)
최형무(법대69)
최 호(문리61)
한성호(약대60)
한영수(의대61)
한태진(의대58)
함종금(간호66)
허경열(의대73)
허병열(사대42)
허선행(의대58)
허정열(사대63)
홍선경(의대58)

▶Ohio
김동광(공대62)
명인재(자연75)
박 철(사대58)
성홍환(수의75)
송용재(의대63)
여준구(의대64)
이건일(의대62)
이명진(공대61)
이영웅(의대56)
최인갑(공대57)

▶Oregon
김상만(음대46)
김상순(상대67)
박희진(농대78)
성성모(사대67)
이은설(문리53)
정태훈(공대68)
최동근(문리50)
한국남(공대57)
한영준(사대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59)
강준철(사대59)
고병은(문리55)
고영자(치대63)
김국간(치대64)
김규화(상대63)
김동한(문리53)
김무형(약대63)
김상천(농대64)
김영우(공대55)
김순주(치대95)
김종규(치대63)
김주진(법대54)
김현영(수의58)
남영선(공대79)
문대옥(의대67)
민홍식(수의60)
박영한(약대68)
박호현(의대52)
배성호(의대65)
서의원(공대66)
서재진(공대47)
서중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송성균(공대50)
송영두(의대56)
신선자(사대60)
신성식(공대56)
심영석(공대76)
심완섭(의대67)
안세현(의대62)
양운택(의대58)
염극용(의대54)
오진석(치대56)
원종민(약대57)
윤정나(음대57)
이규호(공대56)
이만택(의대52)
이병인(수의69)
이성배(수의59)
이성숙(가정74)
이송옥(사대64)
이우영(공대56)
전무식(수의61)
전방남(상대73)
전희근(의대54)
정용남(문리60)
정홍택(상대61)
제갈은(문리59)
조영호(음대56)
조화연(음대64)
주기목(수의68)
지재원(사대68)
지홍민(수의61)
차호순(문리60)
최종무(상대63)
최종문(공대61)
최준희(의대58)
한용오(대원70)

▶Rocky Mt.
김낙제(농대56)
박용호(의대65)
송요준(의대64)
신경일(공대58)
표한승(치대58)

▶Utah
김성완(문리59)
김인기(문리58)
마천일(의대62)

▶Tennessee
김경덕(공대75)

▶Texas
곽노환(문리48)
김기준(공대61)
김민자(사대58)
김세진(공대69)
김승겸(수의49)
김은영(가정77)
김인선(음대59)
김장환(공대81)
김태훈(공대57)
김형만(공대75)
김훈묵(사대58)
명인성(공대50)
박석규(간호57)
박영규(사대66)
박유미(약대62)
박준섭(약대63)
신달수(공대59)
양덕주(문리66)
유 황(농대56)
이규진(약대60)
이길영(문리59)
이동성(의대51)
이상한(상대53)
이주희(음대89)
이찬주(문리63)
이학호(수의59)
이화영(음대95)
이희덕(농대68)
조진태(문리57)
진기주(상대60)
채영철(공대50)
최관일(공대54)
최성호(문리58)
최용천(의대53)
탁순덕(사대57)
허 천(공대60)

▶Wa.DC
강길종(약대69)
강웅조(문리56)
강준희(의대71)
강창욱(의대55)
강철은
공순옥(간호66)
곽근영(사대51)
권기현(사대53)
권오근(상대58)
권철수(의대68)
김기공(문리68)
김기한(공대67)
김내도(공대62)
김동훈(법대56)
김명자(법대52)
김병선(사대63)
김병오(의대63)
김부근(의대54)
김승태(문리66)
김시환(공대71)
김안정(문리59)
김영기(공대73)
김용덕(의대53)
김윤호(공대64)
김응한(상대46)
김정식(농대85)
김주평(의대62)
김주희(공대71)
김진은(사대55)
김찬규(공대54)
김창호(법대56)
김평식(의대61)
김해식(공대59)
나수섭(의대50)
남춘일(사대69)
도상철(의대63)
문성길(의대63)
박동수(의대67)
박배일(공대74)
박용걸(약대56)
박유진(미대58)
박윤수(문리48)
박일영(문리59)
박평일(농대69)
박한수(경영81)
박형순(의대54)
박홍우(문리61)
백 순(법대58)
변만식(사대49)
서윤석(의대62)
서진석(의대62)
석균범(문리61)
소숙영(간호64)
송병준(약대68)
송영우(사대64)
신구용(공대59)
신용계(의대62)
신상균(의대52)
안선미(농대65)
안승건(문리55)
엄달용(공대69)
오광동(공대52)
우제형(상대54)
유덕영(공대57)
유재풍(법대60)
이경애(문리54)
이규양(문리62)
이내원(사애58)
이명숙(음대52)
이문항(공대46)
이병붕(의대57)
이선구(문리65)
이선화(공대65)
이연구(미대60)
이영묵(공대59)
이영수(공대59)
이우진(농대)
이유세(사대72)
이재승(의대55)
이종두(의대57)
이종삼(문리54)
이주경(경제82)
이준영(치대74)
이진호(공대47)
이형모(의대45)
임종식(의대51)
임창주(공대55)
임청규(공대62)
임필순(의대54)
장수영(공대57)
장윤희(사대54)
전경철(공대55)
전백향(음대74)
정기순(간호67)
정두현(의대55)
정원자(농대62)
정평희(공대71)
조세진(의대65)
조화유(문리61)
최경수(문리54)
최규식(상대64)
최대성(법대46)
최정미(사대54)
최준호(공대60)
최지원(의대55)
한의생(수의60)
한인섭(문리55)
한정민(농대87)
함은선(음대77)
홍영석(공대58)
홍용식(공대51)
홍윤기(공대61)
홍창희(공대72)

▶Wa. States
고광선(공대57)
구본영(공대65)
김선호(사대59)
김영창(공대64)
김인배(수의59)
김재호(상대54)
김형록(간호59)
박진수(의대58)
백우현(상대59)
류성열(공대72)
송 준(공대55)
이동립(의대52)
이순모(공대56)
이원섭(농대77)
이종성(의대58)
이희백(의대55)
최근녕(법대63)
최준한(농대58)
홍계인(음대60)

2013.7~2014.6
관악후원금

▶Arizina
박양세(약대48)200

▶California
김낙구(상대67)200
김동석(음대64)200
김동호(농대58)200
김명원(의대62)200
김병수(상대55)1000
김순길(문리61)200
김원탁(공대65)200
김윤범(의대58)200
김정희(음대56)200
백옥자(음대71)200
송명식( )300
심영춘(수의64)200
염동해(농대74)200
유재환(상대67)200
이교락(의대53)100
이기준(법대54)200
이명선(상대58)500
이병무(치대70)200
이영일(문리53)200
이일복(공대64)200
이장우(문리72)200
이철훈(치대60)300
임춘수(의대57)200
정원훈(상대38)200
조동준(의대57)225
최 철(의대62)200
추춘득(공대69)200
황만익(사대59)200

▶Chicago
구경희(의대59)200
이용락(공대48)200
임근식(문리56)200

▶Florida
오석일(의대64)350

▶Georgia
정일화(상대55)200

▶Heartland
배규영(사대68)200
이상강(의대70)350

▶Hawai
김창원(공대49)200

▶Houston
진기주(상대60)200

▶Minnesota
김태환(의대58)200

▶New England
김제호(상대56)200
오세경(약대61)200
윤상래(수의62)200

▶NY & NJ
권영국(상대60)200
김기훈(상대52)200
김명철(공대60)200
김병숙(보대원)200
김은섭(의대53)200
김정순(법대53)200
김정환(문리60)300
김훈일(공대60)200
노용면(의대49)200
문석면(의대52)200
라찬국(의대57)200
박상원(음대69)200
윤병하(농대80)300
이운순(의대58)200
이전구(농대60)500
정도현(공대57)200
최한용(농대58)200
한용호(법대48)200
한인섭(약대63)300
허선행(의대58)200
*익 명(법대)500

▶Ohio
최인갑(공대57)200

▶Oregon
김상순(상대67)200

▶N.Carolina
한광수(의대57)200

▶Philadelphia
김국간(치대64)200
김영우(공대55)200
김주진(법대54)200
손재옥(가정77)500
송성균(공대50)200
신성식(공대56)200
이만택(의대52)200
전희근(의대54)200
주기목(수의68)200

▶Texas
이광연(공대60)200
이희덕(농대68)200
진기주(상대60)200

▶Utah
김성완(문리59)200

▶Wa.DC.
강길종(약대69)200
강연식(사대57)300
강창욱(의대55)100
공순옥(간호66)475
권기현(사대53)520
권철수(의대68)200
김기공(문리68)200
김동훈(법대56)200
김부근(의대54)200
문성길(의대63)200
박평일(농대69)300
박용걸(약대56)200
방은호(약대43)1000
백 순(법대58)200
변만식(사대49)200
서윤석(의대62)200
안선미(농대65)225
유재풍(법대60)200
윤경의(공대57)500
이병붕(의대57)200
이선명(문리59)200
이영묵(공대59)500
이영덕(사대61)200
이영수(공대59)200
이윤주(상대63)200
이종삼(문리54)225
전경철(공대55)200
정원자(농대62)425
정평희(공대71)300
최준호(공대60)200
최지원(의대55)425
한의생(수의60)200
함은선(음대77)200

▶Wa.St.
고광선(공대57)500
김성열(치대61)200

▶Georgia
방창모(문리49) 25
정량수(의대60) 25
정일화(상대55)225

▶NY & NJ
강성권(공대65) 25
배명애(간호47)1000
윤병하(농대80)100
이정자(간호59)100
정창동(간호45) 25
조성준(의대58) 25

▶Philadelphia
민홍식(수의60) 25

▶Terxas
조진태(문리57) 25

▶Wa. DC
박용걸(약대56)225
임종식(의대51)175
조세진(의대65) 50
홍용식(공대51)100

▶Wa. States
이원섭(농대77)225

이만택(의대52) 750
이병준(상대55) 2500
이승훈(상대74) 2400
이우진(농대) 600
최재현(수의66) 400
한스여행사 2300

이전구(농대60)120
최영태(문리67)240 (1년치)

▶Oregon
박희진(농대78)240 (1년치)

기타 후원

▶California
강정수(문리61)110
고준희(치대53) 30
김기선(간호55) 75
김난영(공대53) 25
김승희(법대55)25
김익창(의대51)100
박서규(법대56) 25
박정모(문리66) 25
박창선(공대55) 25
이교락(의대53)100
이내원(사대58) 25
이창섭(공대57) 25
장시경(약대58) 30
전상옥(사대52)100
한홍택(공대60) 50
남가주동창회 100

종신 이사회비

▶고일석(보대원) 3000
▶김명자(문리62) 3000(명단 누락으로 추가)

2013.7~12
광고 후원

NY.Chapter 600
DC.Chapter 600
Phila Chapter 500
DC 가정상담소 300
김 영(수의 63) 300
김정필(공대71) 400
CA 동창회 400
CA 농대동창회 400
노명호(공대61) 1000
뉴욕 동창회 300
듀오 3400
박상원(음대69) 400
서치원(공대69) 1000
손재옥(가정77) 1500
유재환(상대67) 1000
이규섭(상대68) 200

2013.7~12
업소록

▶California
강동순(법대59)120
강신용(사대73)120
강호석(상대81)120
김경무(공대69)120
김광철(음대59)120
김기형(경영75)120
김영중(치대66)120
김재영(농대62)200
독고원(공대65)120
서동영(사대60)120
성홍환(수의75)120
신대식(상대60)240
신혜원(사대81)120
양태준(상대56)240
엄달용(공대69)120
염동해(농대74)120
이강원(인문76)120
이병준(상대55)500
이상대(농대80)120
이종묘(간호69)120
장 준(인문85)120
정수만(의대66)120
정임현(간호72)120
정재훈(공대64)120
정지선(상대58)300
정진수(공대56)120
조임현(간호72)120
차기민(공대85)120
최무식(약대66)120
하선호(치대81)120
한상봉(의대67)240 (1년치)
황준오(치대73)120

▶Georgia
이영진(공대76)120

▶Nevada
김영중(치대66)120

▶NY & NJ
김주현(공대93)120
김창수(약대64)120
윤병하(농대80)120
이경림(상대64)120
이재원(법대60)120

▶Philadelphia
손재옥(가정77)120
주기목(수의68)120
최종문(공대61)120

▶Texas
진기주(상대60)120

▶Wa.DC.
남욱현(경영84)120
박평일(농대69)120
이준영(치대74)120
정평희(공대71)200

Brain Network Symposium 후원

권철수(의대68)500
김윤범(의대58)100
김혜암(의대53) 75
남장우(사대56)200
이정자(간호59)100
이준행(공대48)1000
이채진(문리55)100
전방남(상대73)100
전원일(의대77) 50
정태진(의대53)100
볼티모어 서울대 의사회 1000

모교 도서관 후원

고광선(공대57)10000
김정희(음대56)1000
정동구(공대57)10000
박상원(음대69) 1000
손재옥(가정77) 1000
오인환(문리63) 1000
NY동창회(2013) 1000

지역동창회 분담금납부

(괄호 안은 서울 총동창회 지원금)
▶NY 1000(2000)
▶CH 1200(2400)
▶DC 1000(1000)
▶PH 500(1000)
▶NE 500(500)
▶OR 100(200)
▶남가주 1000( )
▶북가주 400(800)
▶SD 200(350)
▶Houston 200(350)
▶Dallas 200(350)
▶HL 200(400)
▶Wa.주 200(400)
▶중부 Texas 100(200)
▶테네시 100(200)

평의원회비

이원섭(농대77)100
구명순(간호66)100
권기현(사대53)100
김경숙(가정70)100
김은종(상대59)100
김은한(의대60)100
김창신(사회75)100
김호범(상대69)200
김호원(치대52)100
박평일(농대69)200
박혜옥(간호69)100
백 순(법대58)100
이주희(음대89)100
서중민(공대64)100
송순영(문리52)100
안선미(농대65)100
윤상래(수의62)100
이만택(의대52)100
이상강(의대70)100
이영묵(공대59)100
이용락(공대48)100
장수인(음대76)200
조봉완(법대53)100
조화연(음대64)100
주기목(수의68)100
차기민(공대85)100
한의생(수의60)100
함은선(음대77)100
김용헌(경영59)160
이강원(공대66)160
전현일(농대62)160
김명자(문리62)100
이승자(사대60)100
곽승용(의대65)200
권철수(의대68)200
윤경의(공대58)200
이영우(문리66)200
이전구(농대60)200
김동광(공대62)260
한중희(공대80)260
손재옥(가정77)100
박형준(공대87)100
고병은(문리55)100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김부근	(의대 54)	100
▶강연식	(사대 57)	125
▶석균범	(문리 61)	200
▶김인국	(문리 50)	300
▶최지원	(의대 55)	500
▶권철수	(의대 68)	500
▶문광재	(의대 68)	500
▶김길평	(상대 62)	501
▶방은호	(약대 43)	600
▶신창민	(상대 60)	1,000
▶곽노섭	(수학 53)	1,000
▶권기현	(사대 53)	1,000
▶조순자	(문리 53)	1,000
▶한재은	(의대 59)	1,000
▶최 철	(의대 62)	1,000
▶이준행	(공대 48)	2,000
▶차재철	(의대 62)	3,000
▶강신호	(의대 51)	3,000
▶이상강	(의대 70)	5,000
▶손재옥	(가정 77)	10,000
▶이병준	(상대 55)	10,000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는 물론 모교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8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정/ 보험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 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치과병원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재정/ 컨설턴트

U
김기형(상대 75)
Michael Kim
CEO
3435 Wilshire Blvd. #282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505-8102
Cell: (626) 722-7835
Fax: (213) 947-1521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서비스 /자동차/재정/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 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교회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묘(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300 Mt.View CA 94043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29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o@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MD,VA 워싱턴DC

치과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IO.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모터/기계/전기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재정/보험/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O)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신 간

■ 평화와 전쟁
- 權彛赫 지음

문교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환경처 장관, 모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대학원장, 병원장, 총장 등을 역임한 又岡 權彛赫(의학41 - 47 본회 고문)명예교수가 望百을 보내면서 펴낸 아홉 번째 에세이집.

朴槿惠대통령의 이모저모, 평화와 전쟁, 아름다운 사제 간의 정분 등 2013년에 쓴 80여 편의 글을 묶었다.

蔡命新장군의 유언,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의 서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 方一榮 前조선일보 고문의 10주기 등에 대해서도 감정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모교 高柄翊 前총장, 李文鎬명예교수 등 그리운 사람들을 추억하며,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아나운서클럽 金東鍵회장, 연세대 金命鎬명예교수, 金炳洙 前연세대 총장, 朴泰源 前인하대 총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愼鏞廈명예교수, 尹誠敏 前국방부장관 등의 삶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했다. 〈신광출판사刊 · 값22,000원〉

■ 아버지
- 崔禎鎬 엮고 지음

한국일보·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울산대 崔禎鎬(철학52 - 57)석좌교수가 아버지의 시·편지 등 육필을 모으고 아버지를 회고한다. 개인과 역사의 만남으로도 읽힌다.

`한집안의 밀알 같은 한국 현대사'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의 1부 又下文集은 아버지의 유고를 모은 것으로, 맨 앞에 나오는 `詩'는 1924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12년 동안에 쓴 것으로 아버지 나이 19세부터 31세까지, 주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지은 글이다. `書'부분에는 서찰들을 담았고, `附'에는 대학 졸업논문 초고의 상당부분과 단편소설 습작의 한두 쪽을 복사해 실었다.

2부 追慕集은 제문과 함께 추모의 글로 엮었다.

한국신문학회장, 한국미래학회장 등을 역임한 崔동문은 2002년에 `한독 포럼'의 창립 발기인으로 2010년까지 포럼의 한국측 의장을 맡아 왔다. 〈시그마북스刊 · 값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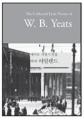
■ 눈물의 강산
- 朴尙植 지음

주보스턴 총영사, 주싱가포르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朴尙植(영문54 - 59)동문의 자전적 소설.

朴동문은 자신의 인생을 5악장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회고한다.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 5악장으로 구성된 데서 암시를 받았다. 자신의 인생 여정이 베토벤의 산보처럼 유유자적하지는 않았으나, 다섯 개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1934년부터 1962년까지를 육체적·지적 성장기, 1962년부터 1979년까지를 진리탐구기, 1979년부터 2000년까지를 지적시험기,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를 자신과의 대화기라 부르고 싶었다고 한다.

朴동문은 이 단편집에서 인생의 제1기(제1악장) 후반(1950~1962년)에 겪고 보고 들은 사실들을 자신의 문학관에 입각해 재구성했다.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刊 · 값15,000원〉

■ 예이츠 서정시 전집
- 金相武 역주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세계적 시인인 예이츠의 서정시를 故 金相武(영문54 - 60 前영남대 교수)동문이 한데 모아 영한대역으로 번역하고 주석을 단 책.

예이츠를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길잡이가 되고, 일반 독자에게는 예이츠 시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예이츠의 작품에서 희곡과 극시를 제외한 독립된 작품으로 거론되는 총 3백78편의 서정시를 아일랜드, 사랑,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3권으로 구성했다.

혈통으로는 영국인이었지만 예이츠 스스로 아일랜드인임을 자처하면서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을 주도하고, 정치·문화 일반의 온갖 활동을 전개하면서 쓴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각 시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배열하고 최대한 주석을 상세히 달아 작품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번역의 근거를 제시했고, 외국 시도 우리 시처럼 잘 읽히도록 읽을 때의 숨결을 고려해 우리말로 옮겼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 · 값1·2권 30,000원/3권 32,000원〉

■ 누가 佛頭에 황금똥 쌌나?
- 高濬煥 지음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경기대 법정대학장 등을 지낸 본각선교원 高濬煥(법학61 - 65)원장이 쓴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

저자에 따르면 우주는 本覺(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이고, 不二中道이며, 열반이며, 적멸이고 부처이니, 중생이 본각으로 살아가려면, 信解行證을 실천해야 한다. 본각은 중생을 떠난 적이 없고, 새롭게 깨달은 始覺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닌 본각이요, 구경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생이 禪敎一致로 크게 깨달아 중생불(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하는 일이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의 스승이자 대선사요, 유불선의 3절이었던 김탄허 스님이 `현토역해 신화엄경합론' 등 수많은 책을 출간하고 인재양성에 힘쓰다가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를 쓰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에 들었다. 高동문은 "제자로서 탄허 스님 열반 30주년을 맞아 큰스님 뜻에는 足脫不及이지만, 작은 정성을 바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삼가 말씀드린다"고 출간동기를 밝히고 있다. 〈본각선교刊 · 값18,000원〉

■ 신발끈 매고 시작하는 서울기행
- 尹在錫 지음

방송인 尹在錫(화학교육71 - 75)본보 논설위원이 `신발끈 매고 시작하는 서울기행'을 출간했다.

`스물다섯 가지 서울을 만나다'라는 副題가 붙은 이 책은 저자가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BMW(Bus, Metro and Walk)로 누비며 탐방한 내용을 서울시가 발행하는 월간지 `서울사랑'에 2년여 동안 게재한 후 이를 재구성한 것.

서울의 민낯과 내밀한 속살을 파헤친 이 책자를 따라 서울을 탐방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서울기행이 된다. 특히 모교 탐방 내용이 들어있는 관악구 편에는 모교 개학년도를 1895년으로 복원한 내용이 들어 있다. 종로구에서 태어나 5대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토박이(Native Seoulite)로 서울의 인문·역사·지리에 정통한 저자는 2009년 에세이 `나의 살던 서울은'을 출간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刊 · 값12,000원〉

■ 낙타의 눈
- 金龍均 지음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바른 金龍均(법학73 - 77)변호사가 山과 함께 한 四季를 소개한 시집을 출간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부로 나눠 소개한 1백여 편의 시를 통해 金동문 삶의 여정 속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책 말미에 실린 표제작 `낙타의 눈'을 소개한다.

짐짓 방울소리 울리지 않는 낙타여. / 영락없이 나처럼 인고와 겸손을 치장하고 / 순량한 네 등허리에 올라 고삐 잡은 손들, / 수만리길 서방정토의 극락을 헤매어간다만 / 부처는 정작 네 눈 속에 시퍼러니 살아있고나. 〈리토피아刊 · 값10,000원〉

■ 검은, 그러나 어둡지 않은 아프리카
- 李永睦 외 지음

모교 불어불문학과 李永睦(불문83 - 87)교수 등이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을 폭넓게 다룬 책.

8명의 필자들은 아프리카를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1~3장까지는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를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4~8장까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의 문학, 가족, 영화, 미술 등을 소개하며 이 지역의 역동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모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에서 발간한 불어문화권연구총서 중 두 번째 책으로 기획됐으며, 불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기업계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되리라 본다. 〈사회평론刊 · 값20,000원〉 ***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30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여행기·독후감·기타 = 동창회보는 모든 동문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니 언제든 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정치사회적, 또는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동문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다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너무 치우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특집이 아닌 경우 A-4(Letter)용지 3~4매 이내로 얼굴사진과 연락처를 첨부해주십시오.

▶My Journey to America = 동문들의 지나 온 과거를 그리는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용완(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휴가는 둘째, 평의원 회의만이라도 = 필자는 동창회보 편집을 맡은 지난 5년간 한번도 휴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보 편집이 급하다 보니 휴가를 얻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가는 커녕 연휴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이나 연휴는 아예 꿈도 못꾸었습니다. 원인은 미주 평의원 회의에 있습니다. 늘 6월 말 경 열리기 때문에 회보 발행 지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 발송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매월 5일 이내 발행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평의원회의가 늦어진 관계로 이번 7월호는 5일 발행이 불가능해졌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는 전 월보다 더 늦어졌지요. 따라서 이 일정을 다시 맞추려면 또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마감을 하루 당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같은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 2년마다 미주 동창회 본부가 바뀔 때입니다. 필자를 채용해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만 거주 아파트 계약이 끝나는 6월 말 부랴부랴 타주로 이사해야 하나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 비행기표 예약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 자동차로 이사하곤 했지요. 평의원 회의를 6월 중순 경으로 좀 당겨달라고 요청하지 그랬냐고요? 물론 그랬죠. 하지만 막상 그 때가 되면 회장단에서는 까맣게 잊곤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이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설령 필자가 다시 채용되지 않더라도 아파트는 6월말 무조건 비워줘야 하니까요.*** **<편집주간>**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흥조(치)·이영묵(공)·이전구(농)·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종(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 이원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이영묵(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 행 인 : 오인환(문)
주 필 : 백 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서윤석(의)·이윤주(상)·이해덕(상)
정평희(공)·김정식(농)·진학송(약)·함은선(음)
이나래(경)·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고병철(법)·조동준(의)·이채진(문)
최용완(공)·정홍택(상)·윤상래(수의)·김창수(약)
차민영(의)·이석구(문)·김용헌(경)·유재풍(문)
장석정(법)·허용출(사)·민경훈(법)·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 원= 서중민(공)·이민언(법)·윤상래(수의)
김지영(사)·신응남(농)·함은선(음)

감 사 : 박평일(농)·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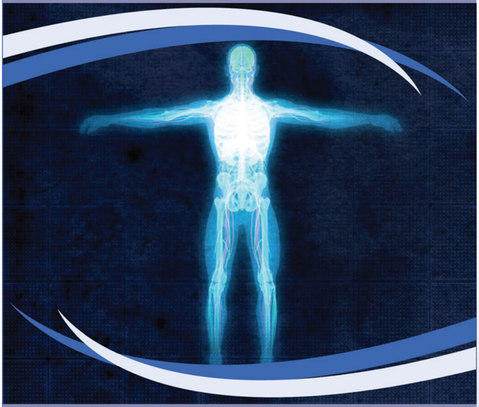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 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록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jnj.com	Jan-Dec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31

7월호 1~32면_Aug_Rev 2014-07-14 오후 1:23 페이지 32

KOREA-MARYLAND, USA BIO EXPO 2014



THE KOREA-MARYLAND, USA BIO EXPO 는 한. 미 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최적의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제 4 회 Korea-Maryland, USA Bio Expo 는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사의 주최로, 미국 워싱톤 DC 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심장부인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Baltimore)에서 개최됩니다. 본 박람회에는 해당 분야 최고의 연구진, 기업체, 투자자, 언론사,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참관객 여러분을 반겨드릴 것 입니다.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학계 혹은 기업체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링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장기 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박람회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올해 다시 참가하여, 새롭게 참가하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 입니다.

귀하를 올해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되는 Korea- Maryland, USA Bio Expo 2014 에서 꼭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람회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직통전화번호 +1 301-528-2200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월 26 일(일)부터 11 월 2 일(일) 까지 박람회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The Bio Road Across the World

시간 및 장소

2014 년 10 월 26 일– 11 월 2 일

Turf Valley
Convention Center
2700 Turf Valley Rd
Ellicott City, MD 21042

홈페이지: www.kmbioexpo.com

PROGRAM

한. 미 간 바이오 산업분야를 주도하는 기업, 학계간의 파트너링.
줄기세포, 메디컬 로보틱스, 한의학 관련 포럼 개최.
학계, 기업체, 정부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강사진.

EXHIBITION

박람회에 참가하신 기업체 간부와 사무관들과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SPONSORS

박람회를 후원하시거나 이를 통하여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20410 Observation Dr. Suite 105
Germantown, MD 20876
+1 301-528-2200
contact@jgbli.com

www.kmbioexpo.com